

국립국어원
수어 교육 전문용어
표현 연구
연구 책임자 | 남 기 현

수어 교육 전문용어 표현 연구

연구 책임자 | 남 기 현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수어 교육 전문용어
표현 연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기간: 2023년 10월 26일 ~ 2023년 12월 21일

2023년 12월 21일

연구 책임자: 남기현(나사렛대학교)

연구 기관: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남기현

공동 연구원: 민은주, 조희경

연구 보조원: 권희주, 이현진

수어 교육 전문용어 표현 연구

본 연구는 공공부문 수어 소통 활성화의 일환으로 한국수어교원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어 관련 교육 및 시험 등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보급의 필요성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수행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수어교육능력시험의 5개 영역인 한국수어교육론, 농문화와 농사회, 한국수어학, 한국수어 실제1, 한국수어 실제2에서 47개 전문용어와 그에 해당하는 74개의 수어 표현을 추출하였다. 한국수어교육원 및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 등에서 해당 전문용어에 대한 실제 사용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20명을 섭외하여 6차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하여 47개 전문용어에 해당하는 74개의 수어 표현의 사용 빈도와 적절성을 조사하였고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140개 전문용어 수어 표현을 수집하였다.

첫째, 시험 영역별로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의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수어교육론 영역은 타 영역에 비하여 인지도가 낮았는데 이는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서 타 영역에 비해 전문용어의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용어의 개념적 난해함, 전문용어의 특성상 다중 복합어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개념을 어휘가 아닌 설명식으로 표현한 용어가 많았던 것도 사용 빈도가 낮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농문화와 농사회 영역은 높은 빈도로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빈도가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정체성1’은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어와 지문자의 병기가 개념의 명확성을 더 높여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국수어교육론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동화주의’ (50%), ‘이중언어·이중문화농교육2’ (45%)는 개념의 난해함과 수어 표현이 설명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 원인으로 추측된다.

한국수어학 영역도 농문화와 농사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사용 빈도 결과를 보였는데 22개 중 21개의 표현에서 60%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이 영역 역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뿐만 아니라 수어통역사 보수교육을 비롯하여, 여타 많은 교육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기에 용어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상

위 90%를 차지한 16개의 표현 중 ‘공간동사’를 제외한 모든 용어는 지문자를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지문자로만 표현되었다. 한국수어학 영역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전문용어들이 지문자로 표현된 것은 시험에 출제된 전문용어인 만큼 번역 과정에서 의미의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오역이 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험 영역별로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의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수어교육론 영역의 전문용어 수어 표현 27개 중 15개만이 50% 이상의 적절도를 보였으며 이는 네 영역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사용 빈도 조사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어교육원 양성과정 및 기타 교육 현장에서 전문용어의 노출 빈도가 낮은 것이 적절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적절성 향상을 위해서는 수어 표현 연구가 필요한 영역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중 표현으로 출제된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 중 시기적으로 먼저 출제된 전문용어의 수어 표현이 후에 출제된 전문용어의 수어 표현보다 높은 적절도를 보였다. 기존의 번역된 표현보다 의미 전달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표현을 제시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적절도 평가에서는 더 낮게 나왔다.

한국수어교육론 영역의 전문용어 적절도와 구성 방식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을 때 수어만으로 구성된 표현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으나 개념이 어려워 정확한 수어 표현이 어려울 때 지문자만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수어와 지문자를 병기함으로써 이해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지문자로만 표현된 전문용어는 모두 적절도 50% 이상의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공인된 수어 표현이 없을 때 차선으로 지문자를 선택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농문화와 농사회 영역의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의 적절성과 구성 방식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19개의 수어 표현 중 적절도가 50% 이상인 수어 표현은 12개이고 그 중에서 수어로만 구성된 수어 표현은 10개나 되었다. 대다수의 수어 표현이 수어로만 구성된 것이다. 물론 수어로만 표현하였으나 매우 낮은 적절도를 보인 전문용어도 있었고 기타 다른 구성 방식의 전문용어도 각기 다른 적절도를 보여 적절도와 구성 방식의 연관성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수어학 영역의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 22개 중 6개만이 50% 이상의 적절도를 보였다. 22개의 수어 표현 중 지문자로만 표현한 전문용어는 14개인데 사용 빈도 조사 결과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문자로 표현된 전문용어들이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은 의미의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오역이 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나 사용 빈도와는 달리 수어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구성 방식을 살펴보면 지문자 표현이 14개로 다른 영역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영역 특성상 전문용어를 수어로 표현하기 용이하지 않거나 오역의 위험이 있어 한국어를 그대로 차용해 지문자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위 분석 및 조사 과정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인에게 수용도가 높은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의 적절성 기준 일곱 가지를 제안하였다. 전문용어의 설명을 지양하고 간결성을 유지한다(기준1). 농사회에서 대중화된 용어를 우선 수용한다(기준2). 무리한 수어 번역을 지양하고 지문자를 대안적으로 허용한다(기준3). 지문자와 수어 단어의 혼합 표현을 지양한다(기준4). 설명과 지문자의 잉여적 병기를 지양한다(기준5). 여러 의미로 유추되지 않도록 한다(기준6). 핵심 표현이 포함되도록 한다(기준7).

끝으로, 향후 전문용어의 수어 표현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의 권장안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전문용어를 수어로 번역할 때는 전문용어의 여러 정의 중에서 가장 확실한 정의를 번역해야 한다. 셋째, 전문용어의 정의와 수어 표현을 제시한 용어집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전문용어 수어 표현에 대한 농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섯째, 전문용어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여섯째, 전문용어의 수어 표현 개발 과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주요어: 한국수어, 수어교육, 전문용어, 수어표현, 용어집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terminology in Sign Language Education

As part of revitalization of sign language communication in the public sector, this study was conducted in response to the need to identify and disseminate the use of sign language expressions for technical terms used in sign language-related education and tests in order to establish a stable operation basis for the Korean Sign Language teacher system.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onducted in response to the need for such research are as follows.

Forty-seven technical terms and 74 sign language expressions were extracted from five areas of the Korean Sign Language education ability test: Korean Sign Language education theory, Deaf culture and Deaf society, Korean Sign Language linguistics, Korean Sign Language practice 1, and Korean Sign Language practice 2.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ctual use of the technical terminology at places like the Institute of Korean Sign Language Education and the Korean Sig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e, 20 field experts were recruited and interviewed six times to investigate the frequency and appropriateness of 74 sign language expressions corresponding to 47 technical terminology. Furthermore, 140 sign language expressions were collected from field experts.

First,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frequency of use of sign language expressions for technical terms by test area, the area of Korean Sign Language education theory was found to be less recognized than other areas because the frequency of use of technical terms was relatively low compared to other areas in the training process for Korean Sign Language teachers. The conceptual difficulty of technical terms, the fact that there were many multiple compound words due to the natures of technical terms, and the fact that there were many terms that expressed concepts in explanatory expressions rather than as vocabulary could be reasons for the low frequency of use.

It was found that the Deaf culture and Deaf society areas use or have seen sign language expressions for technical terms used with a high frequency. ‘Identity 1’, which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of use at 100%, is believed to be so because the combination of sign language and fingerspelling enhances the clarity of the concept in situations where sign language expressions for technical terms have not been established. As in the field of Korean Sign Language education, “assimilationism” (50%) and “Bilingual and Bilcultural Deaf Education 2” (45%), which are used relatively low, are presumed to be so due to the difficulty of concepts and the expression of sign language in explanatory expressions.

Like the Deaf culture and Deaf society areas, the area of Korean Sign Language linguistics also showed a fairly high frequency of use, with 21 out of 22 expressions showing a result of over 60%. This area also seems to be used frequently because it is an area where education is conducted not only in the training course for Korean Sign Language teachers but also in many other educational fields, including the retraining classes for sign language interpreters. Of the 16 expressions that accounted for the top 90%, all terms except for ‘spatial verbs’ included fingerspellings or were expressed only as fingerspellings. The reason why frequently used technical terms in the field of Korean Sign Language linguistics are expressed in fingerspellings appears to be to minimize the risk of loss of accuracy or mistranslation during the translation process, as these are technical terms that appear on exams.

Second,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appropriateness of sign language expressions for technical terms in each test area, only 15 out of 27 sign language expressions for technical terms in the Korean Sign Language education theory area showed an appropriateness of more than 50%, which is the lowest figure among the four areas. As with the results of the frequency of use survey, the low frequency of exposure to technical terms in Korean Sign Language teacher training courses and other educational sites seems to have influenced the assessment of appropriateness. In addition, it is judged to be an area where research on sign language expressions is necessary to improve appropriateness.

Among the sign language expressions for technical terms that were tested in multiple expressions, the sign language expressions for technical terms that were tested earlier showed higher appropriateness than the sign language expressions for technical terms that were tested later. It is judged that new expressions were

presented in the exams to clarify the transmission of meanings rather than the existing translated expressions, but they scored lower in the actual adequacy evaluation.

When looking at the correlation between terminology appropriateness and composition methods in the area of Korean Sign Language education theory, there is a tendency to aim for expressions consisting of only sign language, but when it is difficult to express accurate sign language due to difficulties in concept, understanding seems to have been facilitated by expressing it only with fingerspellings or by combining sign language and fingerspelling. All technical terms expressed only with fingerspellings show an appropriateness of 50% or higher, which means that it may be an appropriate method to select fingerspellings as the next best option when there is no recognized sign language express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ppropriateness of sign language expressions and the composition methods of terminological sign language expressions in the area of the Deaf culture and Deaf society, there were 12 sign language expressions with an appropriateness of 50% or more among 19 sign language expressions, and among them, 10 expressions consisted only of sign language. This means that sign language expressions for the majority of technical terms are composed only of sign language. Of course, there were technical terms that were expressed only in sign language but showed very low appropriateness, and technical terms in other composition methods also showed different appropriateness, so the correlation between appropriateness and composition methods can be said to be minimal.

Only 6 out of 22 sign language expressions for technical terms in the field of Korean Sign Language linguistics showed an appropriateness of more than 50%. Of the 22 sign language expressions, 14 were expressed only with fingerspellings, and as mentioned in the results of the frequency of usage survey, the high frequency of use of technical terms expressed with fingerspellings was not judged good in evaluating whether the sign language expression was appropriate, while the high frequency of use was employed in order to minimize the risk of poor accuracy of the meaning or mistranslation.

Regarding the composition method, there were 14 expressions of fingerspellings, which was significantly more than in other areas. Due to the nature of the area, it was not easy to express technical terms in sign language or there was a risk of

mistranslation, Therefore it seems that Korean language technical terms were directly borrowed and expressed in fingerspellings.

Third,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through the above analysis and research process, we propose seven criteria for the appropriateness of sign language expressions for technical terms that are highly acceptable to deaf people in the future. Avoid explaining technical terms and maintain brevity (Criterion 1). Terms popularized in the Deaf society are accepted first (Criterion 2). Avoid unreasonable sign language translation and allow fingerspellings as an alternative (Criterion 3). Avoid mixed expressions of fingerspellings and sign language words (Criterion 4). Avoid redundant descriptions and fingerspellings (Criterion 5). Do not be inferred in many meanings (Criterion 6). Key expressions should be included (Criterion 7).

Lastly, our suggestions for increasing the appropriateness of sign language expressions of technical terms in the future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ropose recommendations for sign language expressions for technical terms. Second, when translating technical terms into sign language, the most accurate definition among the various definitions of the technical term must be translated. Third, glossaries that present definitions of technical terms and sign language expressions must be developed. Fourth, the opinions of the Deaf society on sign language expressions for technical terms must be collected. Fifth, prior education on technical terminology must be provided. Sixth, there is a need for a change in awareness of the process of developing sign language expressions for technical terms.

Keywords: Korean Sign Language, Sign Language Education, Technical Term, Sign Language Expression, Glossary

차 례

I. 연구 개요	3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2. 선행연구 검토	8
3. 연구추진방법	18
II.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사용 및 적절성 조사	27
1. 전문용어 추출	27
2. 사용 빈도 조사 결과	31
3. 적절성 조사 결과	39
III.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적절성 기준	57
1. 기준1	57
2. 기준2	59
3. 기준3	61
4. 기준4	62
5. 기준5	63
6. 기준6	65
7. 기준7	67
IV. 결론 및 제언	71
1. 결론	71
2. 제언	75

참고문헌	77
------------	----

부록	81
----------	----

<부록1> 한국수어교육능력시험에서 추출한 전문용어별 수어 표현

<부록2> 교육 현장에서 수집한 전문용어별 수어 표현

<부록3> 일본 기관 방문

표 차 례

<표 1> 한국수어교육능력시험을 통한 한국수어교원 배출 현황	4
<표 2> 한국수어교육능력시험 영역별 한국수어와 한국어 문항 비율	4
<표 3> 한국수어 교육기관 지정 현황	5
<표 4>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	5
<표 5>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의 유형	7
<표 6> 전문용어 표준화 기준	13
<표 7> 전문용어 형성 기준	14
<표 8> 현장 전문가 인터뷰 일정	22
<표 9> 자문위원 정보	23
<표 10> 주석 표기 방법	23
<표 11> 한국수어교육론 영역의 전문용어 추출 목록	27
<표 12> 농문화와 농사회 영역의 전문용어 추출 목록	29
<표 13> 한국수어학 영역의 전문용어 추출 목록	30
<표 14> 한국수어 실제1, 2 영역의 전문용어 추출 목록	31
<표 15> 한국수어교육론 영역의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사용 빈도	31
<표 16> 농문화와 농사회 영역의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사용 빈도	34
<표 17> 한국수어학 영역의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사용 빈도	36
<표 18> 한국수어 실제1, 2 영역의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사용 빈도	38
<표 19> 한국수어교육론 영역의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적절도	39
<표 20> 한국수어교육론 영역의 구성 방식별 전문용어	42

<표 21> 농문화와 농사회 영역의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적절도	44
<표 22> 농문화와 농사회 영역의 구성 방식별 전문용어	46
<표 23> 한국수어학 영역의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적절도	48
<표 24> 한국수어학 영역의 구성 방식별 전문용어	50
<표 25> 한국수어 실제1, 2 영역의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적절도	51
<표 26> 한국수어 실제1, 2 영역의 구성 방식별 전문용어	52
<표 27> 수어로 구성된 전문용어	52
<표 28> 지문자로 구성된 전문용어	53
<표 29> 수어와 지문자 혼합 구성의 전문용어	53
<표 30> 수어와 지문자 병기 구성의 전문용어	54
<표 31> ‘환유1’의 수어 표현	58
<표 32> ‘신뢰도3’의 수어 표현	59
<표 33> ‘코다’의 수어 표현	60
<표 34> ‘분류사’의 수어 표현	61
<표 35> ‘일치동사’의 수어 표현	62
<표 36> ‘생산적수어’의 수어 표현	63
<표 37> ‘마우당’의 수어 표현	64
<표 38> ‘동화주의’의 수어 표현	65
<표 39> ‘굴절’의 수어 표현	66
<표 40> ‘일반동사’의 수어 표현	67
<표 41> ‘어순2’의 수어 표현	68

그림 차례

<그림 1> '새로운 수화' 동영상 웹사이트	15
<그림 2> 「새로운 수화」 시리즈	15
<그림 3> 9개 지역 집단	16
<그림 4> 선호도 조사	18
<그림 5> 연구추진 절차	19



I.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추진방법

I.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공공부문 수어 소통 활성화의 일환으로 한국수어교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어 관련 교육 및 시험 등에서 사용되는 수어 전문용어의 사용 현황 파악 및 보급의 필요성에 의해 수행되었다.
-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공포되면서 한국수어교원자격제도도 함께 도입되었다. 한국수어교원자격제도는 한국수어 인구의 저변확대와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함으로써 교원 전반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한국수어교원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뉘는데, 1급은 한국수어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승급심사를 통과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며 2급은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한국수어 교육 전공으로 학위과정을 마치거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수어 교육 경력이 있거나 교육 경력이 없다면 한국수어교육능력시험에 합격하여 받을 수 있다.
- 한국수어교육능력시험은 한국수어 교육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2019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23년 제5회까지 매년 1회 시행됐으며 한국수어교원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첫 회 33명의 합격자를 시작으로 제4회까지 총 164명이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하였다. 시험 응시자 수는 2019년 71명에서 2020년 57명, 2021년 125명, 2022년 18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수어교원 배출을 위한 시험 제도로써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한국수어교원(2급) 392명을 배출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3).

〈표 1〉 한국수어교육능력시험을 통한 한국수어교원 배출 현황

시험 회차	시험 일자	응시자 수	합격자 수
제1회	2019. 11. 9	71명	33명
제2회	2020. 8. 15	57명	10명
제3회	2021. 8. 21	125명	56명
제4회	2022. 8. 20	186명	65명
제5회 ¹⁾	2023. 8. 12	-	-

출처: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23)

- 한국수어교육능력시험은 한국수어와 한국어 두 언어로 출제되고 있다. 시험 영역별로 한국수어 문항과 한국어 문항의 비율이 다르다. 농문화와 농사회, 한국수어학, 한국수어교육론 영역은 한국수어 40%, 한국어 60%로 한국수어 문항에 비해 한국어 문항의 비중이 높다. 강의계획서와 수업계획안은 수업 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한국어 100%로 출제된다. 수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한국수어 실제1과 한국수어 실제2, 그리고 수업 실행, 교육 현장의 수어 구사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수업 실연은 한국수어 100%로 출제된다.

〈표 2〉 한국수어교육능력시험 영역별 한국수어와 한국어 문항 비율

교시	시험 영역	한국수어	한국어
1	농문화와 농사회	40%	60%
2	한국수어학		
3	한국수어교육론		
4	한국수어 실제1	100%	
5	강의계획서		100%
	수업계획안		100%
6	한국수어 실제2	100%	
	수업 실연	100%	

출처: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23)

1) 제5회 한국수어교육능력시험(23년 8월 12일 시행)은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이 발표된 다음(23년 2월 6일)에 실시되어 시험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를 기재하지 않았다.

- 현행 시험 방식이 한국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수어 사용자인 농인에게 불리하여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국수어교육능력시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23: 11).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시험은 한국수어 중심으로 과목별 한국수어 문항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수어 문항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 연구는 필수 불가결하다.
- 본 연구의 필요성은 교육 현장에서도 요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농인 등의 수어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거점에 한국수어교육원 4개소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해 관련 대학, 대학원, 양성기관 등 전문 교육기관 14개소를 인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3〉 한국수어 교육기관 지정 현황

2017년	2020년	2022년
강원도농아인협회	전라남도농아인협회	충청남도농아인협회
경기도농아인협회		

출처: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23)

〈표 4〉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

번호	구분	지역	기관명
1	대학	경기	한경국립대학교 (한국수어교원과)
2		충남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수화통역교육전공)
3	대학원	서울	총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한국수어교원전공)
4		경기	강남대학교 대학원 (수화언어통번역학과 수화언어교육학전공)
		경기	안양대학교 글로벌대학원 (사회복지학 한국수어교육전공)
5		충남	나사렛대학교 미래재활복지대학원 (수어교원학전공)

6		광주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수화언어학과 수화언어교육전공)
7	양성 기관	서울	(사)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8		부산	(사)한국농아인협회 부산광역시협회
9		경기	(사)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경기도수어교육원)
10		강원	(사)한국농아인협회 강원도협회
11		충남	(사)한국농아인협회 충청남도협회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12		전남	(사)한국농아인협회 부산광역시협회 (전라남도수어교육원)
13		경북	(사)한국농아인협회 경상북도협회
14		광주	(사)한국농아인협회 광주광역시협회

출처: 한국수어교원(<https://sldict.korean.go.kr/kslteacher/main/main.do>)

- 20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받은 대학교 및 대학원(학위 과정)과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비학위 과정)에서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고 있으나 교육시에 다루게 되는 전문용어에 대한 공식적인 토론이나 합의 과정이 부재하였다. 전문용어의 수어 표현의 여부는 강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필수적이다. 전문용어에 대한 개념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수어 표현으로 통역할 경우 농인 교원은 교육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 2023년 5회까지 시행된 한국수어교육능력시험에서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 연구가 부재하였으며 전문용어를 풀어서 제공하는 방식은 시험 응시자들에게 정확한 의미로 전달되는지 검토되지 못했다.
- 한국수어교육능력시험(1회~5회)에서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 유형은 4개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다. 전문용어의 수어 표현을 설명으로만 제시하는 유형, 한글 지문자로 제시하는 유형, 설명과 한글 지문자를 함께 제시하는 유형, 한글 지문자와 영어 지문자 모두로 제시하는 유형이다.

〈표 5〉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의 유형

번호	전문용어	수어 표현 유형
1	문장종결법	설명
2	형태소	한글 지문자
3	마우딩	설명 + 한글 지문자
4	관형어	한글 지문자 + 설명
5	분류사	한글 지문자 + 영어 지문자

- 한국수어교육능력시험보다 앞서 시행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2006년 9월 24일~현재)에서도 전문 용어 표준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이수빈, 2015: 2). 각 시험 회차별로 특정 용어의 표기법이 상이하거나 지나치게 지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의미의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은 시험 응시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쉬우며 이중 학습의 부담을 안기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사용되는 용어가 일관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시험 문항의 타당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위 연구는 용어 사용에 있어 의미적·형식적 측면에서 일관성 있는 표기 방안을 제안하였다.
- 수어 교육 분야 전문용어의 수어 표현 연구를 통해 한국수어 교육 현장과 한국수어교육능력시험에서 한국수어교원과 학습자 간 그리고 출제자와 응시자 간 전문용어 소통에 있어서 정확성과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전문용어는 수어 교육 분야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에게 해당 개념의 습득과 소통의 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의 발굴과 정리 작업은 수어 교육 분야의 체계를 갖추고 학문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과제이다.
- 본 연구는 수어 교육 분야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의 수집부터 시작하여야 하고 수집된 수어 표현들은 농인에게 저항 없이 수용될 수 있어야 하며 교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연구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하였다.

첫째, 한국수어교육능력시험에서 사용된 전문용어의 수어 표현의 사용 현황을 분

석하여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한국수어교육원 및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 등에서 해당 전문용어에 대한 실제 쓰임을 조사하였다.

셋째, 위 분석 및 조사 과정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인에게 수용도가 높은 전문용어의 수어 표현의 적절성 기준을 제안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1) 전문용어 사전 구축

(1) 표제어 추출 자원

- 전문용어 사전 편찬에서 표제어 추출은 용어의 빈도수와 전문가 집단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와 경험(서태길 외 역, 2008: 218)에 의존해왔다. 빈도수 추출은 표제어 선정의 1단계 작업이 될 것이며 해당 학문의 기초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이수미, 2011). 즉 전문용어 사전 편찬에서 표제어를 추출하는 출처는 기초 입문서, 유사 사전의 표제어, 관련 학회지의 핵심어 등이다(신형욱 외, 2009; 이수미, 2011).
- 한국수어 전문용어 사전 구축(윤병천 외, 2017)에서는 농사회에서 활성화된 운동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농아인협회와 한국농아인체육연맹에 자문을 구하였고, 생활 체육 또는 올림픽 경기에서 활동 중인 농인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를 통해 농사회에서 전국적으로 활성화된 종목이 ‘볼링’과 ‘축구’임을 확인하였고 두 종목에서 전문용어를 수집하였다. 두 종목의 전문인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사전 조사에서 수집된 볼링 용어 357개, 축구 용어 333개 중에서 적절성 여부에 관한 자문을 거쳐 볼링 분야 339개, 축구 분야 301개 어휘를 최종 선정하였다. 즉 문헌 검토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전문용어 목록을 추출하였다.
- 한국수어의 전문용어 사전 구축 연구에서 수어 전문용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와 농사회를 통한 전문용어 선정이 필요하며 유도자료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한국수어 전문용어를 수집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윤병천 외, 2018). 전문용어에 해당하는 한국수어 표현이 부재할 때는 한국어 대응식의 조

어를 금하고, 한국수어 전문용어 사전에 수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문용어 사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고 하였다.

(2) 전문용어 수집 방법

-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을 이용하는 농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전문용어 수어 사전의 문제점으로 농사회에서 사용되지 않는 억지 조어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바 있다(이준우 외, 2016). 위 연구에서 시행한 인터뷰의 참여자들은 한국어에 맞춰서 수어로 바꾸는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위 사전을 정비하면서 농인에게 수용이 가능한 조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전문용어는 관련 분야 종사자를 제외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한국수어 전문용어 정보 접근 및 저변 확대에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농인이 사용하지 않는 전문용어 수어 표현은 사용자가 잘못 학습하게 되어 수어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정확한 한국수어 전문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인 중심의 전문 분야 선정과 농사회에서 실제 사용되는 용어 수집이 필요하다. 농사회를 기반으로 한 실생활 중심의 전문용어 수집과 분석, 수집 방법론을 마련하여 전문 분야에서 농인 간 또는 수어통역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대할 수 있다(윤병천 외, 2018: 18).

(3) 독일의 수어 전문용어 사전 편찬 사례

- 독일의 수어 전문용어 사전 편찬 과정은 한국수어 전문용어 연구에 방법론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어가 공식 언어로 승인되면서 농인의 직업 전문교육의 가능성과 기회가 확대되었다. 효율적인 직업교육과 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업 전문 영역이 수어로 표현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1994년부터 컴퓨터, 심리학, 목공, 가정학, 사회복지학, 의료, 원예 및 조경 분야 등에서 순차적으로 전문 수어 사전을 편찬해왔다(Institut für Deutsche Gebärdensprache und Kommunikation Gehörloser der Universität Hamburg: IDGS, <https://www.idgs.uni-hamburg.de/>). 수어 전문 사전은 독일 청각장애인협회, 함부르크시 가족·사회·보건·복지부 및 연방 노동사회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함부르크 대학의 독일 청각장애인 수어 및 의사소통 연구소(IDGS)에서 이루어졌다.
- 각 영역별 전문 수어 사전 개발은 각각 고유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크게

직업교육의 목적과 전문교육의 목적으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가장 먼저 개발된 컴퓨터 기술 분야의 전문 수어사전(C-LEX)은 청각장애인의 직업 훈련을 위해 개발된 반면 언어학 영역의 사전(LING-LEX)은 대학의 교과목에 대한 전문용어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직업교육 전문용어사전과 학문영역별 전문용어사전으로 개발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몇몇 영역별 개요를 특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언어학 용어 사전 : 대학 학문 분야를 위한 전문 수어 사전 중 첫 번째 사전이다. 청각장애 학생의 대학 진학 희망자 증가, 수어통역사 학위 과정 개설, 수어 언어학 학위 과정 신설 등 사회 수요에 따른 새로운 전문 수어 사전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되었다. 따라서 언어학 용어 사전(LING-LEX)은 언어학 초급과정의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고, 청각장애인과 수어통역사 간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고자 한다.
- ② 심리학 용어 사전 : 7개 심리학 분야의 900여 개 용어가 1,200개 이상의 수어로 수록되었으며, 그중 2/3 이상이 경험적으로 수집되었고, 약 1/3의 용어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어가 개발되었다. 주로 청각장애 학생과 수어통역사를 주 사용자로 설정하고 있지만 심리학 분야에서 수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심리학자, 의사, 교육자, 사회복지사 등)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사회복지 용어 사전 : 사전의 구조가 사용자의 두 가지 관심사를 반영하였다. 음성언어 전문용어로부터 사실 정보를 찾거나 수어 번역을 찾는 사용자는 이를 음성언어로 된 용어사전 항목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독일어 음성언어에서 시작하여 목표언어인 독일수어(DGS)로 맞춰진 사전의 주요 사용 방향과 같다.
- ④ 목공 용어 사전 : 약 900개의 기술 용어가 알파벳 순서로 나열되어 있으며 약 100여 개의 대체 명칭을 제외하고는 모두 간단한 언어 수준으로 설명되어 있다. 623개의 항목이 사진이나 그림으로 추가 설명되어 있어 이해를 돕고 있으며 링크 형식의 참조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주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용어는 13개 범주와 43개 하위 범주로 분류되어 있으며, 영어 번역도 제공하여 국제적 활용도를 높였다.
- ⑤ 가정학 용어 사전 : 696개의 전문용어가 알파벳 순서로 나열되어 있으며 대체명칭과 약어가 추가로 제공되어 있다. 각 항목은 전문 영역과 언어 영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전문 영역에서는 해당 전문용어에 대한 사실 정보를 제공하고, 언어 영역에서는 독일수어(DGS) 번역으로써 수어 또는 수어의 조합을 사진 형식으로 보여준다.

- ⑥ 의료 용어 사전 : 의사, 간호사, 노인 영양사, 의료 목욕 관리자, 마사지사, 물리 치료사, 의료 기술 보조사, 한의사와 같은 보건 분야에서 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전문용어를 선택할 때 청각장애인과 수어통역사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비의료 전문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청각장애인에게 1,000개 이상의 전문용어에 대한 번역을 제공하여 병원 진료나 의료적 설명, 예를 들어 수술 전, 병원 입원 중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⑦ 원예 및 조경 용어 사전 : 원예 분야에서 일하는 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원예 분야의 7개 주요 분야(관상식물재배, 초화류재배, 묘지조경, 종묘재배,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및 조경)를 중심으로 전문용어를 선정하였다. 원예 기본 지식, 다양한 재배 및 수확 방법, 마케팅, 식물학, 기후학, 산업 안전과 관련된 용어도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계 및 도구에 대한 용어도 포함되어 있다.
- 가장 최근에 개발된 원예 및 조경 전문 수어 사전의 개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독일 전문 수어 사전의 개발 과정을 한 단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 사전에 수록된 개념들은 교관(지도사)이나 실습생 그리고 청인 동료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향상할 수 있게 하며 경작과 재배 그리고 수확방법과 시장유통에 관한 개념들뿐만 아니라 식물학, 기후학, 작업안전에 관한 개념들 또한 포함하고 있다.
 - 사전의 용어 설명은 가장 중요하고 현실성 있는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독일어로 쓰여있는데 간단명료한 문장구조를 유지하며 불필요한 부문장들은 피하지만 객관적인 내용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며 필요에 따라 몇 개의 개념들은 단순화하였다. 자료는 수어 목록으로 정리되어있다.
 - 사전에는 654개의 전공용어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549개에 상세한 설명이 있고, 105개는 다른 영역의 전공용어를 참조하도록 간략하게만 설명되어 있다. 355개의 전공용어에 삽화 처리를 하였으며 190개의 동의어가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독자는 일반적인 원예와 농업에 관련된 백과사전과 교재를 찾으라는 안내도 있다.

- 원예 및 조경 전문수어 사전을 위해 독일 전역에서 원예와 조경 직업교육을 받았거나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농인 11명을 대상으로 약 4개월 동안 수어를 수집하였다.
- 언어제공자들의 언어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기초조사 후 진행된 수집 과정에서 그들의 수어 스타일 즉 입모양 사용, 비수지 사용, 수어의 자연스러움에 관해 평가과정을 거친 후 다양한 기준에 따라 수어를 기록하였다. 1개의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번역(수집) 과정에서 반복되는 동일한 수어와 후에 교정되거나 미흡하게 번역된 수어는 제외되었다. 또한 다른 언어제공자로부터 모방한 수어도 전사되지 않았다. 연구팀원들은 언어제공자들의 대답을 제안으로 평가할 것인지 수집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발생한 번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평가한 후 176개의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번역 874를 수집하였다.
- 그 외에도 Osnabrück의 농인 작업장에서 사용된 232개의 수어도 함께 기록하였는데 11명의 언어제공자가 답한 수어와 농인 작업장에서 수집된 수어를 가지고 선별작업을 통해 몇 개의 수어 번역이 일치하는지 또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 수어 번역은 ‘확실한 대답-주저주저하는 대답-불만족스러워하는 대답’ 별로 구별하였고 복합어 중에서 한 번 이상 나온 단어는 새로운 단어로 보지 않으며 여러 가지 중복들을 줄이기 위해 핵심 의미의 하위 의미로 구분하였다.
- 또한 수집된 수어들이 농인들이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이해할 수 있거나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사전에는 기호로 구별하였는데, 한 사람 이상이 제시한 수어 번역인지, 새롭게 조합된 복합어인지, 새로운 입모양+수어인지 또는 완전히 새로운 수어 번역인지를 표시하였다. 이 수어 번역들은 맥락 속에서 사용된 수어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전문용어 표준화

(1) 전문용어 표준화 기준

- 전문용어 표준화 기준(국립국어원, 2007: 29)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시한 기준(최형용, 2010)은 아래와 같다.

〈표 6〉 전문용어 표준화 기준

기준	내용
사회 언어학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집단에서 그 용어에 대한 요구가 있는가 -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가 - 용어가 해당 분야에 적절한가
심리 언어학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화자의 언어 습관에 합당한가 - 윤리적, 미학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가: 금기시되는 표현이나 비·속어, 발음상 듣기 거북한 용어는 피해야 한다. - 심리적 이질감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가(익숙하지 않은 외국어 표현이나 발음 표기, 너무 길거나 과감하게 축약된 용어 등) - 국가적 또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가
국어학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용어의 표준화는 국어 표준화의 모든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띄어쓰기 규칙 등) - 일반적인 단어 형성 규칙에 맞는가(조어법 기준: 합성어의 구성, 파생 방식 등) - 여러 사전류에서 검증된 용어인가(표준국어대사전 등)
용어학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에서 살펴본 용어의 특성, 용어의 일의성, 투명성, 일관성, 간결성을 갖추어야 한다. - 각 전문 분야 내에서만이 아니라 전문용어 전체의 조화와 통일을 이뤄야 한다.

출처: 국립국어원(2007: 29)

-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전문용어 작업의 원리와 방법론을 제시하는 규범집(ISO 704:2000)과 올바른 용어 형성의 기준으로서 일의성, 투명성, 일관성, 적합성, 경제성, 파생력, 언어적 정확성, 모국어 선호의 9가지를 제시하고 있다(최형용, 2010: 304-319).

〈표 7〉 전문용어 형성 기준

기준	내용
일의성	여러 가지 의미가 유추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하나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투명성	전문용어의 개념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일관성	새로운 전문용어가 기존의 전문용어와 개념적으로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
적합성	새로 전문용어를 만들 때는 언어 공동체 내에서 사용되는 의미 양상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이는 곧 의미 양상이 이미 언중에게 친근한 것일수록 좋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합성’은 ‘친숙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경제성	새로 전문용어를 만들 때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간략한 것이 좋다.
파생력	새로 전문용어를 만들 때 가급적 다른 전문용어를 형성하는데 활발히 이용될 수 있는 용어 형성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언어적 정확성	새로 전문용어를 만들 때 가급적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형성 방식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모국어 선호	외래 전문용어는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되도록 순우리말 또는 쉬운 한자어를 이용해 새로 만들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출처: 최형용(2010: 304-319)

2) 일본의 ‘새로운 수화’ 프로젝트 사례

- 사회복지법인 전국수화연수센터 수화언어연구소 ‘표준수화확정보급연구부’ 본 위원회는 후생노동성이 위탁한 프로젝트를 연 4회 개최한다.
- 연간 확정하는 단어는 300개 정도이며 농인과 수어통역사의 생활과 밀접한 단어를 선정한다. 주제 및 분야와 관계없이 급한 것을 먼저 선정한다. 일본농아인 협회에 차년도에 선정할 목록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 전국 청각장애인 및 수화통역사에게 표준수화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 ‘newsigns.jp’ 웹사이트에 동영상 배포
 - 수화언어연구 세미나 개최

- 「새로운 수화」 시리즈 출간
- 일본 청각장애신문 MIMI 게재

〈그림 1〉 ‘새로운 수화’ 동영상 웹사이트

출처: <https://www.newsigns.jp/>

〈그림 2〉 「새로운 수화」 시리즈



はじめに

「わたしたちの手話 新しい手話 2002」をここにお届けします

2015年5月から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もインフルエンザと同じ「5類感染症」になったことで、感染リスクを下げたい有識機関と協定し、様々な場面に活用が広がっているようにもなっています。手洗いや手拭き、手消毒薬や舌下薬やマスクも対応が確立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言語を介さない、直接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は外せないものです。生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機会を改めて実感できた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さて、*「Cuba フォード あいのうた」*がブラザニア賞を受賞して以来、国内でも手紙を送りドラマや映画を目にする機会がずいぶんと増えました。ただ、ドラマや映画の中では、きこえないえは当り前のように手話で話をしていいますが、現実には、きこえないえは手話に慣れることが困難なことが多くあります。

「私たちがよくお通ひです。あるくない人がお通ひだけではなく「手話」を言葉として身につけて、またその言葉という言葉をたくさんを学び、どこまで自由に発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たいと思います。2010年10月に手話言語法制定推進運動が始まってから13年、2006年の自治体で手話言語条例の制定され、「手話は言語」であるという認識が広がってきています。そして今、手話に関する法策が国会に上程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そして、本書が一人でも多くの人の手にとってもらい、平語を身に付け、平語での円滑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環境構築の一助となれば幸いです。皆さまの積極的なご活用をお願い申し上げます。

福原に本書は、社会福祉法人全国手話通訳センター手話言語研究所（理事長 宇根定吉及研究部）が学生・労働者より委託を受け、必要な手話の研究・調査を兼ねた新しい手話単語を提案した中から、社会生活の場面が多く使われる単語を抜粋し掲載しています。

ご協力をいただいた皆様には心からお礼申し上げます。

一般増田法人会日本ろうあ連盟
理事 石野 宣三氏

第 1 章

医療・福祉①



출처: 일반재단법인 전일본농아연맹 제공

- 수화연구소는 매년 수어의 세계에 농인이든 청인이든 새로운 참가자들이 많이 있으므로 매년 200 ~ 300개 정도의 ‘새로운 수화’를 발굴하고 보급하는 프로

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새로운 수화’라는 용어에 따른 오해가 있으나 ‘새로운 수화’를 결정하는 패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창작 수화’는 일본어 등의 구어체에서 만든 수화
- ‘보존 수화’는 옛날부터 사용되어 온 수화로 일본어 이름을 확인하는 수화
- 수화가 일본어에 적합한가가 아니라 수화에 붙여진 새로운 일본어 이름이 적절한가에 초점을 둔다(<https://www.newsigns.jp/hozon>).

○ ‘새로운 수화’의 확정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9개 지역 집단의 수어 표현 수집

- 9개 지역 집단은 60명의 수어 연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회원은 농사회 출신으로 전문가가 아니지만 본 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며 다수 농인과 소수 수어통역사를 포함한다.
- 1년에 3~4회 회의를 개최하고 1회당 50~80개 단어의 수어 표현을 의논한다. 9개 지역 집단마다 하나의 수어 표현을 중앙(일본농아협회, 연구위원, 수어통역사협회)에 제안한다.

<그림 3> 9개 지역 집단



출처: 일본수화연구소 제공

② 새로운 수화(안) 목록 작성

- 일본농아협회, 연구위원, 수어통역사협회(중앙)가 9개 지역 집단 연구회원이 회의를 거쳐 제안한 목록을 평가하여 새로운 수화(안)을 작성한다.

③ 새로운 수화(안) 동영상 촬영

- 선정한 단어를 촬영한 영상을 ‘새로운 수화’ 동영상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국내외 사람들이 선정된 단어들의 선호도를 투표한다. 투표는 9일간 진행하며 투표 참여자가 여러 번 응답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적으로 통제하여 1회만 할 수 있다. 참여자들 대부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고 선호하지 않는 단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이메일로 작성하여 보낼 수 있다. 선호하지 않는 단어는 웹사이트에 게시를 보류하고 다시 논의한다.
- 2023년에는 2025년 데프림픽 관련 용어 16개, 장애인권리협약 관련 용어 46개를 조사하고 있다(2024년 1월 10일 검색일 기준). 2023년 3차(80개 단어) 조사 기간은 2024년 1월 9일~18일까지이며 조회수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순서를 여러 차례 변경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동영상을 클릭하면 수어자의 상반신을 전면(수어자가 정면을 향함), 측면(수어자가 왼쪽을 향함, 수어자가 오른쪽을 향함)으로 촬영한 영상이 나온다. ‘의견있음’ 란을 클릭하면 새로운 수화 동영상 사이트 공개 댓글 모집이라는 창이 뜨며, 거기에 성명, 이메일주소, 코멘트 대상 수화 표현, 수화 표현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보낼 수 있다.

〈그림 4〉 선호도 조사

2023年度 第3回(80単語)の募集期間: 2024年1月9日~18日
※閲覧回数の偏りを防ぐため並び順の変更を数回実施いたします。

No	手話	手話動画	評価する・意見を書く
【標準手話研究部:本委員会確定手話】			
1.	ルーター ※創作手話		26 OK! 意見あり
2.	預かり保育 (あずかりまいく) ※創作手話		8 OK! 意見あり
3.	乳児院 (にゅうじいん) ※創作手話		12 OK! 意見あり
4.	知育 (ちいく) ※創作手話		20 OK! 意見あり
5.	食育 (しょいく) ※創作手話		21 OK! 意見あり

출처: <https://www.newsigns.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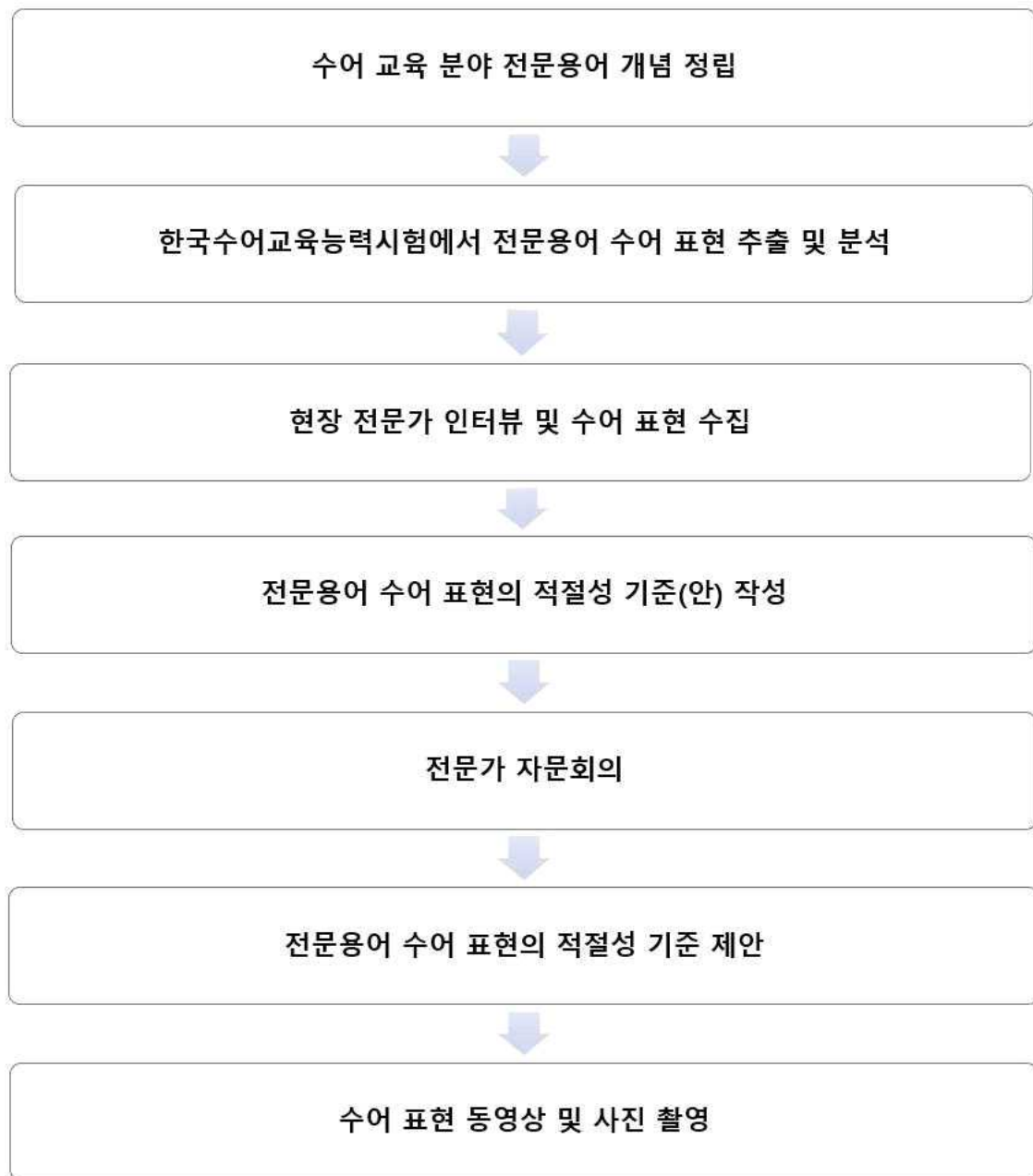
④ 새로운 수화 확정

- ‘새로운 수어’의 선정 규칙은 다음과 같다.
 - 규칙1: 표현이 간결하고 쉬워야 한다.
 - 규칙2: 표현을 봤을 때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 규칙4: 다른 수화와 헷갈리는 수화는 보류한다.
 - 규칙3: 일본수어와 일본어의 뜻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3. 연구추진방법

- 본 연구는 전문용어의 수어 표현의 실제 쓰임을 조사하고 향후 농인에게 수용도가 높은 표현이 제안될 수 있도록 수어 표현의 적절성 기준을 제안하는 것으로 아래의 절차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5〉 연구추진 절차



1) 수어 교육 분야 전문용어 개념 정립

- 전문용어란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반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제한되어 있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언어를 가리킨다(국립국어원, 2007).
- 전문용어의 범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전문용어와 일반어를 서로 상이한 집단으로 보는 ‘절대론’ 이고, 다른 하나는 관점에 따라 전문용어와 일반어를 구분하는 ‘상황론’ 혹은 ‘상대론’ 이다. 전자

는 전문용어 연구 초기에 등장한 입장이고 현재는 후자의 입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용어와 일반어를 절대적으로 대립된 집단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전문용어와 일반어의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특징을 연구함으로써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김성진·정동열, 2001: 145).

- 상대론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전문용어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 용어사전」(1996)에 등재된 ‘도서관’, ‘컴퓨터’ 등 전문용어는 상황에 따라 일반어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전문용어 쪽에 근접했던 ‘전자우편(electronic mail)’이라는 용어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전자메일, e-mail 등의 형태로 일반화·대중화되었다. ‘검색(retrieval)’도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에서 검색엔진이 보편화됨으로서 일반인에게 더 이상 낯설거나 어려운 용어가 아니다.

2) 한국수어교육능력시험에서 전문용어 수어 표현 추출 및 분석

-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수어 표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용어 40개 이상을 한국수어교육능력시험(1회~5회)의 한국수어교육론, 농문화와 농사회, 한국수어학, 한국수어 실제1, 한국수어 실제2 영역에서 추출하였다. 연구진들이 한국수어교육능력시험에서 추출한 전문용어를 교차 검토하여 47개의 전문용어와 그에 따른 74개의 수어 표현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위 전문용어 개념에 따라 전문용어 선정에서 아래 조건의 용어는 제외한다.
 - 인명, 단체명, 기관명 등 고유명사는 제외한다.
예) 스토키, 한국농아인협회 등
 - 농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제외한다.
예) 한국수화언어법, 통역사, 한국수어, 인공와우 등
 - 맥락에 따라 표현이 다를 수 있는 용어는 제외한다.
예) 상호작용, 피드백 등
- 시험에서 중복되는 전문용어를 확인하고 회차별로 같게 번역되었는지 혹은 다르게 번역되었는지 조사한다. 다르게 번역되었다면 번역 방식이 어떠한지 번역된 전체 표현 목록을 정리한다.

3) 현장 전문가 인터뷰

- 현장 전문가 인터뷰에서 사용할 47개 전문용어에 대한 74개 수어 표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 한국수어교육원 및 대학(원)에 시험 영역별 담당 농인 강사와 수어통역사 명단을 요청하여 현장 전문가 20명을 섭외하였다.
- 현장 전문가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 한국수어교육원 2급 자격증 소지
 - 한국수어교육원 및 대학(원) 강사 경력
 - 한국수어교육원 및 대학(원) 수어통역 경력
- 현장 전문가 인터뷰를 6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 현장 전문가 3~4인을 한 집단으로 구성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 수어 표현을 조사하였고 분석을 위해 인터뷰 전 과정을 캡코더로 기록하였다. 현장 전문가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인터뷰 집단에 맞춰 농인, 청인 연구자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47개 전문용어에 대한 74개 수어 표현을 동영상으로 제시하였고 현장에서의 수어 표현의 사용 여부 및 노출 경험, 적절도에 대한 의견을 설문지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사용 및 노출 경험
 - 교육 현장에서 사용한 적이 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 교육 현장에서 사용한 적이 없거나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가?
 -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적절도(3점 척도)
 - 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지 않다.
- 동영상으로 제시한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 외에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거나 보았던 수어 표현이 있는지, 영상 속 수어 표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표 8〉 현장 전문가 인터뷰 일정

번호	일정	사회자	현장 전문가
1차	2023. 11. 27.(월). 13:00~16:00	민은주	고○○, 명○○, 신○○, 이○○
2차	2023. 11. 29.(수). 13:00~16:00	조희경	송○○, 허○○, 현○○
3차	2023. 12. 01.(금). 13:00~16:00	조희경	김○○, 박○○, 이○○
4차	2023. 12. 04.(월). 14:00~18:00	민은주	김○○, 원○○, 유○○, 이○○
5차	2023. 12. 08. (금). 13:00~16:00	조희경	양○○, 이○○, 하○○
6차	2023. 12. 14.(목). 13:00~16:00	조희경	김○○, 김○○, 이○○

4)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적절성 기준(안) 작성

- 현장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인에게 수용도가 높은 전문용어 수어 표현이 제안될 수 있도록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의 적절성 기준(안)을 작성하였다.

5) 전문가 자문회의

- 현장 인터뷰에서 수집한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향후 농인에게 수용도가 높은 전문용어 수어 표현이 제안될 수 있도록 수어 표현의 적절성 기준(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전문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증 소지
 - 한국수어교육원 및 대학(원) 강사
 - 한국수어 관련 학자 등

- 자문회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 일시: 2023. 12. 15(금) 13-16시
 - 장소: 용산역 회의실1
 - 참석자: 연구진, 자문위원, 수어통역사
- 현장 전문가 인터뷰에서 도출한 적절도 결과에 근거하여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의 적절성 기준 6개를 마련하였고 그에 대한 자문의견을 구하였다.

〈표 9〉 자문위원 정보

번호	이름	소속	비고
1	김○○	한국수어교육원	청인
2	김○○	한국수어교원학과 대학원	농인
3	엄○○	한국수어교육원	청인

6) 결과 정리

- 한국수어교육능력시험 문제에서 전문용어의 수어 표현 분석, 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전문용어의 수어 표현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현장에서 수집한 전문용어의 수어 표현을 정리하고 향후 농인에게 수용도가 높은 전문용어 수어 표현이 제안될 수 있도록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의 적절성 기준을 도출하여 정리하였다.
- 수어 표현의 주석(gloss) 표기는 다음의 방법을 따른다.

〈표 10〉 주석 표기 방법

번호	항목	기호	예
1	수어 단어	[]	[동사]
2	비수지표지	{ }	{알겠다}
3	수어 단어의 순차적 배열	[][]	[장소][동사]
4	수어 단어의 동시적 배열	[][]	[1]/[추가하다]
5	지문자	[#]	[#형태소]
6	수어 단어의 반복	[(반복)]	[교체하다(반복)]

7	수어 단어를 여러 위치에서 산출		[a][b][c]	[평가a][평가b][평가c]
8	수동의 방향(수직, 수평, 전진)		[(수직)]	[맥락(수직)]
9	수어 단어의 유지		[(유지)]	[단어][단어(유지)][맥락 (수직)]
10	변이형	수형 차이	[1], [2]	[추가하다1], [추가하다2]
		수동 차이	[1], [2]	[총합1], [총합2]
11	마우딩		[‘ ’]	[선생 ‘선생님’]

7)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제작

-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의 사진과 동영상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인한 후 최종 편집하였다.

가나다순
장
가나다순

Ⅱ. 전문용어 수어 표현 의 사용 및 적절성 조 사

1. 전문용어 추출
2. 사용 빈도 조사 결과
3. 적절성 조사 결과

II.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사용 및 적절성 조사

1. 전문용어 추출

- 한국수어교육능력시험(1회~5회)에서 사용된 한국어 전문용어 중에서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수어 표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47개의 전문용어와 그에 따른 74개의 수어 표현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영역별로 한국수어교육론의 전문용어는 16개, 수어 표현은 27개이고 농문화와 농사회의 전문용어는 12개, 수어 표현은 19개이며 한국수어학은 전문용어 17개, 수어 표현 22개, 한국수어 실제1, 2의 전문용어는 2개 그에 따른 수어 표현은 6개이다.
- 하나의 전문용어이지만 출제 연도에 따라 수어 표현이 다수인 경우 번호로 구분하였다. (예: 교육과정1, 교육과정2)
- 시험 영역별로 추출한 전문용어의 수어 표현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11〉 한국수어교육론 영역의 전문용어 추출 목록

번호	전문용어	수어 표현	시험 회수_문항_선지
1	관용표현	[#관용][두 단어를 나란히 두다]	3회_9번
2	교육과정1	[교육][과정(전진)]	1회_2번
3	교육과정2	[교육][과정(수직)]	2회_2번
4	맥락의원리1	[수어][맥락(수직)][단어가다가오다] {알겠다는표정}[과악][다수를가르치다] [방법]	3회_5번_4
5	맥락의원리2	[맥락(수직)][맞추다(반복)][기본][법]	4회_10번_1
6	반복노출의원리1	[반복][교육][주입][방법]	3회_5번_2

7	반복노출의원리2	[반복][제시][기본][법]	4회_10번_2
8	배경지식통합의원리1	[학생][경험][지식][연결][교육][방법]	3회_5번_3
9	배경지식통합의원리2	[배경][지식][가져오다(반복)][모으다] [기본][법]	4회_10번_3
10	부정어1	[부정(반복)]	5회_6번
11	부정어2	[부정]	4회_6번
12	상세화의원리1	[자세하다][#상세화][기본][법]	4회_10번_4
13	상세화의원리2	[#상세화][종류][자세하다][방법]	3회_5번_1
14	생산적수어	[#생산적][수어]	1회_9번
15	수지한국어	[한국][글][수어][대응하다 ‘파파파’]	2회_9번_1
16	신뢰도1	[수어][실기][시험][교사][평가a][평가b] [평가c][격차크다][아니다][격차작다] [지시][#신뢰도]	3회_3번_1
17	신뢰도2	[평가][점수][맞다][틀리다][확실하다] [지시][#신뢰도]	5회_8번_1
18	신뢰도3	[#신뢰도][믿다][평가][정확][방법] [평가][기본][기준][항목][똑같다][꼭]	3회_3번_3
19	언어	[#언어]	2회_9번/10번_2 3회_3번/4번
20	의사소통중심	[커뮤니케이션][중심]	3회_1번
21	이중부정	[부정a][부정b][겹치다]	4회_6번_1
22	일반동사	[보통][동사]	4회_9번_보기
23	일치동사1	[#일치][움직임]	4회_9번_보기
24	일치동사2	[#일치동사]	1회_6번 3회_7번 5회_7번
25	타당도1	[평가][#타당도][일치][불일치]	3회_3번_4
26	타당도2	[점수][평가][일치][불일치][지시] [#타당도]	5회_8번_4
27	타당도3	[시험][만들다][목적][시험a][문제a] [내용a][일치a][불일치b][지시][#타당도]	3회_3번_2

〈표 12〉 농문화와 농사회 영역의 전문용어 추출 목록

번호	전문용어	수어 표현	시험 회수_ 문항_선지
1	농유머	[농][농담][장난]	4회_4번_1
2	데프후드	[#데프후드]	4회_1번_2
3	도상성1	[옳기다][수어]	5회_8번_2
4	동화주의	[다수에포함되다][다수와어울리다][흡수 하다(반복)][변화하다][중심][#동화주의]	4회_6번_1
5	수어문학1	[수어][시]	3회_2번
6	수어문학2	[수어][#문학]	4회_4번_1
7	언어적소수자	[#언어][언어][힘][다수][소수][소수지시][농][#언어][지시]	2회_6번
8	이중언어·이중 문화농교육1	[언어a][이중a][문화b][이중b][농][교육]	1회_6번
9	이중언어·이중 문화농교육2	[#언어][이중][가지다][문화][이중][가진 것을 나란히 둠][지시][농][교육]	2회_3번
10	자아존중감	[만족][정체성]	3회_7번_4
11	정체성1	[자존감][#정체성]	1회_8번_4
12	정체성2	[자존감]	2회_2번
13	정체성3	[#정체성]	1회_8번_3
14	제3의문화1	[농][문화a][청][문화b][양쪽에서가져오다] [새롭다][문화]	1회_2번
15	제3의문화2	[세번째1][문화]	2회_1번
16	청능주의1	[듣다][억압][지시][#청능주의]	2회_7번_3
17	청능주의2	[듣다][억압]	3회_5번
18	청능주의3	[듣다][중심][#청능주의]	4회_6번_3
19	코다	[부모][농][낳다][청][지시]	1회_8번

〈표 13〉 한국수어학 영역의 전문용어 추출 목록

번호	전문용어	수어 표현	시험 회수_문항_선지
1	공간동사	[장소a][장소b][장소c][동사]	4회_5번
2	굴절	[맞추다a][수어a][맞추다b][수어b]	3회_1번_1
3	다의어	[수어][뜻][1(수평)][하나에 여러 가지가 달림]	3회_5번
4	도상성2	[#도상성]	1회_8번 5회_3번
5	마우딩	[선생 ‘선생님’][지시][입] [선생 ‘선생님’][동시][#마우딩]	2회_20번
6	복합어	[#복합어]	5회_4번
7	분류사1	[#분류사]	5회_6번
8	분류사2	[#분류사][#CL]	4회_1번
9	어순1	[단어(유지)][세 단어를 나란히 놓음]	1회_2번
10	어순2	[단어(유지)][두 단어를 나란히 놓음]	1회_2번_2, 3
11	의존형태소	[#의존형태소]	1회_7번_4
12	자립형태소	[#자립형태소]	1회_7번_4
13	자의성	[#자의성]	5회_3번
14	최소대립쌍1	[수어a][수어b][#최소대립쌍]	1회_3번
15	최소대립쌍2	[#최소대립쌍]	2회_15번
16	파생어	[#파생어]	3회_2번 3회_6번
17	품사	[#품사]	2회_5번
18	합성어	[#합성어]	1회_7번_3
19	형태소	[#형태소]	3회_3번
20	화제화	[#화제화]	4회_4번
21	환유1	[#환유][뜻][무엇][어떤][물건][사람][특징] [독특함][선택하다]	2회_19번
22	환유2	[#환유]	4회_7번

〈표 14〉 한국수어 실제1, 2 영역의 전문용어 추출 목록

번호	전문용어	수어 표현	시험 회수_문항_선지
1	부정어3	[#부정어]	1회_2번
2	역할전환1	[양손을 펴서 이마와 뒤통수에서 각각 반대 방향으로 돌림]	2회_3번
3	역할전환2	[양손 2, 3지를 붙여 앞뒤로 번갈아 돌림]	4회_2번
4	오디즘1	[#오디즘][억압(미국수어)]	1회_18번
5	오디즘2	[억압(미국수어)]	1회_18번1,2,3,4
6	오디즘3	[듣다][억압(미국수어)][#오디즘]	3회_3번_보기

2. 사용 빈도 조사 결과

1) 한국수어교육론 영역

- 한국수어교육론 영역의 시험문제에서 추출한 전문용어는 16개이고 그에 따른 수어 표현은 총 27개였으며 전문용어에 따라 1개의 수어 표현이 있는 것과 2개 이상의 수어 표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는 한국수어교육론 영역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전문용어의 순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 15〉 한국수어교육론 영역의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사용 빈도

번호	전문용어	수어 표현	빈도
1	교육과정1	[교육][과정(전진)]	85%
2	교육과정2	[교육][과정(수직)]	85%
3	언어	[#언어]	85%
4	일치동사2	[#일치동사]	80%
5	생산적수어	[#생산적][수어]	80%
6	일치동사1	[#일치][움직임]	75%
7	의사소통중심	[커뮤니케이션][중심]	70%
8	수지한국어	[한국][글][수어][대응 ‘파파파’]	65%
9	신뢰도1	[수어][실기][시험][교사][평가a][평가b] [평가c][격차크다][아니다][격차작다] [지시][#신뢰도]	60%

10	관용표현	[#관용][두 단어를 나란히 두다]	60%
11	일반동사	[보통][동사]	60%
12	부정어1	[부정(반복)]	60%
13	배경지식통합의원리1	[학생][경험][지식][연결][교육][방법]	55%
14	부정어2	[부정]	55%
15	반복노출의원리1	[반복][교육][주입][방법]	50%
16	신뢰도2	[평가][점수][맞다][틀리다][확실하다] [지시][#신뢰도]	45%
17	맥락의원리1	[수어][맥락(수직)][단어가다가오다] {알겠다는표정}[과악][다수를가르치다] [방법]	45%
18	신뢰도3	[#신뢰도][믿다][평가][정확][방법] [평가][기본][기준][항목][똑같다][꼭]	40%
19	타당도2	[점수][평가][일치][불일치][지시] [#타당도]	35%
20	상세화의원리1	[자세하다][#상세화][기본][법]	35%
21	반복노출의원리2	[반복][제시][기본][법]	35%
22	이중부정	[부정a][부정b][겹치다]	35%
23	타당도1	[평가][#타당도][일치][불일치]	30%
24	타당도3	[시험][만들다][목적][시험a][문제a] [내용a][일치a][불일치b][지시][#타당도]	30%
25	맥락의원리2	[맥락(수직)][맞추다(반복)][기본][법]	30%
26	상세화의원리2	[#상세화][종류][자세하다][방법]	25%
27	배경지식통합의원리2	[배경][지식][가져오다(반복)][모으다] [기본][법]	20%

-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의 실제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교육과정1’, ‘교육과정2’, ‘언어’의 사용 빈도가 각각 85%로 가장 높게 나왔다. ‘교육과정1’과 ‘교육과정2’는 ‘교육과정’이라는 동일한 개념을 회차별 시험에서 각각 다른 수어로 표현한 경우이다. ‘교육과정1’은 일련의 교육의 진행과정이라는 의미로 표현한 것이고, ‘교육과정2’는 교육의 내용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표현으로 이해된다. 현장 전문가도 두 표현을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맥락에 따라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는 85%, ‘일치동사2’는 80%, ‘생산적수어’는 80%, ‘일치동사1’는 75%의 사용 빈도를 보였고 ‘일치동사2’를 제외한 나머지 개념은 모두 지문자로 표현되었다. 그 뒤를 이어 ‘의사소통중심’, ‘수지한국어’, ‘신뢰도

1’, ‘관용표현’, ‘일반동사’, ‘부정어1’, ‘배경지식통합의원리1’, ‘부정어2’가 70~55%의 사용 빈도 범위에 속하는 전문용어들이다.

- 50% 이하의 사용 빈도를 보인 전문용어는 순서대로 ‘반복노출의원리1’, ‘신뢰도2’, ‘맥락의원리1’, ‘신뢰도3’, ‘타당도2’, ‘상세화의원리1’, ‘반복노출의원리2’, ‘이중부정’, ‘타당도1’, ‘타당도3’, ‘맥락의원리2’, ‘상세화의원리2’, ‘배경지식통합의원리2’이다. 이들 전문용어의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 수어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수어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는 전문용어의 개념적 난해함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전문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수어 표현은 불명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단일 어휘로 표현할 수어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게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한국수어교육론 영역은 타 영역에 비하여 인지도가 낮았는데 이는 한국수어교육원 양성과정에서 타 영역에 비해 전문용어의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개념의 난해함에 따른 문제점 외에도 이 영역 전문용어의 특성을 보면 ‘배경지식통합의원리’처럼 다중 복합어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수어 표현의 번역 측면에서 ‘신뢰도’나 ‘타당도’처럼 개념을 어휘가 아닌 설명식으로 표현한 용어가 많았던 것도 사용 빈도가 낮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농문화와 농사회 영역

- 농문화와 농사회 영역의 시험문제에서 추출한 전문용어는 12개이고 그에 따른 수어 표현은 19개였으며 하나의 전문용어에 1개의 수어 표현에서부터 3개의 수어 표현이 있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16〉 농문화와 농사회 영역의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사용 빈도

번호	전문용어	수어 표현	빈도
1	정체성1	[자존감][#정체성]	100%
2	수어문학2	[수어][#문학]	100%
3	농유머	[농][농담][장난]	100%
4	정체성2	[자존감]	95%
5	정체성3	[#정체성]	95%
6	수어문학1	[수어][시]	95%
7	데프후드	[#데프후드]	95%
8	청능주의3	[듣다][중심][#청능주의]	90%
9	도상성1	[옳기다][수어]	90%
10	청능주의1	[듣다][억압][지시][#청능주의]	85%
11	청능주의2	[듣다][억압]	85%
12	코다	[부모][농][낳다][청][지시]	80%
13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1	[언어a][이중a][문화b][이중b][농][교육]	75%
14	언어적소수자	[#언어][언어][힘][다수][소수][소수지시 [농][#언어][지시]	55%
15	제3의문화1	[농][문화a][청][문화b][양쪽에서가져오 다][새롭다][문화]	50%
16	동화주의	[다수에포함되다][다수와어울리다][흡 수하다(반복)][변화하다][중심] [#동화주의]	50%
17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2	[#언어][이중][가지다][문화][이중] [가진 것을 나란히 둬][지시][농][교육]	45%
18	자아존중감	[만족][자존감]	40%
19	제3의문화2	[세번째1][문화]	25%

○ 농문화와 농사회 영역의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의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19개의 수어 표현 중 13개의 용어가 75% 이상으로 나옴으로써 이 영역에서 높은 빈도로 전문용어 수어 표현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영역의 전문용어의 수어 표현에는 동일개념에 대한 다양한 수어 표현이 서로 다른 사용 빈도를 보이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정체성’과 ‘청능주의’는 각각 3개의 수어 표현이 있었고 ‘수어문학’, ‘이중언어·이중문

화농교육’, ‘제3의문화’는 각각 2개씩의 수어 표현이 있었다. 동일개념에 대한 수어 표현이 다양한 이유로는 맥락에 따라 동일개념에 대한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외에도 회차별 수어문제 출제 과정에서 개념 이해도와 번역 역량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문용어 수어 표현에 대한 어휘집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가장 근원적인 원인일 수 있다.

- ‘정체성’의 경우 지문자료만 표현된 ‘정체성3’과 [자존감]으로 표현된 ‘정체성2’보다, [자존감](수어) + [#정체성](지문자)’으로 병기된 ‘정체성1’의 사용 빈도가 100%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어와 지문자 병기 표현이 개념의 명확성을 더 높여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수어와 지문자 병기 표현의 사용 빈도가 더 높게 나오는 현상은 ‘수어문학2’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수어문학1’은 수어로만 [수어][시(詩)]로 표현하였으나 ‘수어문학2’는 이후 출제 과정에서 [수어] + [#문학](지문자)’으로 표현함으로써 의미 전달의 정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고 사용 빈도도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청능주의3’이 ‘청능주의1, 2’보다 사용 빈도가 높게 나온 것도 동일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동화주의’ (50%), ‘이중언어·이중문화농교육2’ (45%)의 경우 개념의 난해함과 수어 표현이 설명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낮은 사용 빈도의 원인으로 추측된다. ‘동화주의’의 경우 [다수에포함되다]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현장 전문가 인터뷰에서 나타났으며 지문자 포함 5개의 음절²⁾로 이루어진 설명식 표현이었다. ‘이중언어·이중문화농교육2’ 역시 8개 음절로 이루어진 설명식 표현이며 이 표현에 포함된 [가진 것을 나란히 둬]은 불필요한 표현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외에도 ‘자아존중감’은 수어 [자존감]과 구별 없이 같이 사용되고 있으며 ‘정체성2’의 수어 표현 속에 이미 [자존감]이 들어있다. 시험에 출제된 용어 이기에 이 표현을 알고는 있으나 실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빈도가 낮게 나온 ‘제3의문화2’의 경우 개념에 대한 낮은 이해로 인해 사용 빈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인 문화와 청인 문화가 결합 되어 새롭게 창조된 문화’로 이해되기보다는 단순히 순서상 ‘세 번째’ 문화로만 이

2) 음성언어에서 음절은 자음과 모음이 어울려 만들어진 단위로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이다. 수어에서 수어소가 어울려 한 덩어리로 산출할 수 있는 단위라는 의미에서 음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해되기에 그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농문화와 농사회 영역은 양성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공인 수어통역사시험을 준비하거나 여타 수어 또는 농인 관련 교육 현장에서 자주 다뤄지므로 전문용어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고 인지도 및 사용도도 높았다.

3) 한국수어학 영역

- 한국수어학 영역의 시험문제에서 추출한 전문용어는 17개, 수어 표현은 22개였으며 하나의 전문용어에 1개의 수어 표현이 있는 것과 2개 이상의 수어 표현이 있는 것으로 다양하였다.

〈표 17〉 한국수어학 영역의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사용 빈도

번호	전문용어	수어 표현	빈도
1	합성어	[#합성어]	100%
2	의존형태소	[#의존형태소]	100%
3	분류사1	[#분류사]	100%
4	최소대립쌍1	[수어a][수어b][#최소대립쌍]	95%
5	최소대립쌍2	[#최소대립쌍]	95%
6	환유2	[#환유]	95%
7	형태소	[#형태소]	95%
8	분류사2	[#분류사][#CL]	95%
9	공간동사	[장소a][장소b][장소c][동사]	95%
10	자의성	[#자의성]	95%
11	자립형태소	[#자립형태소]	90%
12	파생어	[#파생어]	90%
13	화제화	[#화제화]	90%
14	복합어	[#복합어]	90%
15	품사	[#품사]	90%
16	도상성2	[#도상성]	90%
17	마우딩	[선생 ‘선생님’][지시][입][선생 ‘선생님’][동시][#마우딩]	85%

18	다의어	[수어][뜻][1(수평)][하나에 여러 가지가 달림]	85%
19	환유1	[#환유][뜻][무엇][어떤][물건][사람] [특징][독특함][선택하다]	80%
20	어순1	[단어(유지)][세 단어를 나란히 놓음]	65%
21	어순2	[단어(유지)][두 단어를 나란히 놓음]	60%
22	굴절	[맞추다a][수어a][맞추다b][수어b]	25%

- 한국수어학 영역도 농문화와 농사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사용 빈도 결과를 보이는데 22개 중 21개의 표현에서 60%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이 영역 역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뿐만 아니라 수어통역사 보수교육을 비롯하여, 여타 많은 교육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기에 용어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상위 90%를 차지한 16개의 표현 중 ‘공간동사’를 제외한 모든 용어는 지문자를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지문자로만 표현되었다. 한국수어학 영역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전문용어들이 지문자로 표현된 것은 시험에 출제된 전문용어인 만큼 번역 과정에서 의미의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오역이 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용어들이 한국어로 2음절 내지 3음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문자 표현에 큰 부담이 없는 것도 사용 빈도가 높은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수어학 영역에서 비교적 낮은 사용 빈도를 보인 ‘어순1’ (65%)과 ‘어순2’ (60%)는 모두 단순히 단어를 나열하는 행위 그 자체로 이해되며 규칙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였으며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이나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에게 개념을 명확하게 전달하기에는 부족한 표현이라고 하였다. 이 두 수어 표현은 변이형으로 볼 수 있다.
-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전문용어 ‘굴절’의 수어 표현은 ‘코드 스위칭’ 또는 ‘일치동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으며 이는 수어 표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써 사용 빈도가 가장 낮게 나왔다.

4) 한국수어 실제1, 2 영역

- 한국수어 실제1, 2 영역의 시험문제에서 추출한 전문용어는 2개³⁾, 수어 표현은 6개였으며 하나의 전문용어에 1개의 수어 표현이 있는 것과 2~3개의 수어 표현이 있는 것으로 다양하였다.

〈표 18〉 한국수어 실제1, 2 영역의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사용 빈도

번호	전문용어	수어 표현	빈도
1	역할전환1	[양손을 펴서 이마와 뒤통수에서 각각 반대 방향으로 돌림]	95%
2	오디즘1	[#오디즘][억압(미국수어)]	90%
3	오디즘2	[억압(미국수어)]	90%
4	오디즘3	[듣다][억압(미국수어)][#오디즘]	90%
5	역할전환2	[양손 2, 3지를 붙여 앞뒤로 번갈아 돌림]	90%
6	부정어3	[#부정어]	70%

- 이 영역에서 추출된 6개의 수어 표현은 모두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으며 ‘역할전환1’과 ‘역할전환2’는 95%와 90%의 사용 빈도를, ‘오디즘1, 2, 3’은 90%를, ‘부정어3’은 70%의 사용 빈도를 보였다. ‘역할전환1’은 화자가 무대에서 마스크를 바꿔 쓰면서 다른 사람 혹은 이야기 속 캐릭터의 역할을 번갈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역할전환2’는 가상의 인물이 번갈아 가면서 무대에 나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미 농인 관련 교육 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표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오디즘’은 3개의 수어 표현으로 출제되었는데 사용 빈도는 모두 높았다. 수어 표현을 보면 ‘오디즘1, 2’에는 미국수어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오디즘1, 3’에는 지문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개념인 만큼 미국수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혹 미국수어를 모를 수 있기에 ‘오디즘1’과 같이 지문자를 병기한 것으로 보인다.

3) [부정어3]은 한국수어교육론 영역에서 추출된 [부정어1]과 [부정어2]와 같은 개념이므로 개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 적절성 조사 결과

1) 한국수어교육론 영역

〈표 19〉 한국수어교육론 영역의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적절도

번호	전문용어	수어 표현	적절도
1	교육과정2	[교육][과정(수직)]	97.4%
2	맥락의원리1	[수어][맥락(수직)][단어가다가오다] {알겠다}[파악][다수를가르치다][방법]	82.5%
3	배경지식통합의원리1	[학생][경험][지식][연결][교육][방법]	80%
4	언어	[#언어]	75%
5	교육과정1	[교육][과정(전진)]	71.1%
6	일치동사2	[#일치동사]	67.5%
7	신뢰도1	[수어][실기][시험][교사][평가a][평가b] [평가c][격차크다][아니다][격차작다] [지시][#신뢰도]	67.5%
8	수지한국어	[한국][글][수어][대응하다1 ‘파파파’]	65%
9	반복노출의원리1	[반복][교육][주입][방법]	57.5%
10	신뢰도3	[#신뢰도][믿다][평가][정확][방법][평가] [기본][기준][등급][똑같다][꼭]	55%
11	부정어1	[부정(반복)]	55%
12	타당도3	[시험a][만들다a][목적a][시험b][문제b] [내용b][일치][불일치][지시][#타당도]	52.7%
13	일치동사1	[#일치][활동]	50%
14	생산적수어	[#생산적][수어]	50%
15	상세화의원리1	[자세하다][#상세화][기본][법]	50%
16	의사소통중심	[커뮤니케이션][중심]	47.5%
17	일반동사	[보통][동사]	47.4%
18	부정어2	[부정]	47.4%
19	상세화의원리2	[#상세화][종류][자세하다][방법]	44.8%
20	반복노출의원리2	[반복][제시][기본][법]	37.5%
21	관용표현	[#관용][두 단어를 나란히 두다]	37.5%
22	타당도2	[점수][평가][일치][불일치][지시] [#타당도]	36.9%
23	맥락의원리2	[맥락(수직)][맞추다(반복)][기본][법]	34.3%
24	이중부정	[부정a][부정b][겹치다]	34.3%

25	타당도1	[평가][#타당도][일치][불일치]	32.5%
26	배경지식통합의원리2	[배경][지식][가져오다(반복)][모으다] [기본][법]	30%
27	신뢰도2	[평가][점수][맞다][틀리다][확실하다] [지시][#신뢰도]	29%

(1) 다중 표현

- 한국수어교육론 영역의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 27개 중 15개만이 50% 이상의 적절도를 보였으며 이는 네 영역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사용 빈도 조사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및 기타 교육 현장에서 전문용어의 노출 빈도가 낮은 것이 적절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적절성 향상을 위해서는 수어 표현 연구가 필요한 영역인 것으로 판단된다.
- 한 개의 전문용어가 다수의 수어 표현으로 출제되었던 경우 중 ‘교육과정2’가 ‘교육과정1’보다 더 적절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교육과정2’의 경우 시각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표현이어서 학습의 내용뿐만 아니라 순서까지 의미 속에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고 ‘교육과정1’은 교육의 전반적인 과정 또는 절차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현장 인터뷰 조사 과정에서 ‘맥락의원리1’과 ‘맥락의원리2’ 모두 수어 표현만으로는 의미 파악이 어렵다고 하여 한국어 ‘맥락’을 공개하였다. 한국어 전문용어를 제시 후 ‘맥락의원리1’이 82.5%로 ‘맥락의원리2’의 34.3%보다 더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맥락의원리1’의 [단어][단어다가오다]가 ‘맥락의원리2’의 [맞추다(반복)]보다 의미를 더 확실하게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다중 표현으로 출제된 전문용어 중 시기적으로 먼저 출제된 전문용어가 후에 출제된 전문용어들보다 높은 적절도를 보였다. 기존의 번역된 표현보다 의미 전달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표현을 제시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적절도 평가에서는 더 낮게 나왔다. 출제자의 의도와는 달리 현장 전문가들은 핵심 개념이 함축적으로 잘 포함된 수어 표현을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반복노출의원리1’의 수어 표현에 있는 [반복][교육]은 ‘반복노출의원리2’의 [반복][제시]보다 그 뜻을 훨씬 명료하게 제시하며, 마찬가지로 ‘배

경지식통합의원리1'의 [학생][경험]...[연결]이 '배경지식통합의원리2'의 [배경][지식]...[모으다]보다 전달력이 훨씬 높다고 평가함으로써 핵심어 표현 방식이 적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용어의 어휘 그대로 일대일 대응 번역도 필요하겠지만 핵심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번역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지문자와 수어를 혼합하여 표현한 '일치동사1'의 적절도는 50%, 지문자만으로 표현한 '일치동사2'는 67.5%의 적절도를 보였다. 수어와 지문자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의미 파악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어로만 표현하든지 지문자로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하였다. 일반적인 대화나 강의와는 달리 한국 수어교원 양성과정과 시험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전문 분야의 용어인 만큼 지문자를 사용하여 의미를 명확히 표현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새로운 수어 표현 4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 '상세화의원리' 역시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먼저 '상세화의원리1'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수어와 지문자를 혼합한 형태의 표현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자세하다] [#상세화], 즉 수어와 지문자 병기 형태를 띠으로써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였다. '원리'는 [기본][법]으로 표현하였는데 다수의 현장 전문가들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였으나 자문위원들은 '원리'와 '원칙'의 수어 표현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원리'는 바탕이 되는 이치로써 반드시 따라야 하는 당위성이 없으나 '원칙'은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으로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당위성을 포함한다. '상세화의원리2'의 경우에는 지문자가 먼저 제시되고 나서 그 뜻을 표현하는 수어 [종류][자세하다][방법]으로 이어지는데 전문용어로서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었다. 대신에 [연결][각각][가르치다]의 수어 표현을 제안하며 이것이 더 직관적인 표현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생산적수어'는 [#생산적]이라는 지문자 표현의 의미가 모호하여 현장에서는 직역인 [만들다]로 표현하거나 도상적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생산적수어'는 가장 많은 수어 표현 제안이 있었던 개념 중 하나인데 이는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어 표현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뜻하고, 표현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은 개념 이해의 확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일 수 있다.
- 신뢰도와 타당도는 가장 많은 수어 표현을 가진 개념으로써 그만큼 수어 표현

이 어려운 전문용어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 두 용어는 각각 3개의 다른 수어 표현으로 출제되었는데 그중 ‘신뢰도1’이 67.5%, ‘신뢰도3’이 55%, ‘타당도3’이 52.7%로 비교적 높은 적절도를 보인 반면 ‘타당도2’는 36.9%, ‘타당도1’은 32.5%, ‘신뢰도2’ 29%로 낮은 적절도를 보였다. 특히 ‘신뢰도2’는 한국수어교육론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적절성 점수를 보였다. 현장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신뢰도, 타당도와 같은 어려운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두 척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정도]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2) 구성 방식

-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의 적절도와 수어 표현의 구성 방식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구성 방식별로 분석하였다.
- 수어 표현의 구성 방식을 살펴보면 수어로만 구성된 전문용어는 14개로 가장 많았고 지문자로만 구성된 것은 2개, 수어와 지문자 혼합이 5개, 수어와 지문자를 병기한 것이 6개였다.
- 구성 방식별로 분류한 전문용어의 수어 표현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20〉 한국수어교육론 영역의 구성 방식별 전문용어

구성 방식	전문용어
① 수어로 구성	교육과정1, 교육과정2, 맥락의원리1, 맥락의원리2, 반복노출의원리1, 반복노출의원리2, 배경지식통합의원리1, 배경지식통합의원리2, 부정어1, 부정어2, 수지한국어, 의사소통중심, 이중부정, 일반동사
② 지문자로 구성	언어, 일치동사2
③ 수어와 지문자 혼합 구성	관용표현, 상세화의원리1, 상세화의원리2, 생산적수어, 일치동사1
④ 수어와 지문자 병기 구성	신뢰도1, 신뢰도2, 신뢰도3, 타당도1, 타당도2, 타당도3

- 수어로만 구성된 14개의 전문용어들 중 다중 표현을 제외한 단일 표현을 갖는 용어는 ‘수지한국어’, ‘의사소통중심’, ‘일반동사’, ‘이중부정’ 이다.
- ‘수지한국어’ (65%)의 수어 표현 [한국][글][수어][대응하다1 ‘파파파’]에서 [한국][글]은 불필요한 표현이므로 빼는 것이 더 명료한 표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미국수어 COMMUNICATION을 차용한 ‘의사소통중심’ (47.5%)은 [커뮤니케이션]을 [대화]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문용어으로써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외래수어 사용도 무방하다는 평가이다. ‘일반동사’ (47.4%)의 수어 표현 [보통][동사]는 ‘일반적인 움직임’ 또는 ‘보통의 움직임’ 으로 잘못 이해될 수도 있어 [기본][동사]라는 수어 표현을 제안하였다. 수어에는 존재하지 않은 어법인 ‘이중부정’ (34.5%) 역시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명확한 표현이 제시되기를 기대했으나 일관된 답을 얻을 수 없었다.
- 출제 문항에서 ‘언어’ 는 지문자로 표현되었는데 현장 전문가들은 지문자 표현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보았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지문자를 사용하거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시험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지문자를 선호하였고, ‘언어’ 의 수어 표현에 대하여는 말, 문자, 제스처를 포함한 개념이므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지문자만으로 표현한 ‘일치동사2’ 는 67.5%로 수어와 지문자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일치동사1’ 의 50%의 적절도 보다 높았는데 이는 수어와 지문자의 혼합 구성이 정확한 의미 파악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혼합 구성보다는 수어로만 표현하든지 지문자로만 표현하는게 적절하다고 하였다. 일반적인 대화나 강의의 내용과는 달리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과 시험에서는 전문 분야인 만큼 지문자를 사용하여 혼란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새로운 수어 표현 4개를 제안하였다.
- 수어와 지문자가 혼합된 형태의 ‘관용표현’ (37.5%)도 ‘일치동사1’ 처럼 지문자와 수어의 결합보다는 지문자만으로 표현할 것을 건의하였고 사용 빈도 조사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단어를 나란히 두다]는 ‘합성어’ 로 오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의미론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하였다.
- 수어와 지문자를 병기한 구성 방식인 ‘신뢰도’ 와 ‘타당도’ 는 ‘신뢰도

1' (67.5%), '신뢰도3' (55%), '타당도3' (52.7%)을 제외하면 40% 이하의 낮은 적절도를 보였다. 지문자를 병기하여 수어 표현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적절도가 낮은 결과를 보임으로 다른 영역의 양상과 차이를 보였다.

- 한국수어교육론 영역의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적절도와 구성 방식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을 때 수어만으로 구성된 표현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으나 개념이 어려워 정확한 수어 표현이 어려울 때 지문자만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수어와 지문자를 병기함으로써 이해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지문자로만 표현된 전문용어는 모두 적절도 50% 이상의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표준화된 수어 표현이 없을 때 차선으로 지문자를 선택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농문화와 농사회 영역

〈표 21〉 농문화와 농사회 영역의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적절도

번호	전문용어	수어 표현	적절도
1	농유머	[농][농담][장난]	100.0%
2	정체성1	[자존감][#정체성]	70.0%
3	제3의문화1	[농+문화][청+문화][양쪽에서가져오다] [새롭다][문화](중앙을 응시)	67.5%
4	정체성2	[자존감]	67.5%
5	청능주의2	[듣다][억압]	65.0%
6	수어문학1	[수어][시]	65.0%
7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2	[#언어][이중1][가지다][문화][이중1] [가진 것을 나란히 두다][농][교육]	63.2%
8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1	[언어][이중1][문화][이중1][농][교육]	60.0%
9	청능주의1	[듣다][억압][지시][#청능주의]	58.4%
10	청능주의3	[듣다][중심][#청능주의]	57.9%
11	데프후드	[#데프후드]	55.0%
12	도상성1	[옮기다][수어]	55.0%
13	수어문학2	[수어][#문학]	47.5%

14	동화주의	[다수에포함되다][다수와어울리다] [흡수하다(반복)][변화하다][중심] [#동화주의]	47.3%
15	코다	[부모][농][낳다][청][지시]	45.0%
16	정체성3	[#정체성]	42.5%
17	자아존중감	[만족][정체성]	40.0%
18	언어적소수자	[#언어][언어][힘][다수][소수][소수지시] [농][#언어][지시]	29.0%
19	제3의문화2	[세번째1][문화]	25.0%

(1) 다중 표현

- 농문화와 농사회 영역의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적절도는 19개 중 12개가 50% 이상의 높은 결과치를 보였다. 한국수어교육론 영역과 마찬가지로 다중 표현이 많았는데 다중 표현으로 출제된 전문용어는 5개이고 그에 따른 수어 표현은 12개로 조사되었다. ‘도상성1’은 한국수어학 영역의 ‘도상성2’와 함께 분석하겠다.
- 높은 적절도를 보인 다중 표현 전문용어들은 높은 순서대로 ‘정체성1’ (70%), ‘제3의문화1’ (67.5%), ‘정체성2’ (67.5%), ‘청능주의2’ (65%), ‘수어문학1’ (65%), ‘이중언어·이중문화농교육2’ (63.2%), ‘이중언어·이중문화농교육1’ (60%), ‘청능주의1’ (58.4%), ‘청능주의3’ (57.9%), ‘수어문학2’ (47.5%), ‘정체성3’ (42.5%), ‘제3의문화2’ (25%)이다.
- ‘정체성’의 수어 표현인 [자존감]은 ‘자존심’ 또는 ‘자존감’과 혼용되고 있어 현장 전문가들은 ‘정체성1’과 같이 수어와 지문자를 병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고 한가지 구성 방식만 선택한다면 수어로만 구성된 ‘정체성2’를 지문자로만 구성된 ‘정체성3’보다 더 적절하다고 하였다.
- 2개의 수어 표현이 출제된 ‘제3의문화’는 2개의 수어 표현의 적절도의 차이가 매우 컸다. ‘제3의문화1’은 뜻풀이식으로 설명하듯 표현하였고 ‘제3의문화2’는 어휘 형태로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현장 전문가들은 전문용어의 외형에는 어휘 형태인 ‘제3의문화2’가 더 적절한 듯 하나 전문용어의 의미를 드러

내지 못하는 수어 표현이므로 지문자 [#제]을 추가하여 [#제][세번째][문화]로 표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청능주의1, 2’의 수어 표현 [듣다][억압]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었는데 표현이 모호한 면이 있어 농인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의견과 청인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농인들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수어문학의 대표성을 지니는 ‘수어시’를 사용한 ‘수어문학1’ (65%)이 ‘수어문학2’ (47.5%)보다 상당히 큰 차이로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사용 빈도 면에서는 ‘수어문학2’가 ‘수어문학1’보다 근소한 차이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교육 현장에서 전문용어 전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함인 것으로 생각된다.
- ‘이중언어·이중문화농교육2’ (63.2%)와 ‘이중언어·이중문화농교육1’ (60%)의 적절도 결과 차이는 근소하다. ‘이중언어·이중문화농교육1’은 직역 표현인 반면 ‘이중언어·이중문화농교육2’는 [가진 것을 나란히 두다]를 넣어 언어와 문화 모두가 해당됨을 강조한 표현이다. 사용 빈도 조사에서는 ‘이중언어·이중문화농교육1’이 75%, ‘이중언어·이중문화농교육2’가 45%로 적절도 조사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2) 구성 방식

〈표 22〉 농문화와 농사회 영역의 구성 방식별 전문용어

구성 방식	전문용어
① 수어로 구성	농유머, 도상성1, 수어문학1, 이중언어·이중문화농교육1, 정체성2, 제3의문화1, 제3의문화2, 청능주의2, 코다, 자아존중감
② 지문자로 구성	데프후드, 정체성3
③ 수어와 지문자 혼합 구성	수어문학2, 언어적소수자, 이중언어·이중문화농교육2
④ 수어와 지문자 병기 구성	동화주의, 정체성1, 청능주의1, 청능주의3

- 농문화와 농사회 영역의 전문용어 수어 표현 19개의 구성 방식을 살펴보면 수어로만 구성된 수어 표현이 가장 많은 10개이다. 이중 ‘농유머’는 100%의 적절도 결과를 보이며 사용 빈도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코다(Children of the Deaf Adult: CODA)’는 영어 지문자 C를 이용한 수어가 이미 농인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지만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비표준 용어의 경우에는 그 활용과 관계없이 시험에 출제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그 뜻을 풀이한 설명식 표현이 시험에 출제되었다. 설명식 수어 표현으로 출제된 ‘코다’의 적절도의 결과는 45%로 매우 낮았다. ‘자아존중감’도 매우 낮은 40%의 적절성을 보였는데 사용 빈도 또한 40%로 낮아 명확한 수어 표현 개발이 시급해 보인다.
- 지문자만으로 구성된 ‘데프후드’는 55%의 적절도를 보이며 95%의 사용 빈도와는 큰 차이를 나타냈는데 마땅한 수어 표현이 아직 없어 지문자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 전문가들은 미국수어 [데프][후드]를 비롯해 6개의 수어 표현을 제안하였다.
- 앞서 다중 표현에서 언급한 ‘수어문학2’, ‘이중언어·이중문화농교육2’ 외에 수어와 지문자가 혼합 구성된 전문용어는 ‘언어적소수자’이다. ‘언어적소수자’의 수어 표현은 29%로 매우 낮은 적절도 결과를 보였는데 표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수어 표현에서 [#언어][언어]...[농][언어]라고 사용하여 다수의 언어인 음성언어, 소수의 언어인 수어의 구도가 아닌 ‘언어’와 ‘수어’를 반대개념을 표현하여 의미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현장 전문가들은 음성언어 안에서 언어적 다수자와 소수자를 표현하는 것이 맞지만 당사자인 농인 입장에서는 음성언어와 수어로 다수자와 소수자를 표현하는 것이 이해가 빠르다고 하였다.
- 수어와 지문자를 병기한 수어 표현은 ‘정체성1’, ‘동화주의’, ‘청능주의1’, ‘청능주의3’이다. 단일 표현인 ‘동화주의’는 수어 표현에서의 지문자 병기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수어 표현 [흡수하다][변하다]에 [자연히]를 추가하여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농문화와 농사회 영역의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의 적절성과 구성 방식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19개의 수어 표현 중 적절도가 50% 이상인 수어 표현은 12개이고 그 중에서 수어로만 구성된 수어 표현은 10개나 되었다. 대다수의 수

어 표현이 수어만으로 구성된 것이다. 물론 수어로만 표현하였으나 매우 낮은 적절도를 보인 전문용어도 있었고 기타 다른 구성 방식의 전문용어도 각기 다른 적절도를 보여 적절도와 구성 방식의 연관성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수어학 영역

〈표 23〉 한국수어학 영역의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적절도

번호	전문용어	수어 표현	적절도
1	분류사1	[#분류사]	65.0%
2	분류사2	[#분류사][#CL]	65.0%
3	어순2	[단어(유지)][두 단어를 나란히 놓음]	63.2%
4	다의어	[수어][뜻][1(수평)][하나에 여러 가지가 달림]	62.5%
5	공간동사	[장소a][장소b][장소c][동사]	62.5%
6	파생어	[#파생어]	50.0%
7	환유1	[#환유][뜻][무엇][어떤][물건][사람] [특징][독특함][선택하다]	47.5%
8	형태소	[#형태소]	47.5%
9	자의성	[#자의성]	47.5%
10	어순1	[단어(유지)][세 단어를 나란히 놓음]	47.4%
11	최소대립쌍2	[#최소대립쌍]	47.4%
12	도상성2	[#도상성]	47.4%
13	화제화	[#화제화]	45.0%
14	품사	[#품사]	44.8%
15	합성어	[#합성어]	42.5%
16	환유2	[#환유]	42.5%
17	자립형태소	[#자립형태소]	40.0%
18	복합어	[#복합어]	40.0%
19	최소대립쌍1	[수어a][수어b][#최소대립쌍]	39.5%
20	의존형태소	[#의존형태소]	37.5%
21	마우딩	[선생 ‘선생님’][지시][입][선생 ‘선생 님’][동시][#마우딩]	30.0%
22	굴절	[맞추다a][수어a][맞추다b][수어b]	7.5%

(1) 다중 표현

- 한국수어학 영역의 전문용어 수어 표현 22개 중 6개만이 50% 이상의 적절도를 보였다. 22개의 수어 표현 중 지문자로만 표현한 전문용어는 14개인데 사용 빈도 조사 결과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문자로 표현된 전문용어들이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은 의미의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오역이 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나 사용 빈도와는 달리 수어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 ‘분류사1’ 과 ‘분류사2’ 의 적절도는 65%로 동일하였고 사용 빈도도 100%, 95%로 거의 유사하였다. 지문자로 또는 한글지문자+영어지문자로 표현해도 무방하지만 이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서 분류사의 영문 표기인 Classifier의 약자 [#CL]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 굳이 새로운 수어 표현을 고민하거나 지문자를 사용할 필요 없이 농사회에 널리 퍼진 수어 표현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현장 전문가들은 건의하였다.
- 동일한 문항에서 출제된 전문용어 ‘어순’ 은 수어 표현상 큰 차이는 없으나 적절도에서는 ‘어순1’ 은 47.4%, ‘어순2’ 는 63.2%로 큰 차이를 보였다. ‘어순2’ 의 수어 표현 [단어(유지)][두 단어를 나란히 놓음]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어순1’ 의 수어 표현 [단어(유지)][세 단어를 나란히 놓음]은 단어를 여러 개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되지 ‘어순’ 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소대립쌍1’ 의 수어 표현 [수어a][수어b][#최소대립쌍]에서 [수어a]와 [수어b]는 문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맞지 않아 그 다음 시험 회차에서는 지문자로만 표현한 ‘최소대립쌍2’ 으로 출제되었고 ‘최소대립쌍1’ 보다 높은 적절도를 보였다.
- ‘환유’ 는 ‘최소대립쌍’ 과는 다른 출제 경향 변화를 보였다. 먼저 출제된 ‘환유1’ 은 설명식 표현과 지문자를 병기하였고 이후 시험에 출제된 ‘환유2’ 는 지문자만으로 출제되었다. 적절도에서는 ‘환유1’ 이 47.5%, ‘환유2’ 가 42.5%로 먼저 출제된 ‘환유1’ 이 근소한 차이로 더 높은 적절도를 보였다. 사용 빈도에서는 ‘환유1’ 이 80%, ‘환유2’ 가 95%로 설명식보다는 지문자로만 구성된 표현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성 방식

- 구성 방식을 살펴보면 지문자 표현이 14개로 다른 영역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영역 특성상 전문용어를 수어로 표현하기 용이하지 않거나 오역의 위험이 있어 한국어를 그대로 차용해 지문자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표 24〉 한국수어학 영역의 구성 방식별 전문용어

구성 방식	전문용어
① 수어로 구성	공간동사, 굴절, 다의어, 어순1, 어순2
② 지문자로 구성	도상성2, 복합어, 분류사1, 분류사2, 의존형태소, 자립형태소, 자의성, 최소대립쌍2, 파생어, 품사, 합성어, 형태소, 화제화, 환유2
③ 수어와 지문자 혼합 구성	최소대립쌍1
④ 수어와 지문자 병기 구성	마우딩, 환유1

- 지문자로 표현한 전문용어들의 적절도는 가장 높은 것이 ‘분류사1’ (65%)이고 그 뒤를 ‘파생어’ (50%), ‘형태소’ (47.5%), ‘자의성’ (47.5%), ‘최소대립쌍 1’ (47.4%), ‘화제화’ (45%), ‘품사’ (44.8%), ‘합성어’ (42.5%), ‘환유 2’ (42.5%), ‘자립형태소’ (40%), ‘복합어’ (40%), ‘의존형태소’ (37.5%)순으로 ‘분류사1’ 과 ‘파생어’ 를 제외하면 50% 이상의 낮은 적절도를 보이며 전문용어에 적합한 수어 표현 연구가 시급함을 반증하였다.
- 수어로만 구성된 ‘도상성1’ 은 55%, 지문자로만 구성된 ‘도상성2’ 는 47.4%로 근소한 차이를 보여 구성 방식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장 전문가들은 ‘도상성’ 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림][웁기다]와 [모양][웁기다][수어]를 제안하였다.
- 수어와 지문자의 병기 구성으로 이뤄진 ‘마우딩’ 은 상당히 낮은 30%의 적절도를 보였는데 이는 구성 방식과의 연관성보다는 수어 표현이 전문용어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지 못한 데 이유가 있다.

4) 한국수어 실제1, 2 영역

〈표 25〉 한국수어 실제1, 2 영역의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적절도

번호	전문용어	수어 표현	적절도
1	역할전환1	[양손을 펴서 이마와 뒤통수에서 각각 반대 방향으로 돌림]	75.0%
2	역할전환2	[양손 2, 3지를 붙여 앞뒤로 번갈아 돌림]	72.5%
3	오디즘3	[듣다][억압][#오디즘]	60.6%
4	오디즘1	[#오디즘][억압/미국수어]	57.9%
5	오디즘2	[억압/미국수어]	50.0%
6	부정어3	[#부정어]	32.5%

(1) 다중 표현

- ‘역할전환’은 수어 화용에서 매우 특징적인 개념으로 수어 교육에서 필수적인 내용이며 많은 교육을 통해 이미 노출이 많이 된 전문용어이다. ‘역할전환 1’ ‘역할전환2’ 모두 95%, 90%의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이는 것처럼 적절도에서도 75%, 72.5%의 비교적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 청능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오디즘’은 3개의 수어 표현에서 한국수어와 지문자 그리고 미국수어가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오디즘’이 외래어이다보니 미국수어를 사용한 ‘오디즘1’과 ‘오디즘2’가 시험에 출제되었고 이후 미국수어 대신에 [#오디즘]을 결합한 ‘오디즘3’이 출제되어 다른 둘의 표현보다 높은 적절도를 보였다. 미국수어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되도록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2) 구성 방식

- 구성 방식을 살펴보면 수어로만 구성된 수어 표현은 3개, 지문자로만 구성된 표현은 1개, 수어와 지문자 병기 구성은 2개였고 수어와 지문자 혼합 구성은 없었다.
- 한국수어 실제1, 2 영역의 수어 표현은 6개뿐이어서 구성 방식과 적절성과의

유의미한 연관성을 찾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표 26〉 한국수어 실제1, 2 영역의 구성 방식별 전문용어

구성 방식	전문용어
① 수어로 구성	역할전환1, 역할전환2, 오디즘2
② 지문자로 구성	부정어3
③ 수어와 지문자 혼합 구성	-
④ 수어와 지문자 병기 구성	오디즘1, 오디즘3

5) 전문용어의 수어 표현 구성 방식별 분류

○ 전체 영역의 전문용어 47개와 그에 따른 74개의 수어 표현을 구성 방식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어로 구성

〈표 27〉 수어로 구성된 전문용어

한국수어교육론	농문화와 농사회	한국수어학	한국수어 실제1 한국수어 실제2
의사소통중 심 부정어1 부정어24) 일반동사 이중부정 교육과정1 교육과정2 수지한국어	자아존중감 코다 제3의 농유머 문화1 도상성1 제3의 정체성2 문화2 5)청능주의2 이중언어이 수어문학1 중문화농교 육1	굴절 어순1 어순2 다의어 공간동사	오디즘2 역할전환1 역할전환2 테프게인

4) 한국수어 실제1(2회_19)번에서도 출제됨

5) 한국수어 실제1(2회_8번_1~3, 3회_8번_1)에서도 출제됨

(2) 지문자로 구성

〈표 28〉 지문자로 구성된 전문용어

한국수어교육론	농문화와 농사회	한국수어학	한국수어 실제1 한국수어 실제2
언어 일치동사2	도상성2 정체성3 데프후드	형태소 품사 분류사1 환유2 분류사2 파생어 자립 형태 합성어 소 화제화 의존 형태 자의성 소 복합어 최소대립 쌍2	부정어3

(3) 수어와 지문자 혼합 구성

〈표 29〉 수어와 지문자 혼합 구성의 전문용어

한국수어교육론	농문화와 농사회	한국수어학	한국수어 실제1 한국수어 실제2
관용표현 일치동사1 생산적수어 상세화의원리1 상세화의원리2	수어문학2 언어적소수자 이중언어이중문화농 교육2	최소대립쌍1	-

(4) 수어와 지문자 병기 구성

〈표 30〉 수어와 지문자 병기 구성의 전문용어

한국수어교육론		농문화와 농사회	한국수어학	한국수어 실제1 한국수어 실제2
신뢰도1	타당도1	정체성1	환유1 마우딩	오디즘1 오디즘3
신뢰도2	타당도2	동화주의		
신뢰도3	타당도3	청능주의1 청능주의3		

가이드라인

장

Ⅲ. 전문용어 수어 표현
의
적절성 기준

가이드라인

Ⅲ.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적절성 기준

- 향후 농인에게 수용도가 높은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이 제안될 수 있도록 수어 표현의 적절성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수어교육능력시험(이하 시험)의 문항과 선지에서 추출한 전문용어의 수어 표현과 현장 전문가 인터뷰에서 수집한 수어 표현을 비교하여 제시하도록 하겠다.

1. 기준1: 전문용어의 설명을 지양하고 간결성을 유지한다.



- 전문용어의 수어 표현으로 전문용어의 설명을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간결해야 한다.
- 시험에서 ‘환유1’는 [#환유][뜻][무엇][어떤][물건][사람][특징][독특함][선택하다]라는 수어 표현이다. 이는 환유를 지문자로 제시한 다음 환유의 뜻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환유의 개념과 지문자로 제시함으로써 용어 전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한 의도를 추정할 수 있다.
- 현장 전문가 인터뷰에서 제안된 수어 표현은 [눈에띄다][선택하다]이다. 전문용어의 핵심 개념을 포착한 매우 간략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표 31〉 ‘환유1’의 수어 표현

전문용어	환유1
	[#환유] +
시험의 수어 표현	
제안된 수어 표현	

- 시험에서 ‘신뢰도3’는 [#신뢰도][민다][평가][정확][방법][평가][기본][기준][항목][똑같다][꼭]이라는 수어 표현이다. 신뢰도를 지문자로 제시한 뒤 신뢰도를 설명하였다.
- 현장 전문가 인터뷰에서 수집한 수어 표현은 [평가a][비슷(수평)a][점수]로 매우 간략한 표현이다. 시험의 수어 표현은 학생들의 점수가 비슷하다고 이해된다. 학생 중심이 아니라 평가자 중심으로 표현해야 한다. 교사가 평가한다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수어자의 몸과 가까운 위치에서 [평가a][비슷(수평)a]를 표현한 다음 정면을 보고 [점수]로 표현한다.


〈표 32〉 ‘신뢰도3’의 수어 표현

전문용어	신뢰도3
시험의 수어 표현	<p data-bbox="810 376 986 409">[#신뢰도] +</p> 
제안된 수어 표현	

2. 기준2: 농사회에서 대중화된 용어를 우선 수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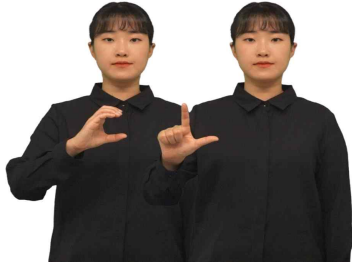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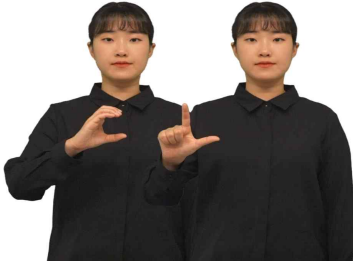
- 농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어 표현을 우선 허용한다.
- 시험에서 ‘코다’는 [부모][농][낳다][청][지시]로 설명하여 풀어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농사회에서 [코다]가 이미 대중화되었으므로 이 수어 표현을 수용한다. 물론 [코다]의 C 수형은 영어 CODA(Children of the Deaf Adult)의 첫 철자를 영어 지문자로 표현한 것으로 가능한 한 한국수어로 전문용어를 표현해야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이미 쓰이고 있는 용어이므로 수용한다.

〈표 33〉 ‘코다’의 수어 표현

전문용어	코다
시험의 수어 표현	
제안된 수어 표현	

- ‘코다’와 마찬가지로 ‘분류사’를 한글 지문자 또는 영어 지문자만으로 표현하는 것은 가능한 한 한국수어로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향점과는 상반되지만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과 시험에서는 전문용어의 정확한 전달과 이해가 중요하므로 이미 농사회에서 대중화된 전문용어를 수용한다.
- 시험에서 ‘분류사’는 한글 지문자만으로 [#분류사] 또는 한글 지문자와 영어 지문자인 [#분류사][#CL]이라는 두 가지 수어 표현으로 제시하였다.
- 현장 전문가 인터뷰에서 수집한 수어 표현은 영어 지문자([#CL])만으로 표현하는 구성이다.

〈표 34〉 ‘분류사’의 수어 표현

전문용어	분류사
시험의 수어 표현	<div data-bbox="611 618 793 656" data-label="Text"> <p>[#분류사] +</p> </div> 
제안된 수어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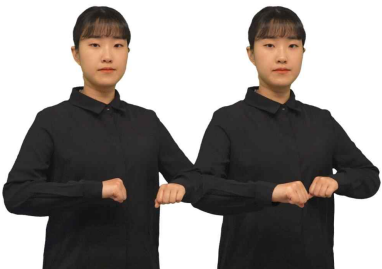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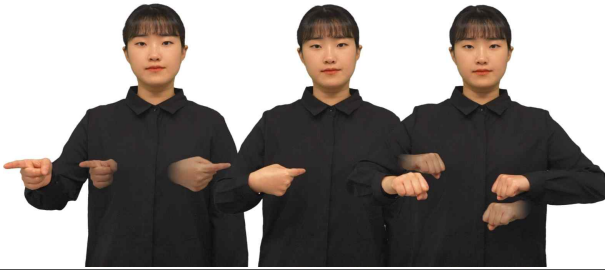
3. 기준3: 무리한 수어 번역을 지양하고 지문자를 허용한다.

- 전문용어에 해당하는 수어 표현이 아직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관찰되지 않을 경우 무리한 수어 번역을 지양하고 대안적으로 지문자를 허용한다.
- 한국수어학 영역에서 ‘언어’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소리나 문자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수어 단어 [말]은 단지 음성을 표현한 것으로 언어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언어’에 대한 수어 표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또한 한국수어학 영역에서 ‘파생어’는 접사라는 표현이 우선 전제되어야 하는데 ‘접사’의 개념을 나타내는 수어 표현조차 제안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번역은 전문용어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4. 기준4: 지문자와 수어 단어의 혼합 표현을 지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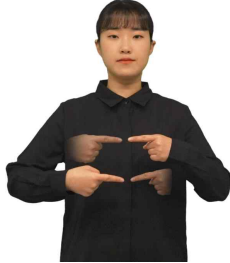

- 하나의 전문용어를 지문자와 수어 단어로 나누어 표현하는 것을 지양한다.
- 시험에서 ‘일치동사’를 ‘일치’는 지문자로 쓴 뒤 ‘동사’는 수어 단어 [동사]로 표현하였다.
- 제안된 수어 표현은 모두 수어로 표현한 것이다. 일치동사의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한 수어 표현 다음에 [동사]를 결합하였다.

〈표 35〉 ‘일치동사’의 수어 표현

전문용어	일치동사
시험의 수어 표현	<div data-bbox="614 907 1157 1176">  <p>[#일치] +</p> </div>
제안된 수어 표현	<div data-bbox="582 1220 1189 1489">  </div>

- 시험에서 ‘생산적수어’는 ‘생산적’은 지문자로 쓴 뒤 ‘수어’는 수어 단어 [수어]로 표현하였다.
- 제안된 수어 표현은 [수어][수어(유지)][추가하다2(반복)]으로 모두 수어로 표현한 것이다.

〈표 36〉 ‘생산적수어’의 수어 표현

전문용어	생산적수어
시험의 수어 표현	<div data-bbox="673 600 853 638" data-label="Text"> <p>[#생산적] +</p> </div> 
제안된 수어 표현	

5. 기준5: 설명과 지문자의 잉여적 병기를 지양한다.

- 전문용어를 설명한 뒤 지문자를 언급하거나 또는 순서를 바꾸어서 지문자로 표현한 뒤 설명하는 것을 지양한다.
- 시험에서 ‘마우딩’의 수어 표현은 마우딩을 설명한 다음([선생 ‘선생님’][지시][입][선생 ‘선생님’][동시]) 지문자[#마우딩]를 병기하였다. 이는 수어 통·번역 과정에서 용어의 개념을 설명한 뒤 용어를 지문자로 정확하게 밝혀주는 기법과 같다. 현재 전문용어에 해당하는 적절한 수어 표현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어 번역의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적절한 수어 표현이 나오기까지 중간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기준은 기준 1과도 연결되는데 전문용어와 설명은 구분되어야 한다.
- 제안된 수어 표현은 [입 ‘빠빠빠’][수어 ‘빠빠빠’]이다. 수어를 하면서 동시에 단어에 대응하는 입모양을 모방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표 37〉 ‘마우딩’의 수어 표현

전문용어	마우딩
시험의 수어 표현	 <p>+ [#마우딩]</p>
제안된 수어 표현	

- 시험에서 ‘동화주의’의 수어 표현은 동화주의를 설명한 다음([다수에포함되다][다수와어울리다][흡수하다(반복)][변화하다][중심]) [#동화주의]라고 지문자를 병기한 것이다. 이 또한 수어 통·번역 과정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기법이다.
- 제안된 수어 표현은 수어로만 표현한 [다수와어울리다][흡수하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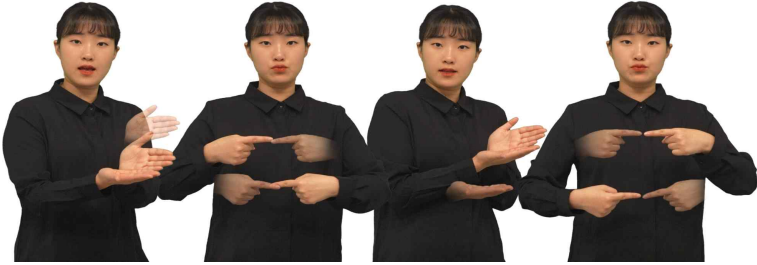
〈표 38〉 ‘동화주의’의 수어 표현

전문용어	동화주의
시험의 수어 표현	 + [#동화주의]
제안된 수어 표현	

6. 기준6: 여러 의미로 유추되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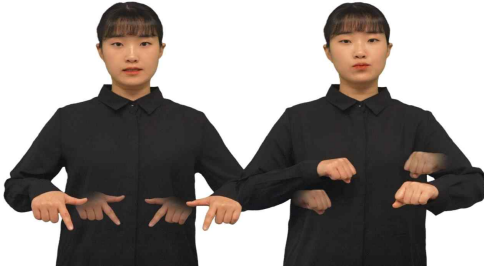

- 전문용어는 일의성 원칙을 준수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유추될 수 있는 것은 피하고 될 수 있으면 하나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한다.
- 시험에서 ‘굴절’의 수어 표현은 [맞추다a][수어a][맞추다b][수어b]인데, ‘일치 동사’ 또는 ‘코드 스위칭’으로 이해된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 있었다.
- 제안된 수어 표현은 [단어][단어(유지)][교체하다(반복)]으로 단어의 형태를 교체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표 39〉 ‘굴절’의 수어 표현

전문용어	굴절
시험의 수어 표현	
제안된 수어 표현	

- 시험에서 ‘일반동사’은 [보통][동사]라는 수어 표현으로 제시되었으나 현장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행동’으로 의미의 혼동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제안된 수어 표현은 [기본][동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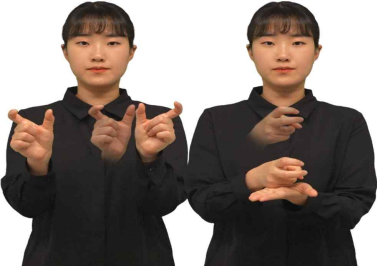
〈표 40〉 ‘일반동사’의 수어 표현

전문용어	일반동사
시험의 수어 표현	
제안된 수어 표현	

7. 기준7: 핵심 표현이 포함되도록 한다.

- 전문용어의 핵심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주요 어휘가 빠지지 않도록 하여 전문용어의 개념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 시험에서 ‘어순2’는 [단어(유지)][두 단어를 나란히 놓음]이라는 수어 표현으로 제시되었으나 어순보다 단어를 나열한 것으로 해석된다. 어순은 단어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고 어순이라는 용어 속에 규칙의 개념을 포함한다.
- ‘어순2’의 제안된 수어 표현은 ‘[단어(유지)][두 단어를 나란히 놓음][규칙]’을 포함으로써 핵심 의미인 규칙의 의미를 포함하였다.

〈표 41〉 ‘어순2’의 수어 표현

전문용어	어순2
시험의 수어 표현	
제안된 수어 표현	

- ## 2. 제언

VI.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는 공공부문 수어 소통 활성화의 일환으로 한국수어교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어 관련 교육 및 시험 등에서 사용되는 수어 전문용어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보급의 필요성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과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결론

- 1회에서 5회까지 실시된 한국수어교육능력시험(이하 시험)에서 사용한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의 사용 빈도 조사 결과,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적절성 조사 결과,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적절성 기준 제안의 순서로 결론을 제시하겠다.

1)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사용 빈도 조사

- 시험의 5개 영역인 한국수어교육론, 농문화와 농사회, 한국수어학, 한국수어 실제1, 한국수어 실제2에서 47개 전문용어와 그에 해당하는 74개의 수어 표현을 추출하였다. 한국수어교육원 및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 등에서 해당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의 실제 사용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20명을 섭외하여 6차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하여 47개 전문용어에 해당하는 74개의 수어 표현의 사용 빈도와 적절성을 조사하였고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140개 전문용어 수어 표현을 수집하였다. 시험 영역별로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한국수어교육론 영역은 타 영역에 비하여 인지도가 낮았는데 이는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서 타 영역에 비해 전문용어의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용어의 개념적 난해함, 전문용어의 특성상 다중 복합어가 많았다는 점, 어휘가 아닌 설명식으로 표현한 수어 표현이 많았던 것도 사용 빈도가 낮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농문화와 농사회 영역은 높은 빈도로 전문용어 수어 표현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빈도가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정체성1’은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어와 지문자의 병기 표현이 개념의 명확성을 더 높여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국 수어교육론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동화주의’ (50%), ‘이중언어·이중문화농교육2’ (45%)는 전문용어 개념의 난해함과 수어 표현이 설명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 원인으로 추측된다.
- 한국수어학 영역도 농문화와 농사회 영역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사용 빈도 결과를 보이는데 22개 중 21개의 수어 표현에서 60%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이 영역 역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뿐만 아니라 수어통역사 보수교육을 비롯하여, 여타 많은 교육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기에 용어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상위 90%를 차지한 16개의 표현 중 ‘공간동사’를 제외한 모든 용어는 지문자를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지문자로만 표현되었다. 한국수어학 영역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전문용어들이 지문자로 표현된 것은 시험에 출제된 전문용어인 만큼 번역 과정에서 의미의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오역이 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적절성 조사

- 한국수어교육론 영역의 전문용어 수어 표현 27개 중 15개만이 50% 이상의 적절도를 보였으며 이는 네 영역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사용 빈도 조사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및 기타 교육 현장에서 전문용어의 노출 빈도가 낮은 것이 적절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적절성 향상을 위해서는 수어 표현 연구가 필요한 영역인 것으로 판단된다.
- 다중 표현으로 출제된 전문용어 중 시기적으로 먼저 출제된 전문용어가 후에 출제된 전문용어보다 높은 적절도를 보였다. 기존의 번역된 표현보다 의미 전달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표현을 제시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적절도 평가에서는 더 낮게 나왔다.
- 한국수어교육론 영역의 전문용어 적절도와 구성 방식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을 때 수어로만 구성된 표현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으나 개념이 어려워 정확한 수

어 표현이 어려울 때 지문자로만 표현하거나 또는 수어와 지문자를 병기함으로써 이해를 쉽게 한 것으로 보인다. 지문자로만 표현된 전문용어는 모두 적절도 50% 이상의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공인된 수어 표현이 없을 때 차선으로 지문자를 선택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농문화와 농사회 영역의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적절성과 구성 방식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19개의 수어 표현 중 적절도가 50% 이상인 수어 표현은 12개이고 그 중에서 수어로만 구성된 수어 표현은 10개나 되었다. 대다수의 수어 표현이 수어로만 구성된 것이다. 물론 수어로만 표현하였으나 매우 낮은 적절도를 보인 전문용어도 있었고 기타 다른 구성 방식의 전문용어도 각기 다른 적절도를 보여 적절도와 구성 방식의 연관성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수어학 영역의 전문용어 수어 표현 22개 중 6개만이 50% 이상의 적절도를 보였다. 22개의 수어 표현 중 지문자로만 표현한 전문용어는 14개인데 사용 빈도 조사 결과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문자로 표현된 전문용어들이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은 의미의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오역이 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나 사용 빈도와는 달리 수어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 한국수어학 영역의 구성 방식을 살펴보면 지문자 표현이 14개로 다른 영역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영역 특성상 전문용어를 수어로 표현하기 용이하지 않거나 오역의 위험이 있어 한국어를 그대로 차용해 지문자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3) 전문용어 수어 표현의 적절성 기준 제안

- 위 분석 및 조사 과정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인에게 수용도가 높은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의 적절성 기준을 일곱 가지로 제안하였다.
- 전문용어의 설명을 지양하고 간결성을 유지해야 한다(기준1). 전문용어와 설명은 구분되어야 한다. 전문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서 교육 이수를 통해 전문용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문용어의 설명은 불필요하다.
- 농사회에서 대중화된 용어를 우선 수용한다(기준2). 전문용어의 수어 표현 중에

서 매우 적은 수이지만 ‘코다’, ‘분류사’, ‘청능주의’ 등은 이미 농사회에서 확산하여 사용되고 있는 수어 표현이기 때문에 전문용어로서 정확한 전달과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청능주의’의 경우 [듣다][억압]이라는 수어 표현은 듣는 것에 대한 억압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전문용어와 수어 표현의 의미가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즉 현장 전문가들은 한국어와 한국수어의 뜻이 서로 일치하도록 [듣다][중심], [듣다][존중] 등의 수어 표현을 제안하였다.

- 전문용어는 정확한 개념 전달이 중요하므로 적절한 수어 표현이 나오기 전까지 무리한 수어 번역을 지양하고 지문자를 대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기준3). ‘언어’, ‘품사’, ‘화제화’와 같은 전문용어의 수어 표현은 농사회에서 이 전문용어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적절한 수어 표현이 제안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하나의 전문용어에 수어 단어와 지문자가 혼합되는 형태를 지양한다(기준4). 수어 단어와 지문자의 혼합 구성은 하나의 전문용어에서 수어로 표현이 쉬운 것은 수어로 표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지문자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아직 전문용어의 개념 이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수어 표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다.
- 전문용어의 설명과 지문자의 병기는 잉여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지양한다(기준5). 이러한 수어와 지문자의 병기 구성은 수어 통·번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기법이다. 이 또한 아직 전문용어의 적절한 수어 표현이 부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 여러 의미로 유추되지 않아야 한다(기준6). 전문용어는 하나의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현장 전문가들은 전문용어는 하나의 표현에 한 가지 의미만 나타나야 하고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전문용어의 핵심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주요 어휘가 빠지지 않도록 하여 전문용어의 개념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기준7). ‘맥락의원리’의 수어 표현인 [내용][연결][파악]만으로는 맥락 속에서 단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원리라는 중요 개념이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리]라는 용어가 드러나야 정확한 개념 전달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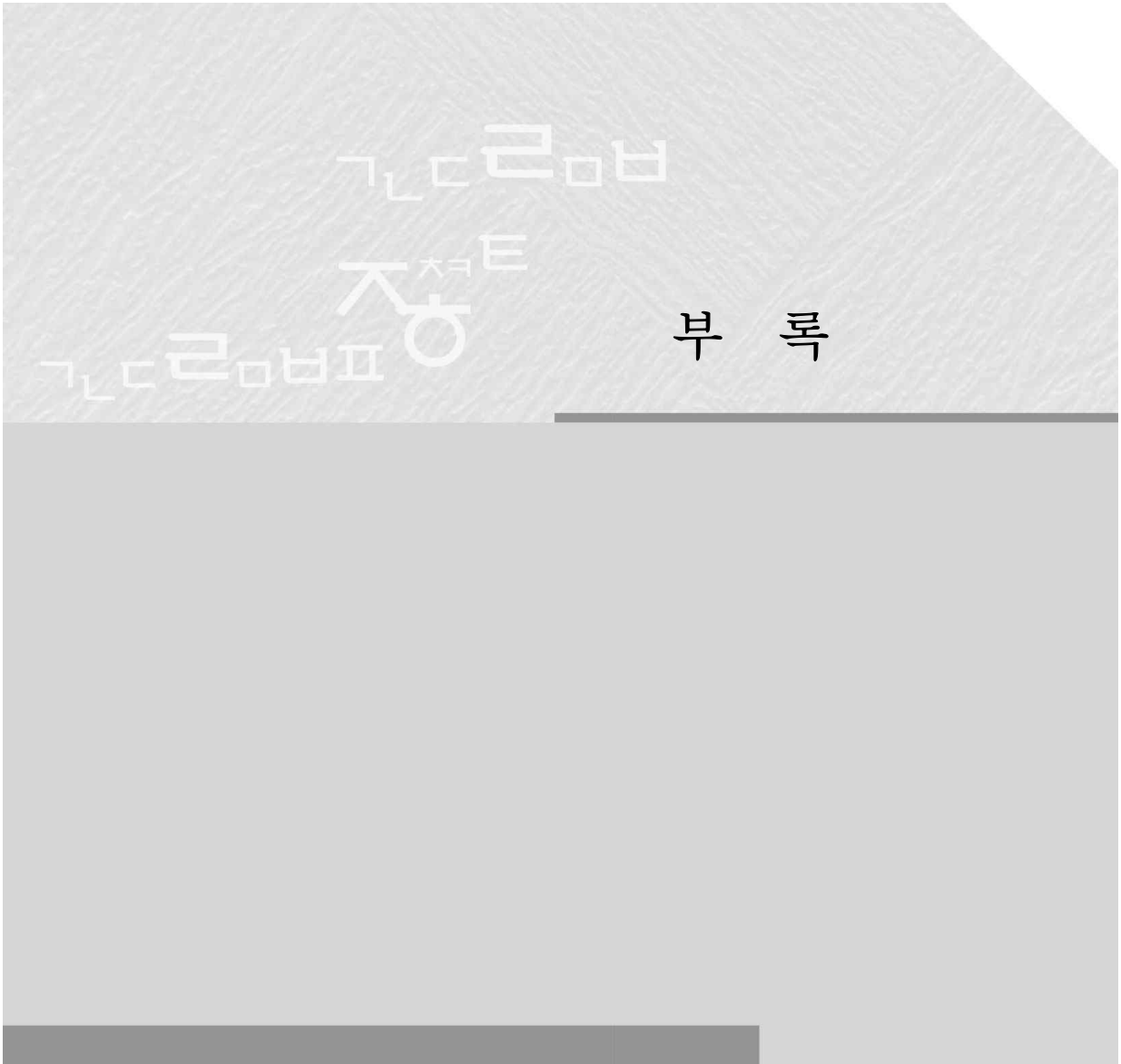
2. 제언

-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된 한국수어교원자격제도를 통해 한국수어 인구의 저변 확대와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 교육의 질적인 도약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한국수어교육능력시험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회씩 실시되어 한국수어교원을 배출하는 제도로써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어 교육 현장에서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임을 현장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고, 한국수어교육능력시험에서는 전문용어에 대한 적절한 수어 표현 대신 전문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상당 부분 관찰되었다. 그러나 현장 전문가들은 전문용어의 설명과 전문용어 자체는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수어 교육 현장에서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의 연구와 교육이 미흡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을 수집하는 작업은 아직 이른 감이 있으나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의 연구와 현장과의 소통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의 권장안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전문용어에 다수의 수어 표현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 혼동을 줄이기 위해 권장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많은 수어 표현을 제안한 것 중 ‘생산적수어’는 5개가 제안되었다. 교육 현장에서 5개의 수어 표현이 사용되면서 그 중 어느 하나가 최종적으로 남을 것인데 그 전에 몇 개의 권장안을 제안하여 혼동을 줄일 필요가 있다. 특히 권장안의 후보들은 시각언어의 특징을 반영한 직관적이며 이해하기 쉽고 전문용어의 의미와 일치하는 수어 표현일수록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 둘째, 현장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용어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다.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수어 표현이 부재하여 수어 교육 전문가들이 전문용어의 수어 표현을 개발할 때 여러 정의 중에서 가장 확실한 정의를 번역해야 한다.

- 셋째, 전문용어의 정의와 수어 표현을 제시한 전문용어별 수어 용어집을 개발해야 한다. 전문용어 수어 용어집은 수어 교육 현장과 시험 출제 과정에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 넷째,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에 관하여 농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일본 수화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새로운 수화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듯이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어 표현을 수집하고 수집된 수어 표현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선호도를 조사하여 확정해가는 과정은 투명하고 농사회의 참여를 끌어내는데 매우 효과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
- 다섯째, 전문용어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전에 사전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또는 한국수어교원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적절한 수어 표현을 수집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할 것이다.
- 여섯째, 전문용어의 수어 표현 개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2000년대 초반 한국수어사전을 편찬할 당시 수어의 표준화를 목표로 하여 수어에 없는 단어들을 인위적으로 개발했던 관행에 대한 비판이 있다. 현장에서 전문용어의 수어 표현이 자연스럽게 출현하기 전까지 수어 교육 현장과 시험에서는 최대한 정확한 전달이 가능해야 한다. 전문용어의 수어 표현 연구에 대한 기피보다는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석주 · 이현주 · 민경모 · 黃銀霞(2007). 전문 용어연구-정리 현황과 과제. 국립국어원 국어자료총서 4. 태학사. 11~46.
- 김성진 · 정동열(2001). 전문용어사전의 미시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 1, 143-162.
- 윤병천 외(2017). 한국수어 전문용어 사전 구축. 국립국어원.
- 윤병천 외(2018). 2018년 한국수어 전문용어 구축을 위한 연구. 국립국어원.
- 서태길·김양진·도원영·이상혁·권오희(공역)(2008). 사전 편찬의 원리와 실제 (Hartmann, R.R.K, Lexicography: Principles and Practice, 1983). 제이앤씨.
- 신형욱 · 이재원(2009). “텍스트언어학 사전” 편찬 방안 연구 Ⅰ. *텍스트언어학* 27, 81~51.
- 이수미(2011). 한국어교육학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연구 1 - 거시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8, 2, 143-163.
- 이준우 외(2016).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 구축. 국립국어원.
- 문화체육관광부(2017).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2018~202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 문화체육관광부(2023).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2023~202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 최형용 (2010) 전문 용어의 형태론 -지침으로서의 전문 용어 형성 원칙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31, 293-32.
- 한국수어교원자격제도 <https://sldict.korean.go.kr/kslteacher/main/main.do>
- Expanding American Sign Language’ s scientific vocabulary
<https://www.newsigns.jp/>
<https://www.newsigns.jp/hozon>
- Institut für Deutsche Gebärdensprache und Kommunikation Gehörloser der Universität Hamburg: IDGS, <https://www.idgs.uni-hamburg.de/>



〈부록1〉 한국수어교육능력시험에서 추출한 전문용어별 수어 표현

한국수어교육론 영역

관용표현	부정어1	언어
교육과정1	부정어2	의사소통중심
교육과정2	상세화의원리1	이중부정
맥락의원리1	상세화의원리2	일반동사
맥락의원리2	생산적수어	일치동사1
반복노출의원리1	수지한국어	일치동사2
반복노출의원리2	신뢰도1	타당도1
배경지식통합의원리1	신뢰도2	타당도2
배경지식통합의원리2	신뢰도3	타당도3

관용표현

1

[#관용]



교육과정1,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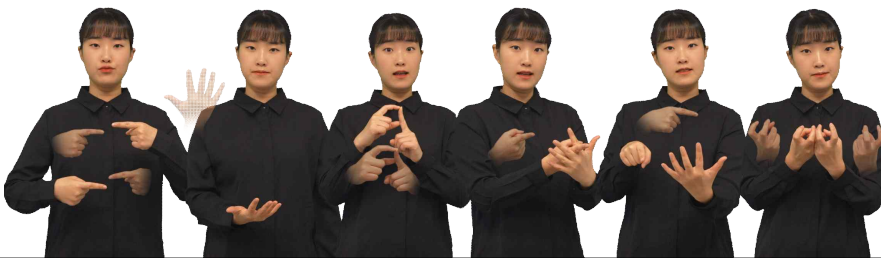


2



맥락의원리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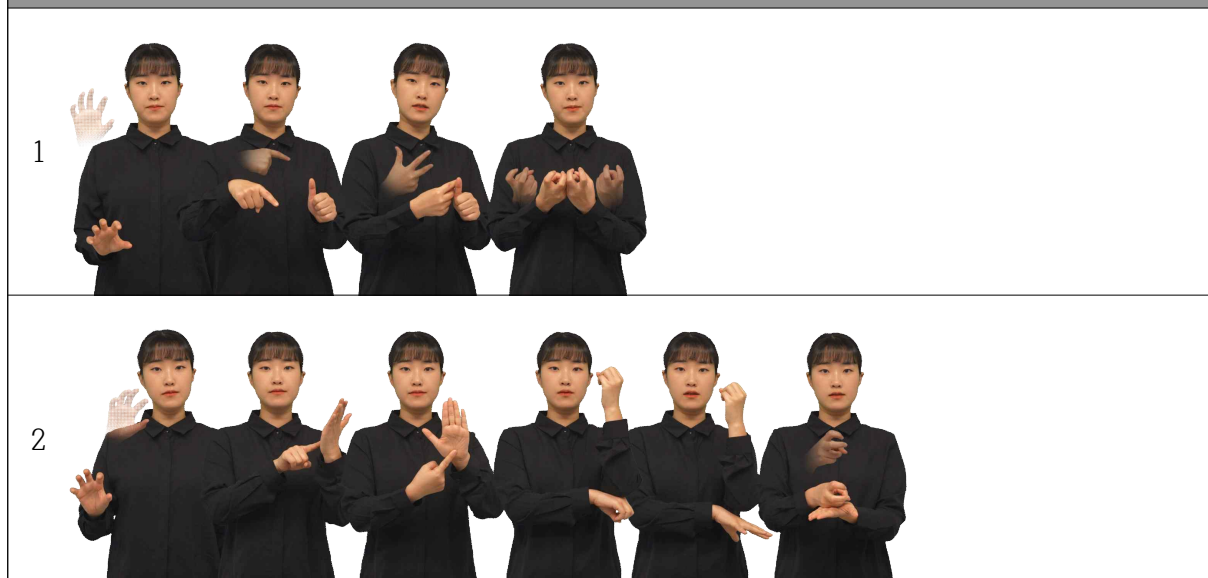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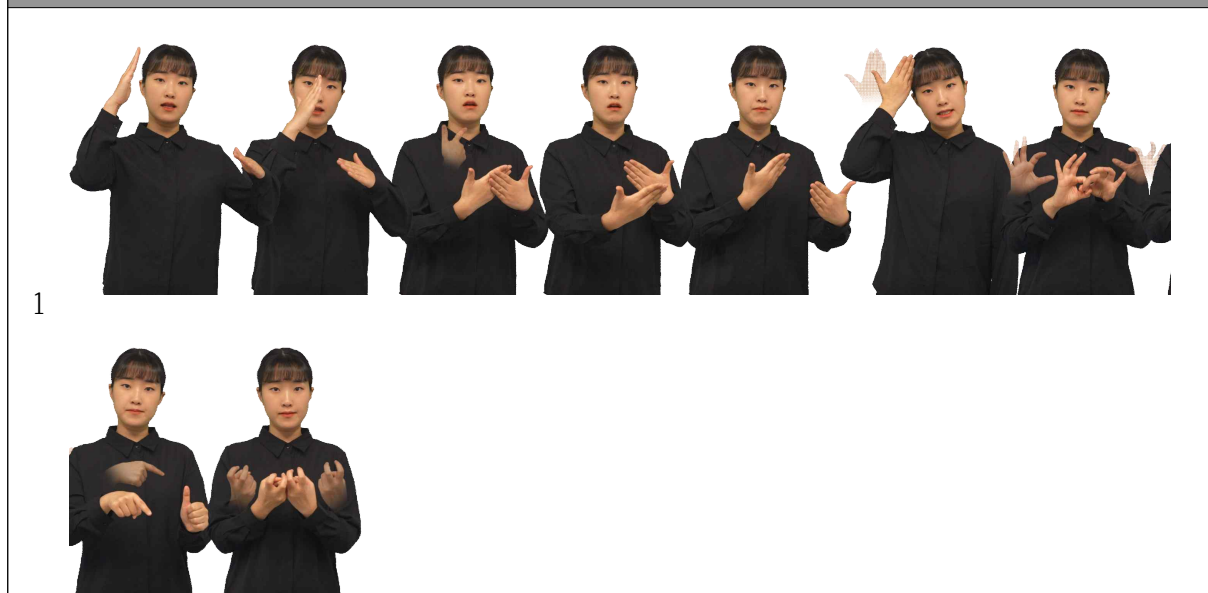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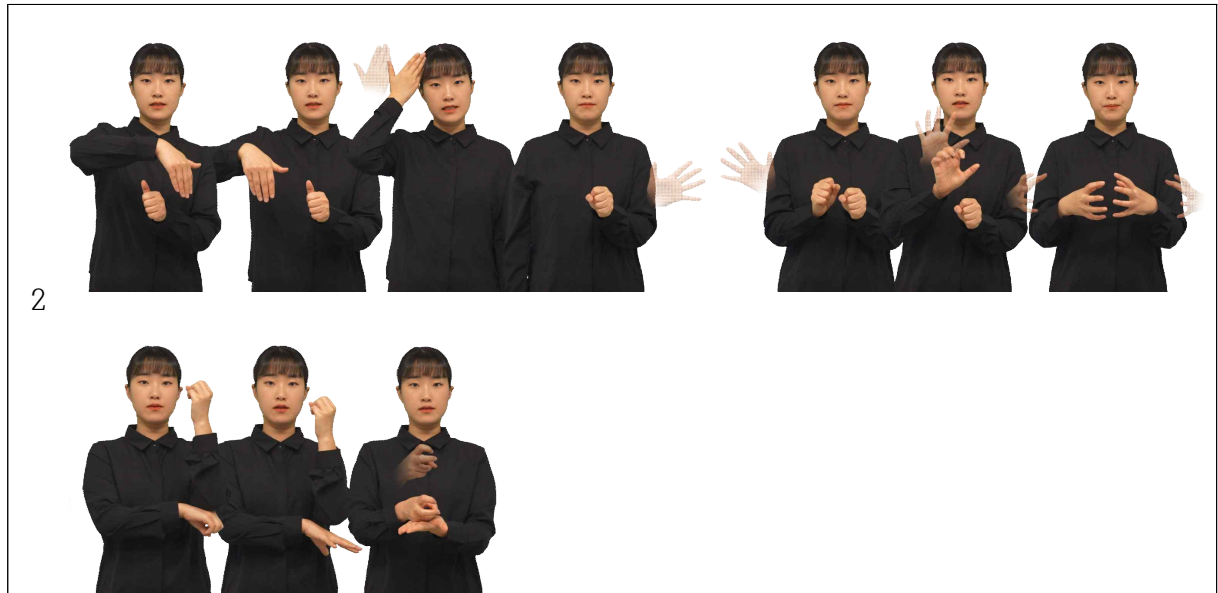


반복노출의원리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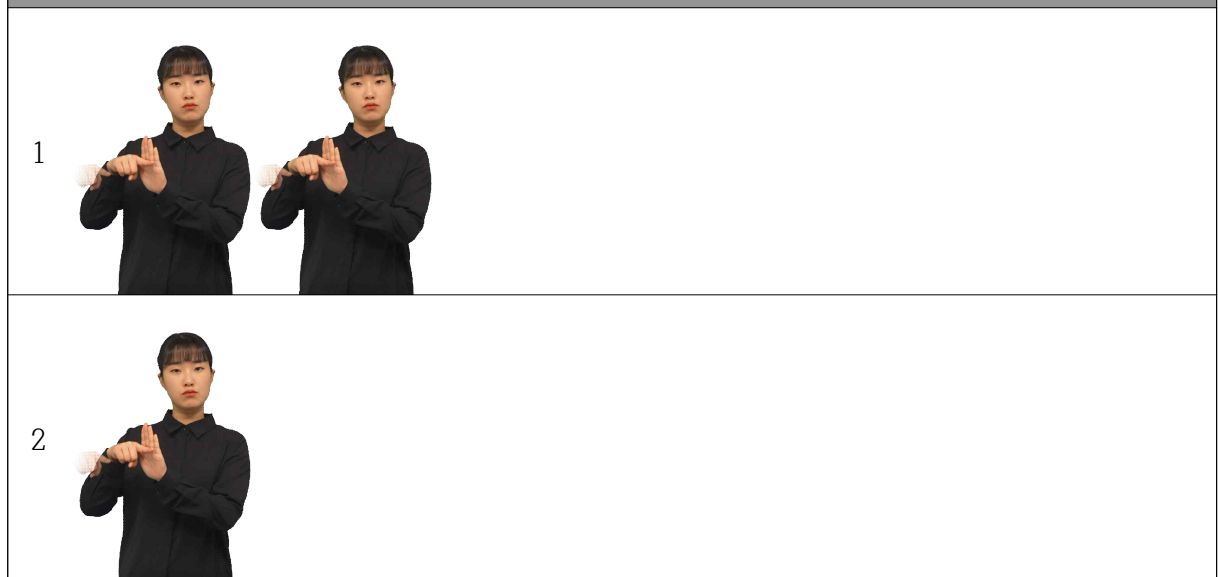


배경지식통합의원리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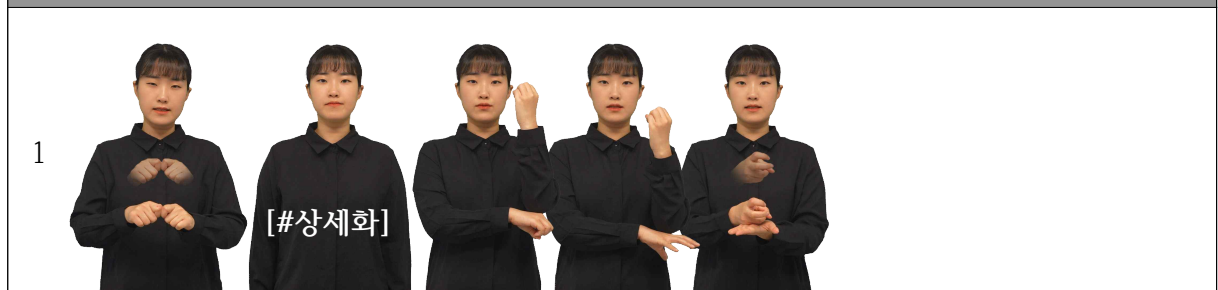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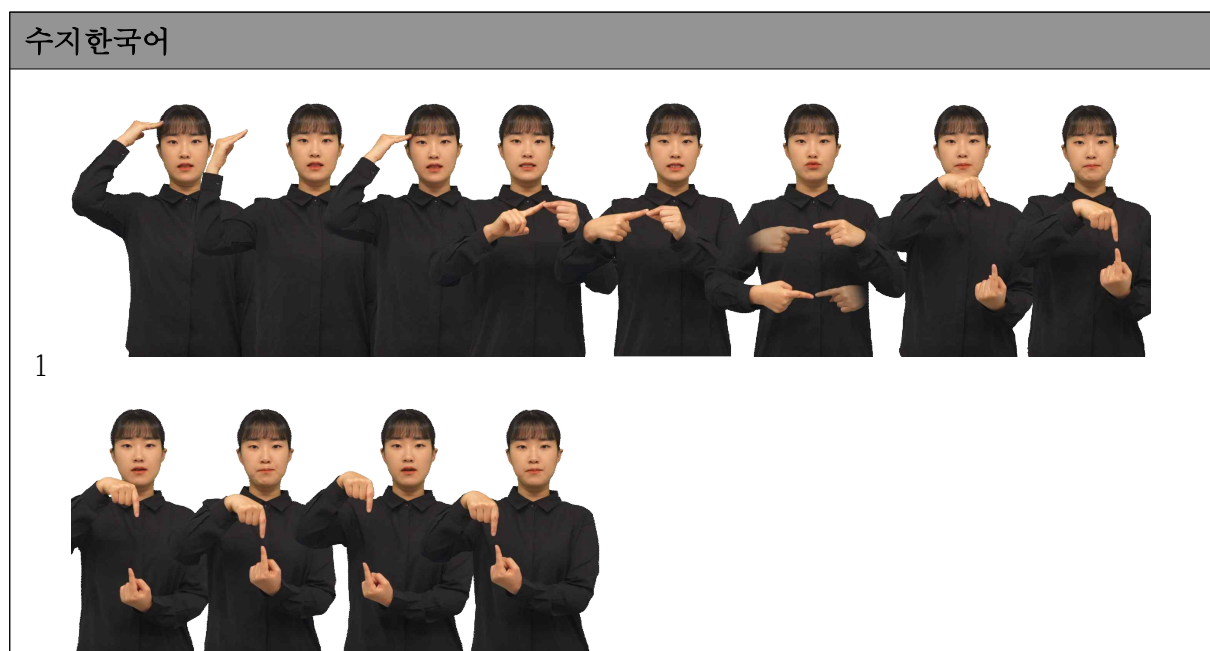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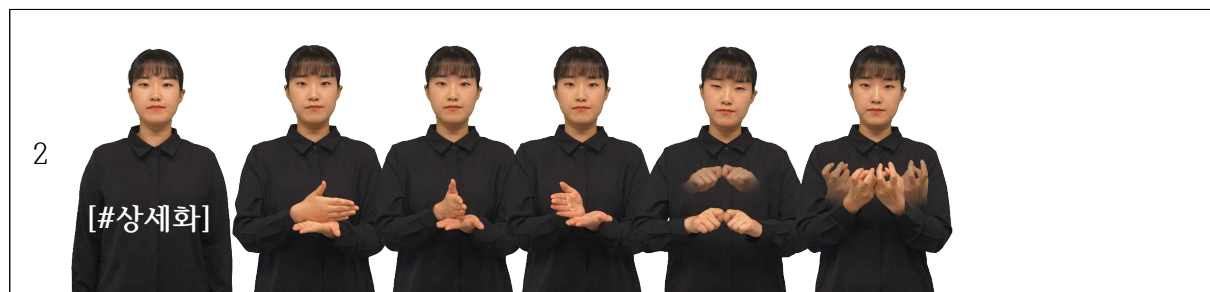


부정어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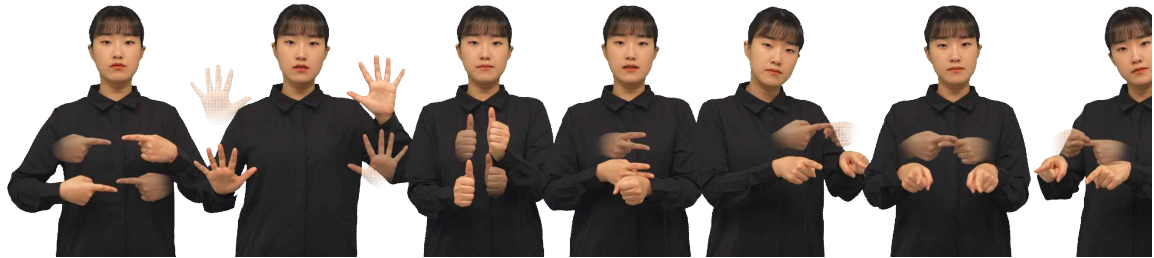


상세화의원리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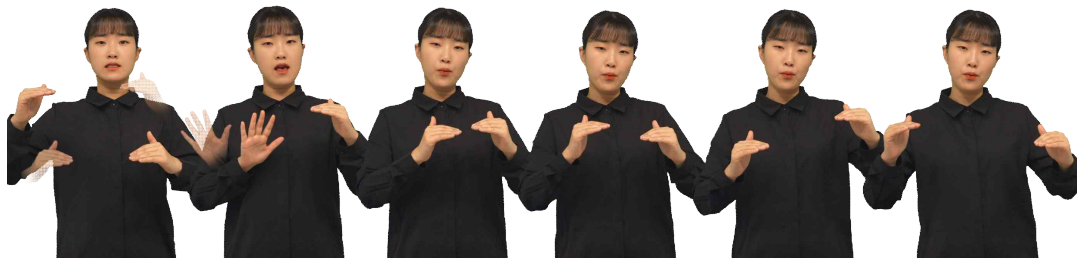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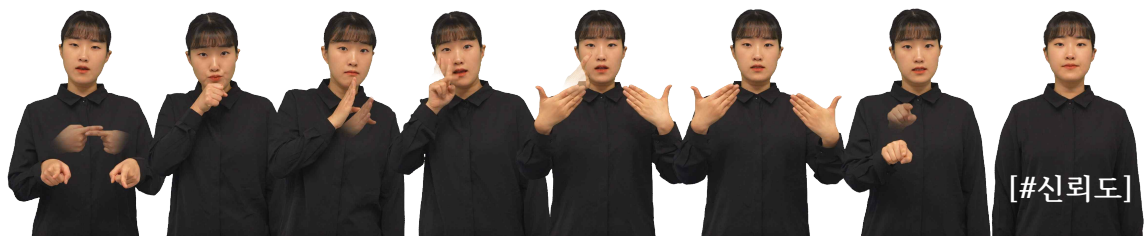
신뢰도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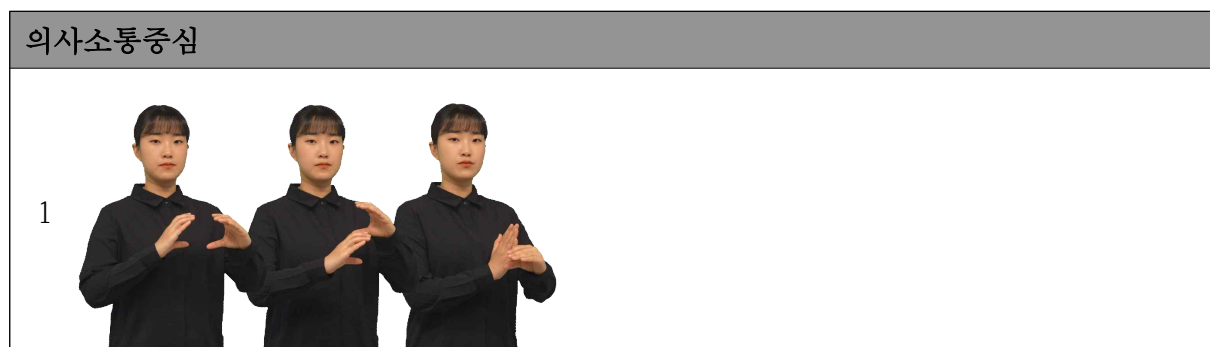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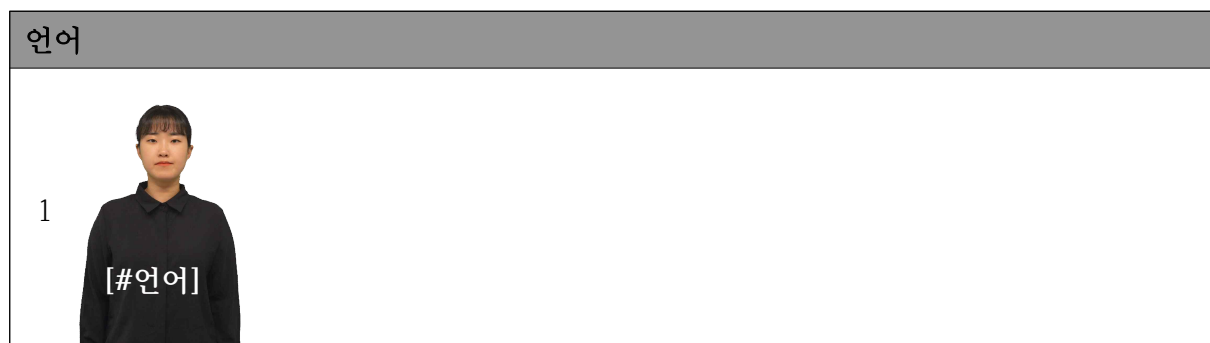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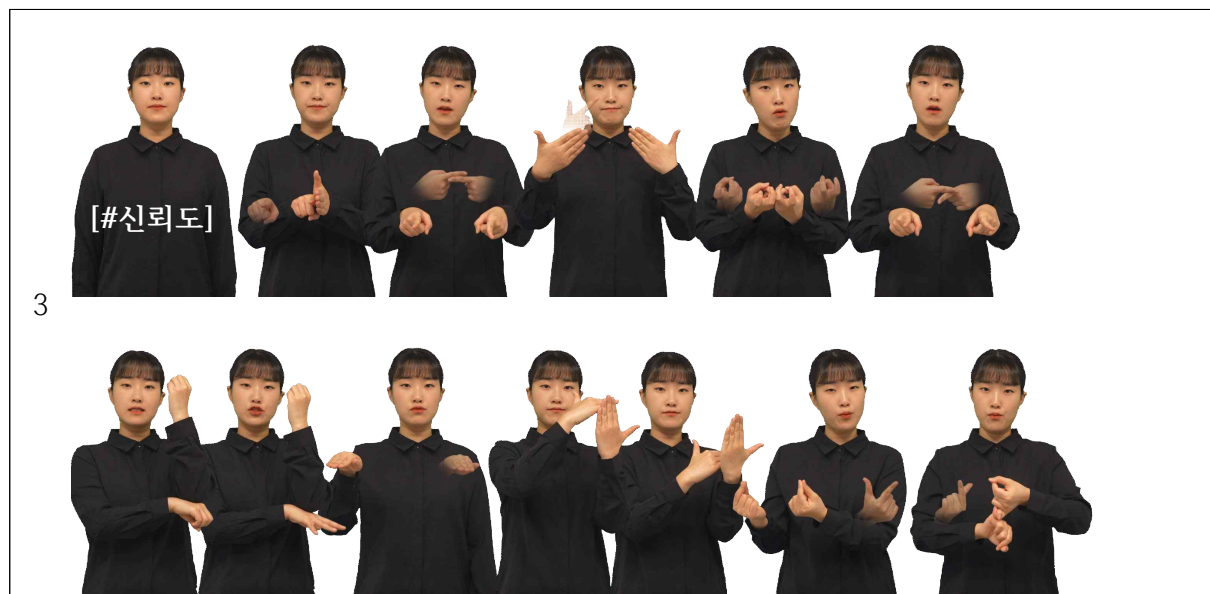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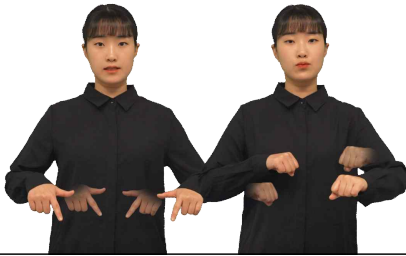
2





일반동사

1



일치동사1, 2

1

[#일치]



2

[#일치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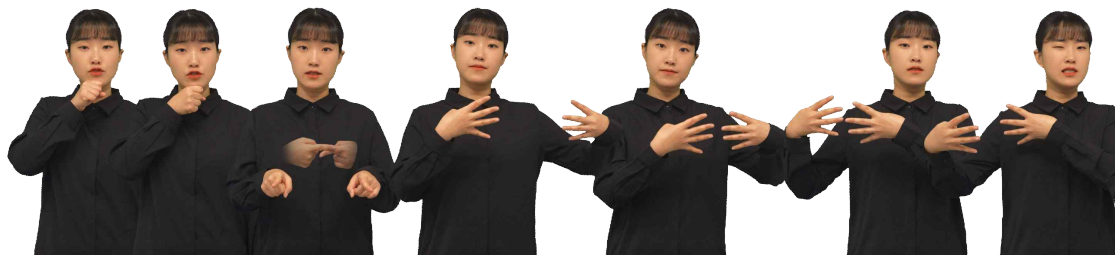


타당도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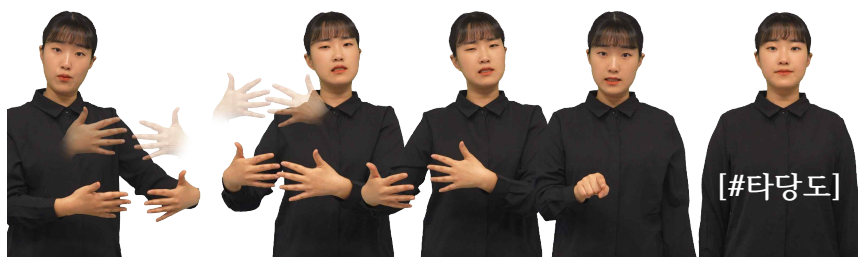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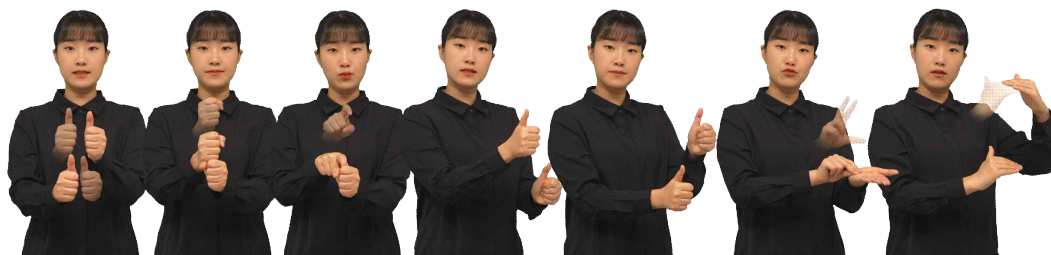
1



2



3



농문화와 농사회 영역

농유머	자아존중감
데프후드	정체성1
도상성1	정체성2
동화주의	정체성3
수어문학1	제3의문화1
수어문학2	제3의문화2
언어적소수자	청능주의1
이중언어·이중문화농교육1	청능주의2
이중언어·이중문화농교육2	청능주의3
	코다

농유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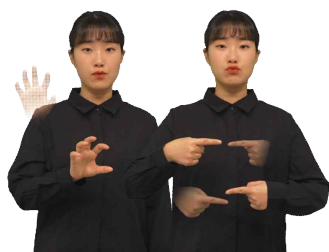
데프후드

1



도상성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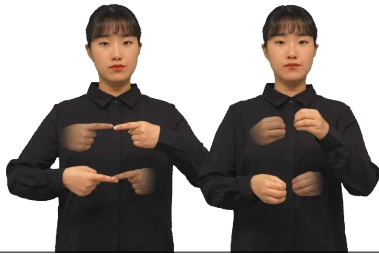
동화주의

1



수어문학1, 2

1



2



언어적소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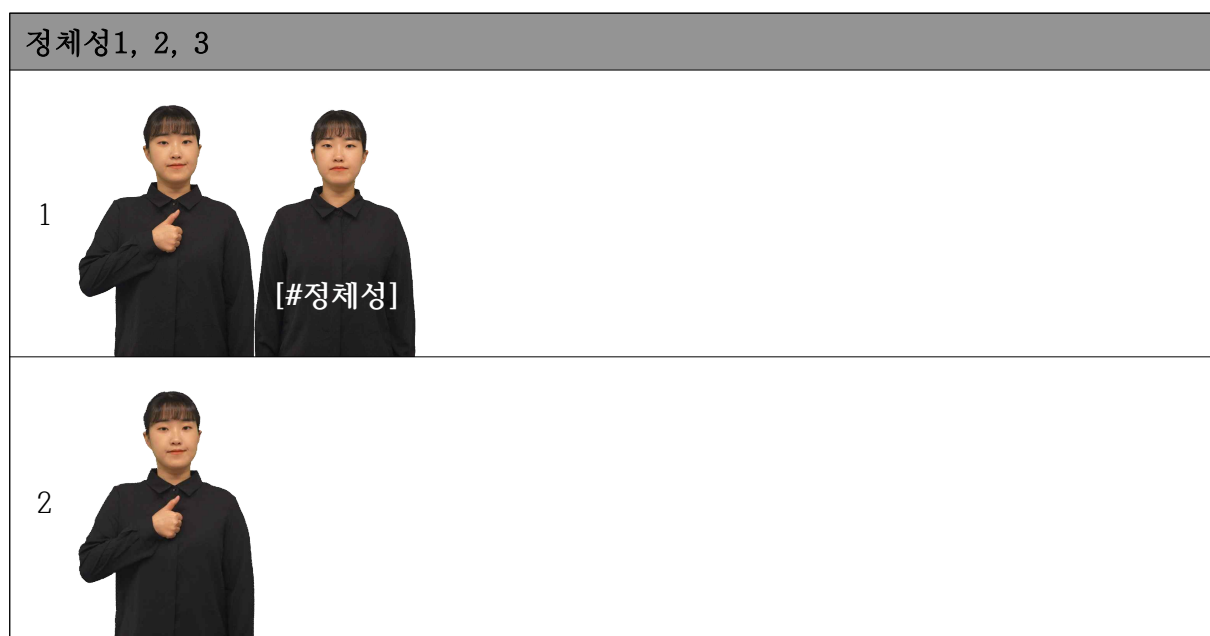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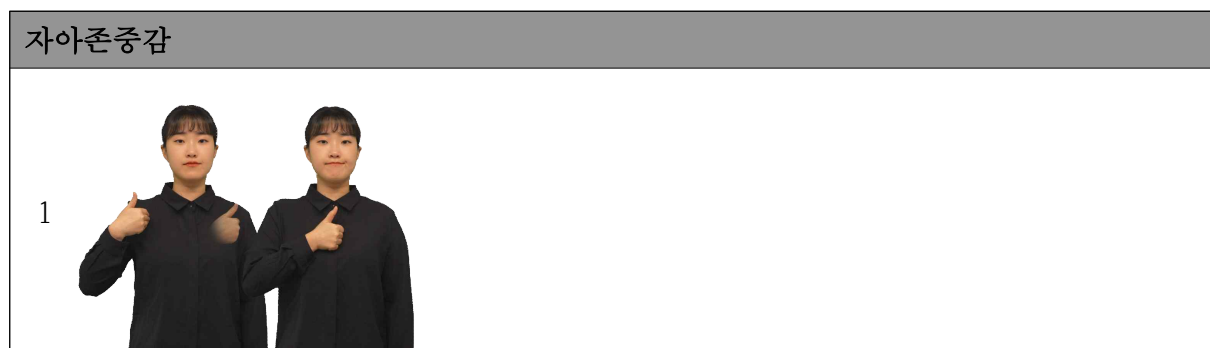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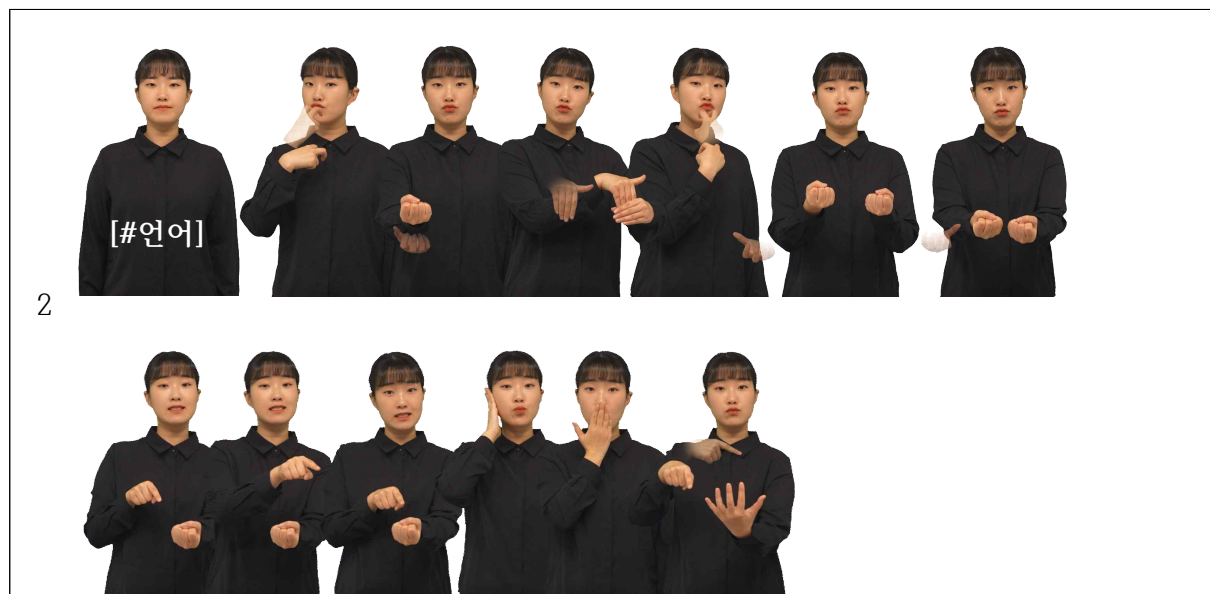
1



이중언어·이중문화농교육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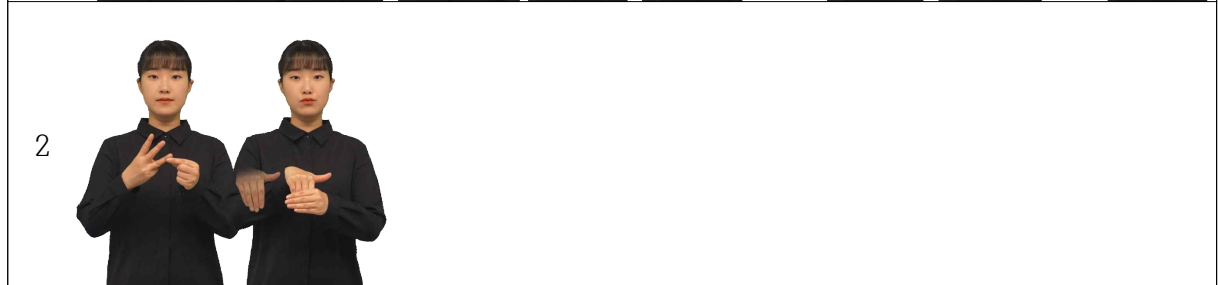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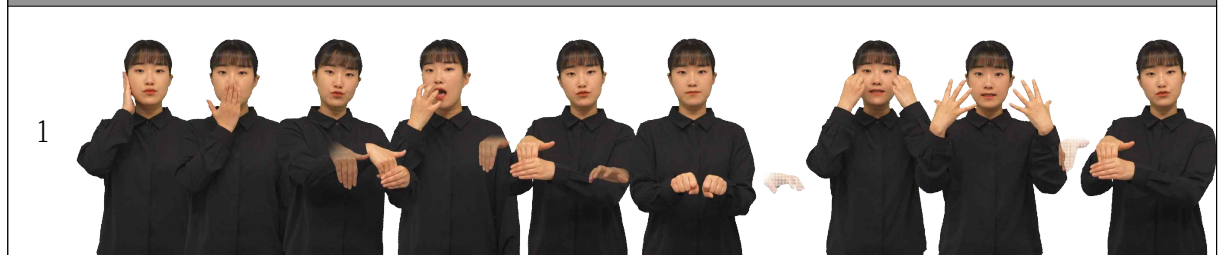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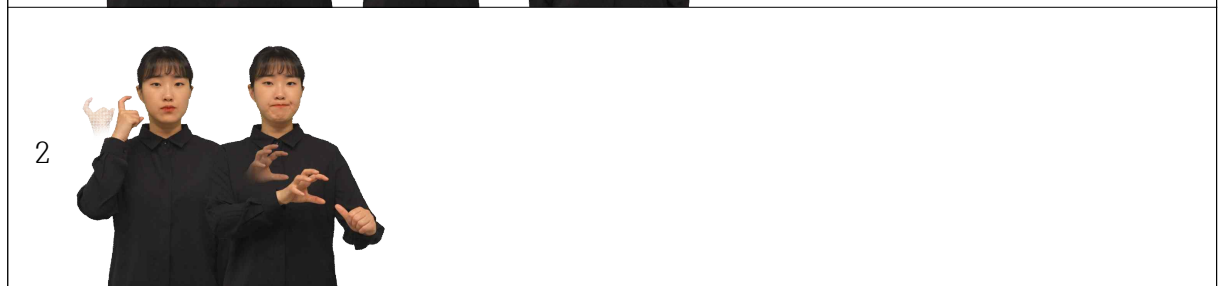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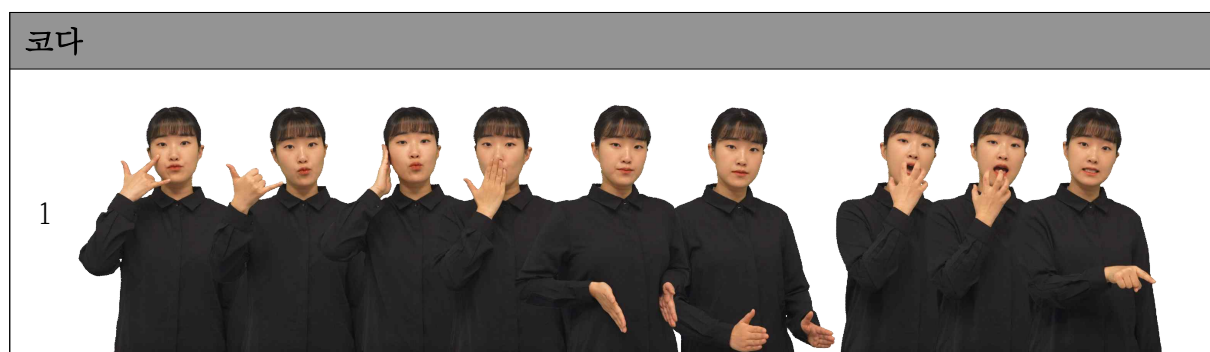


제3의문화1, 2



청능주의1, 2, 3





한국수어학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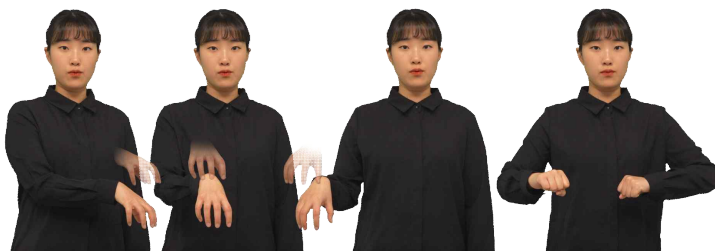
공간동사
굴절
다의어
도상성2
마우딩
복합어
분류사1
분류사2

어순1
어순2
의존형태소
자립형태소
자의성
최소대립쌍1
최소대립쌍2
파생어

품사
합성어
형태소
화제화
환유1
환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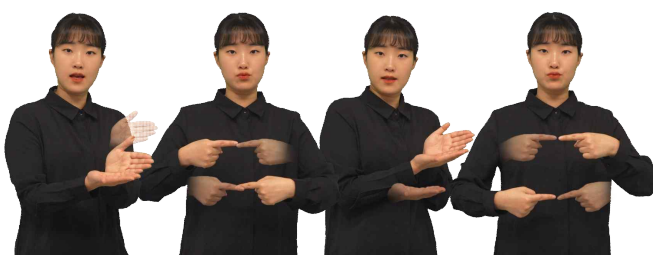
공간동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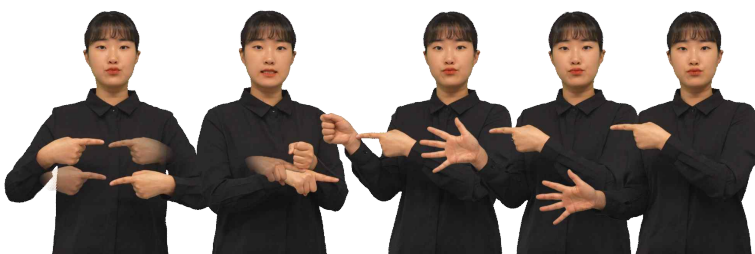
굴절

1



다의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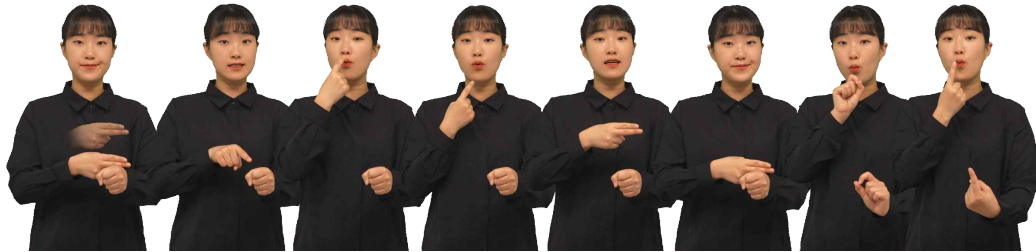
도상성2

1



마우딩

1



[#마우딩]

복합어

1



[#복합어]

분류사1, 2

1



[#분류사]

2



[#분류사]

어순1, 2

1



2



의존형태소

1



[#의존형태소]

자립형태소

1



[#자립형태소]

자의성

1



최소대립쌍1, 2

1



2



파생어

1



품사

1

[#품사]

합성어

1

[#합성어]

형태소

1

[#형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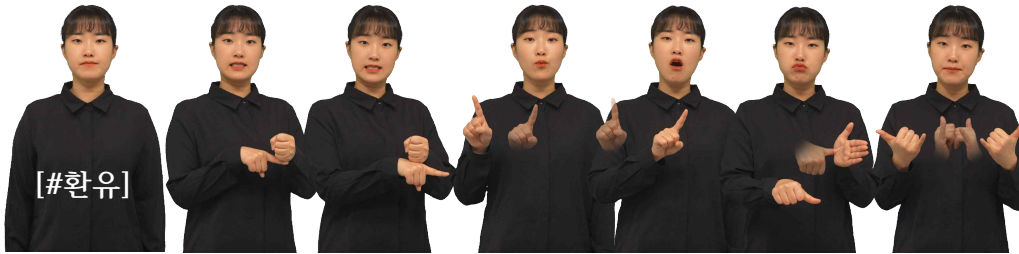
화제화

1

[#화제화]

환유1, 2

1



2



한국수어 실제1 영역

한국수어 실제2 영역

부정어3
역할전환1
역할전환2
오디즘1
오디즘2
오디즘3

부정어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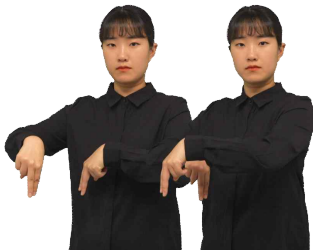


역할전환1, 2

1



2



오디즘1, 2, 3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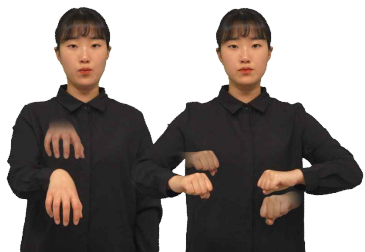


〈부록2〉 교육 현장에서 수집한 전문용어별 수어 표현

공간동사	배경지식통합의원리	언어적소수자	정체성
관용표현	복합어	역할전환	제3의문화
교육과정	부정어	의사소통중심	청능주의
굴절	분류사	의존형태소	최소대립쌍
다의어	상세화의원리	이중부정	코다
데프후드	생산적수어	이중언어·이중문화농교육	타당도
도상성	수어문학	일반동사	파생어
동화주의	수지한국어	일치동사	품사
마우딩	신뢰도	자립형태소	합성어
맥락의원리	어순	자아존중감	형태소
반복노출의원리	언어	자의성	화제화
			환유

공간동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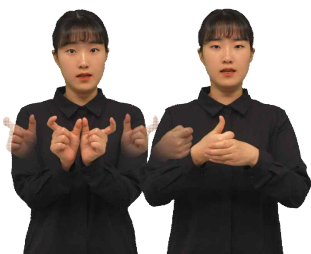


관용표현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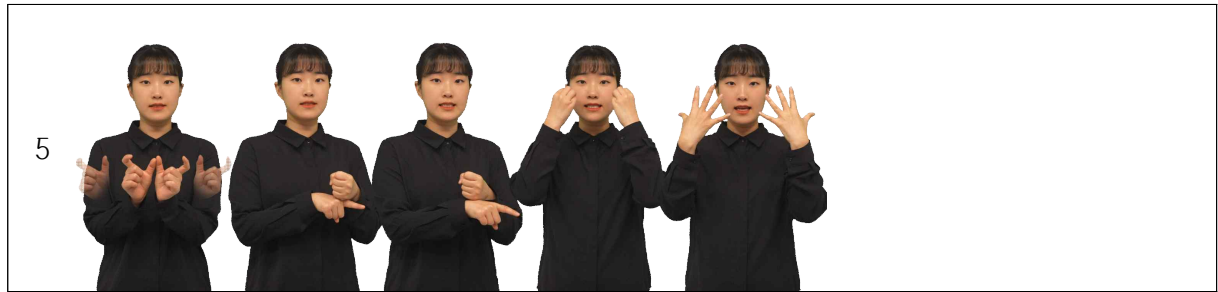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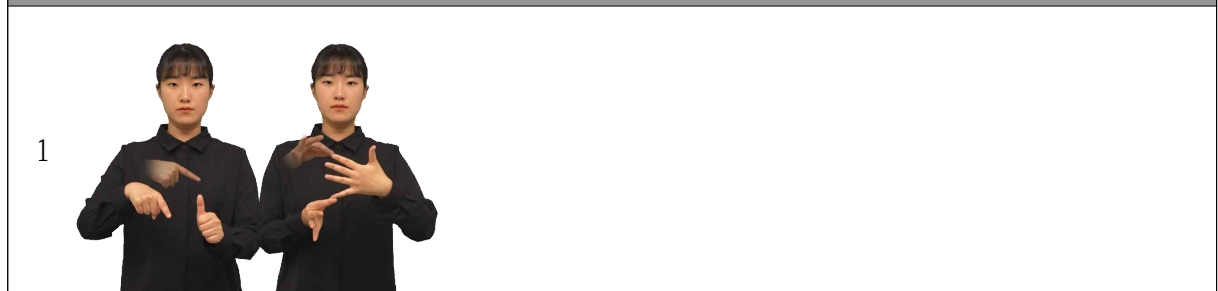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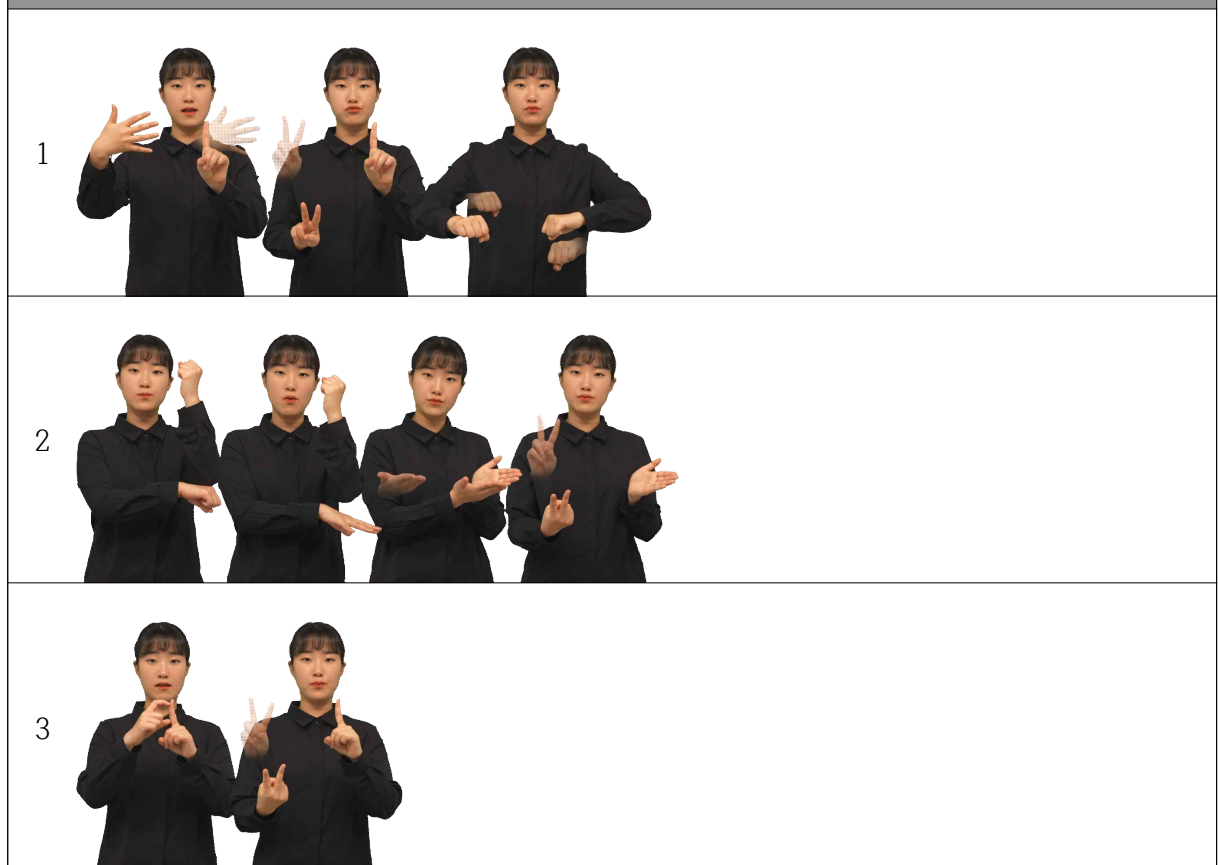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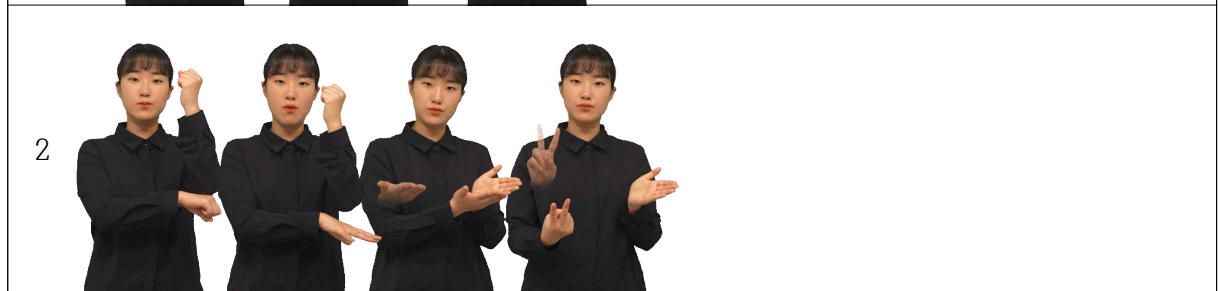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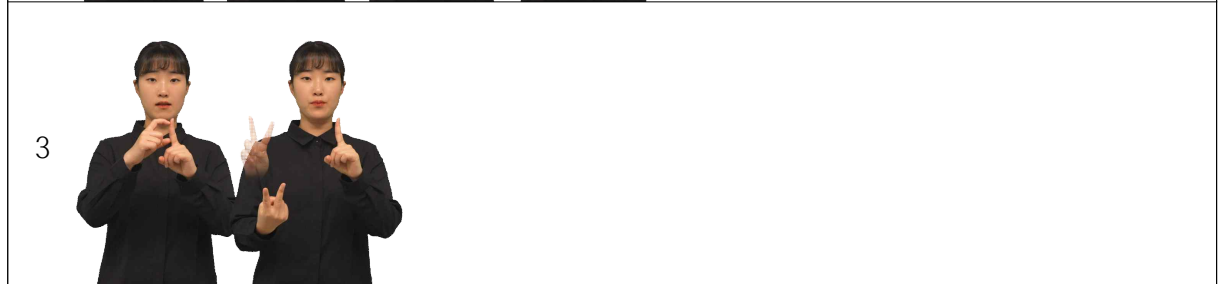
굴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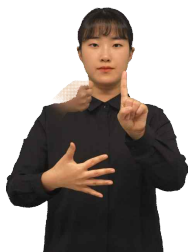


3



다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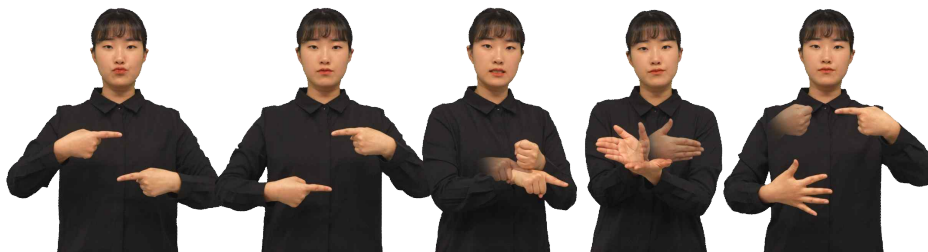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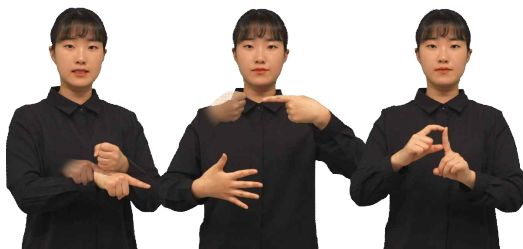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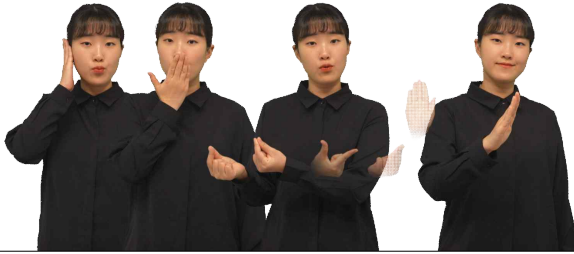


4



데프후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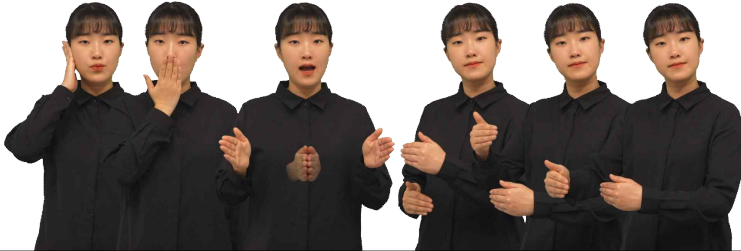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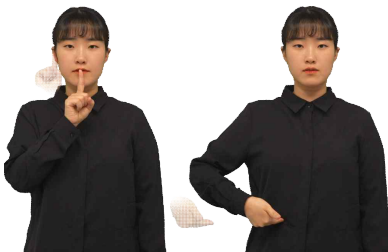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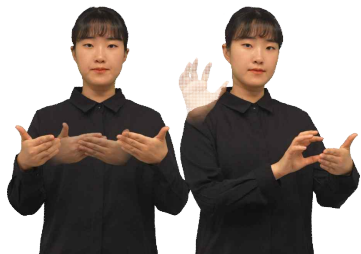


6



도상성

1



2



동화주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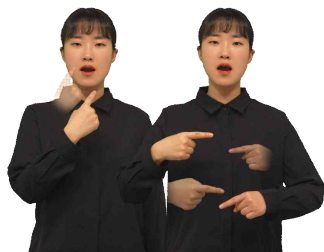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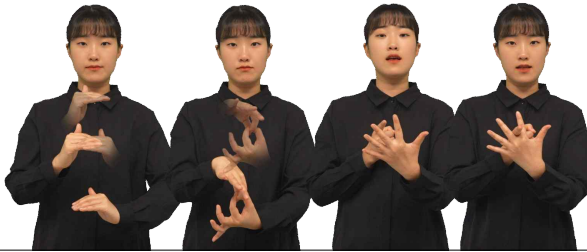
마우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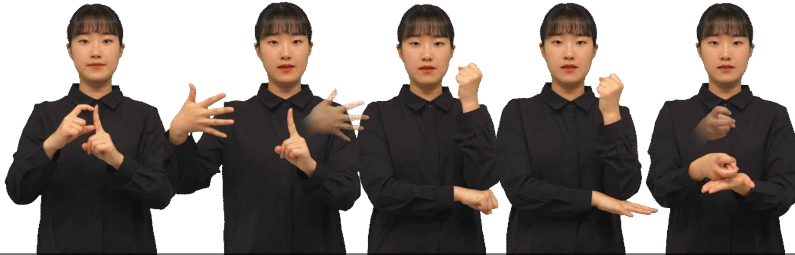


맥락의원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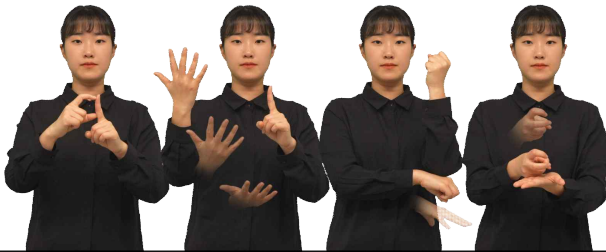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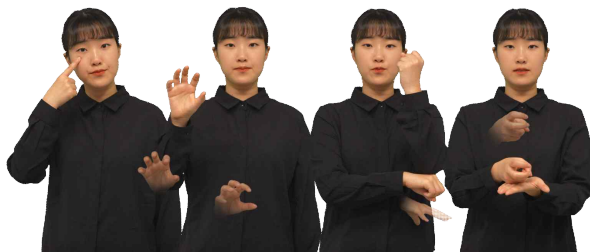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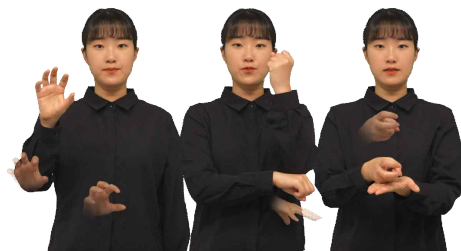


반복노출의원리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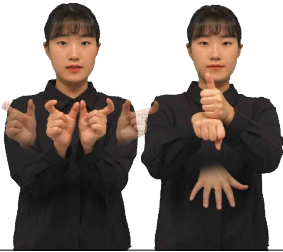
배경지식통합의원리

1



복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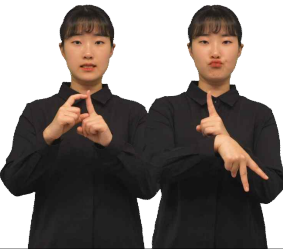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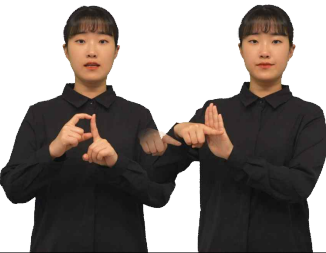


3



부정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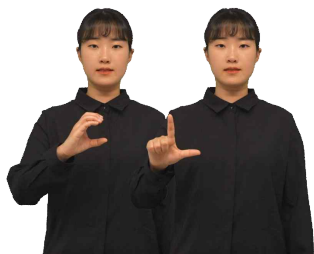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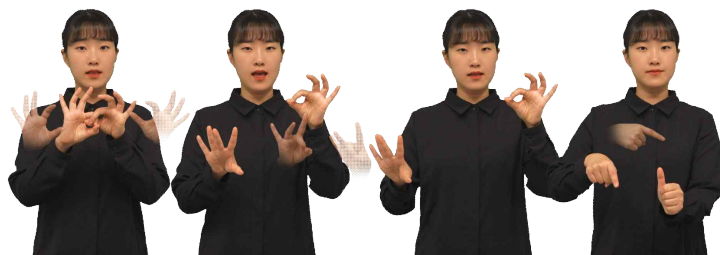
분류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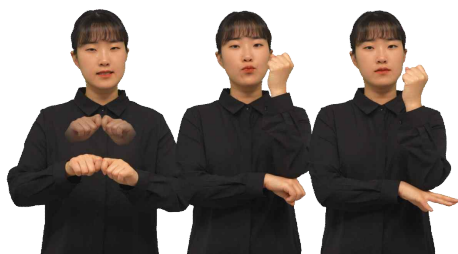


상세화의원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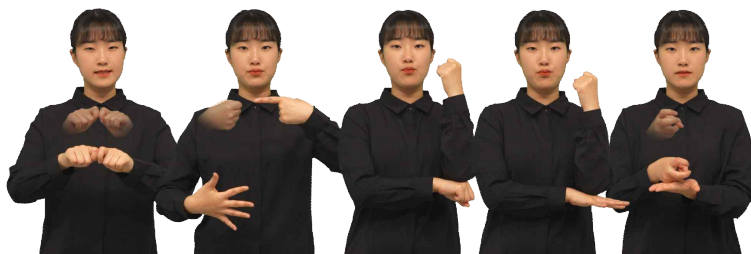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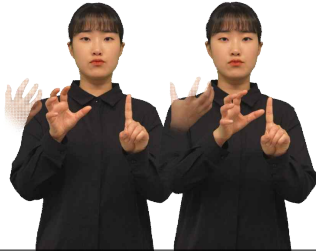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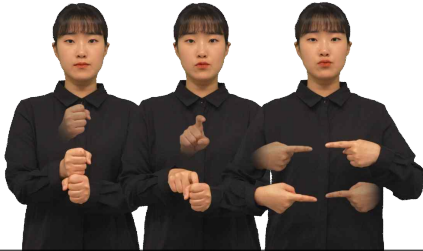


생산적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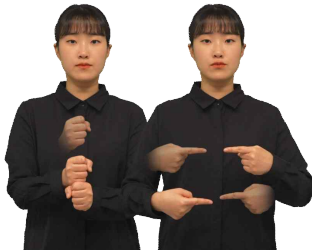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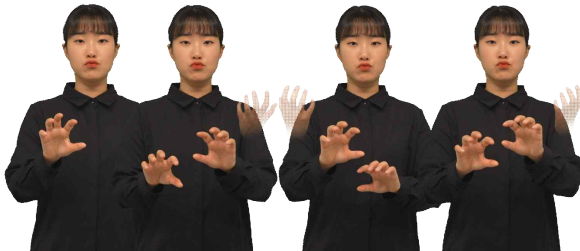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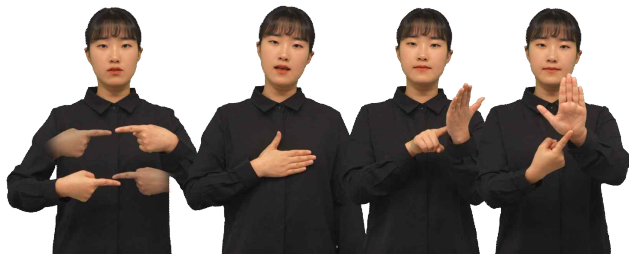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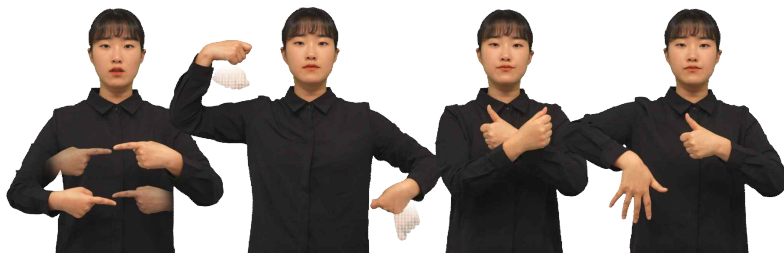


수어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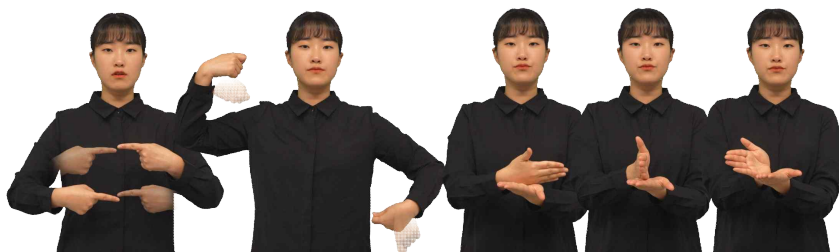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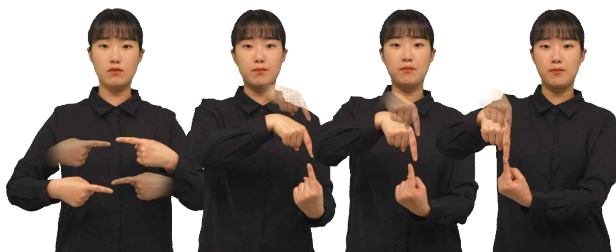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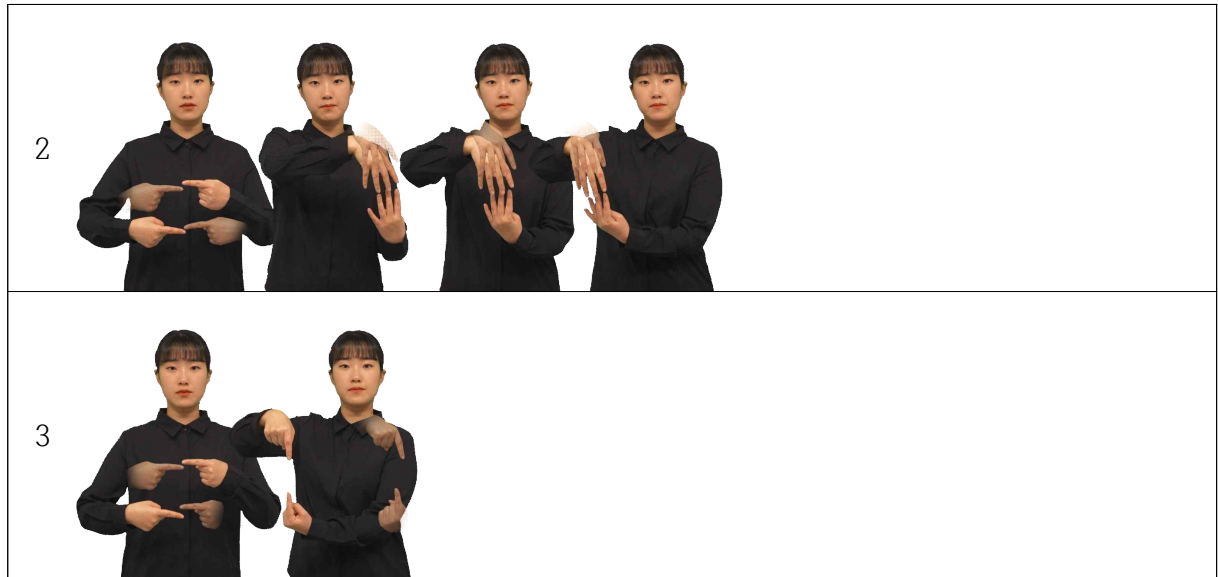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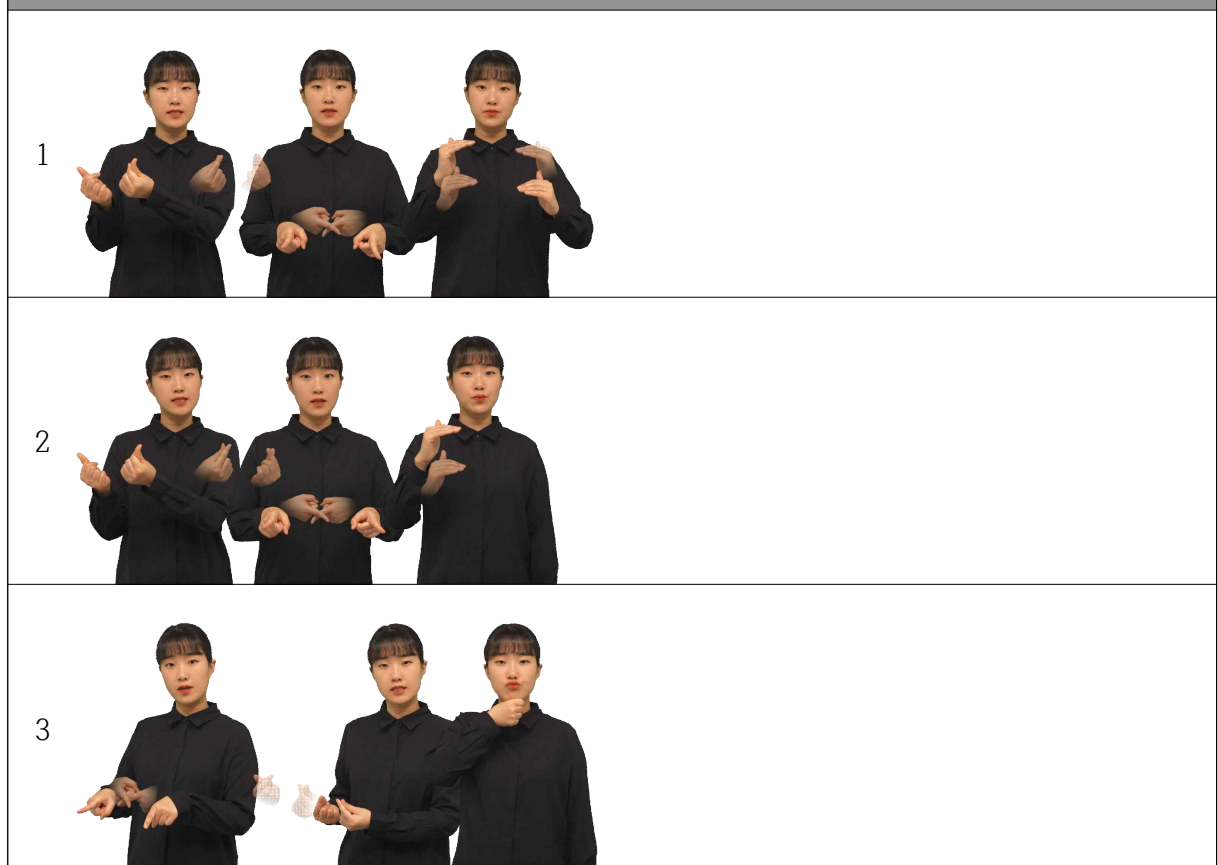
수지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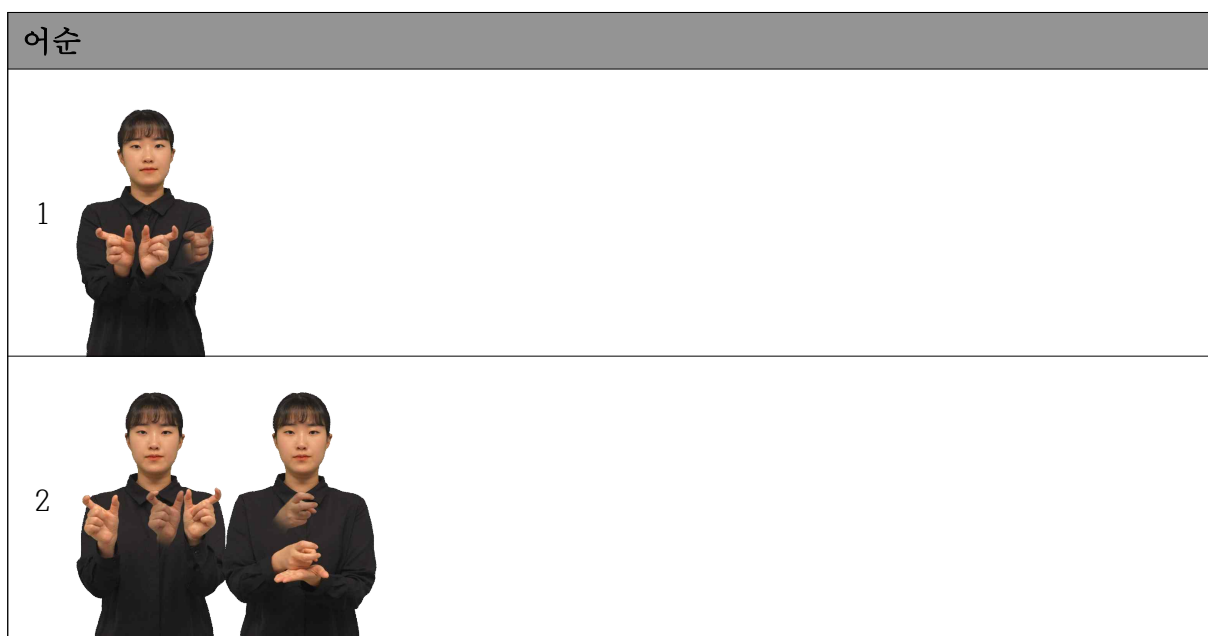
1





신뢰도





언어적소수자

1

[#언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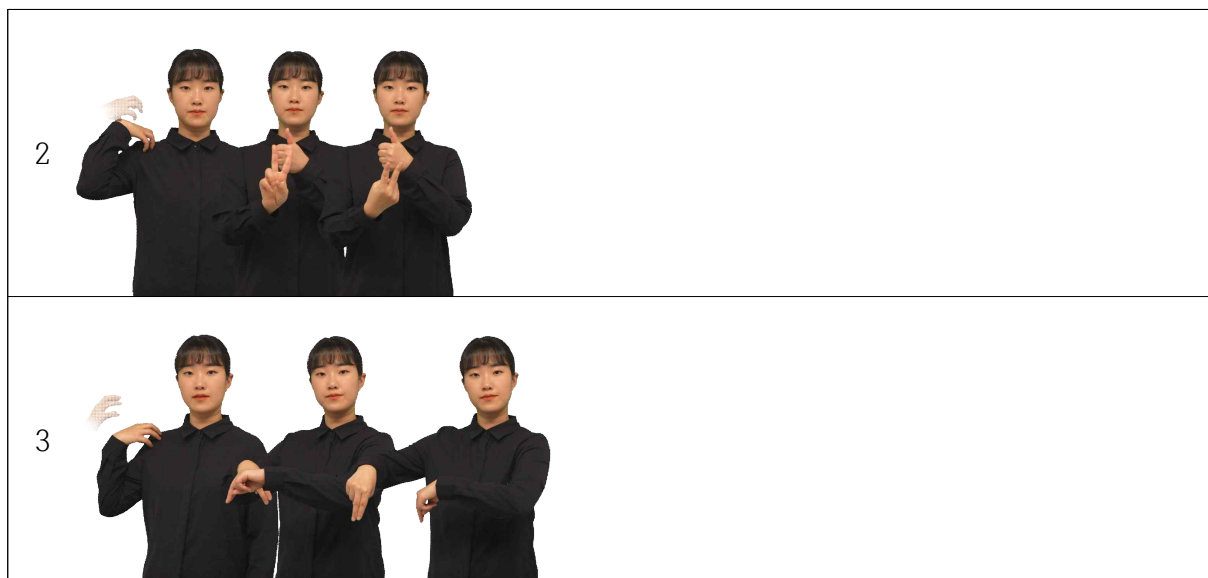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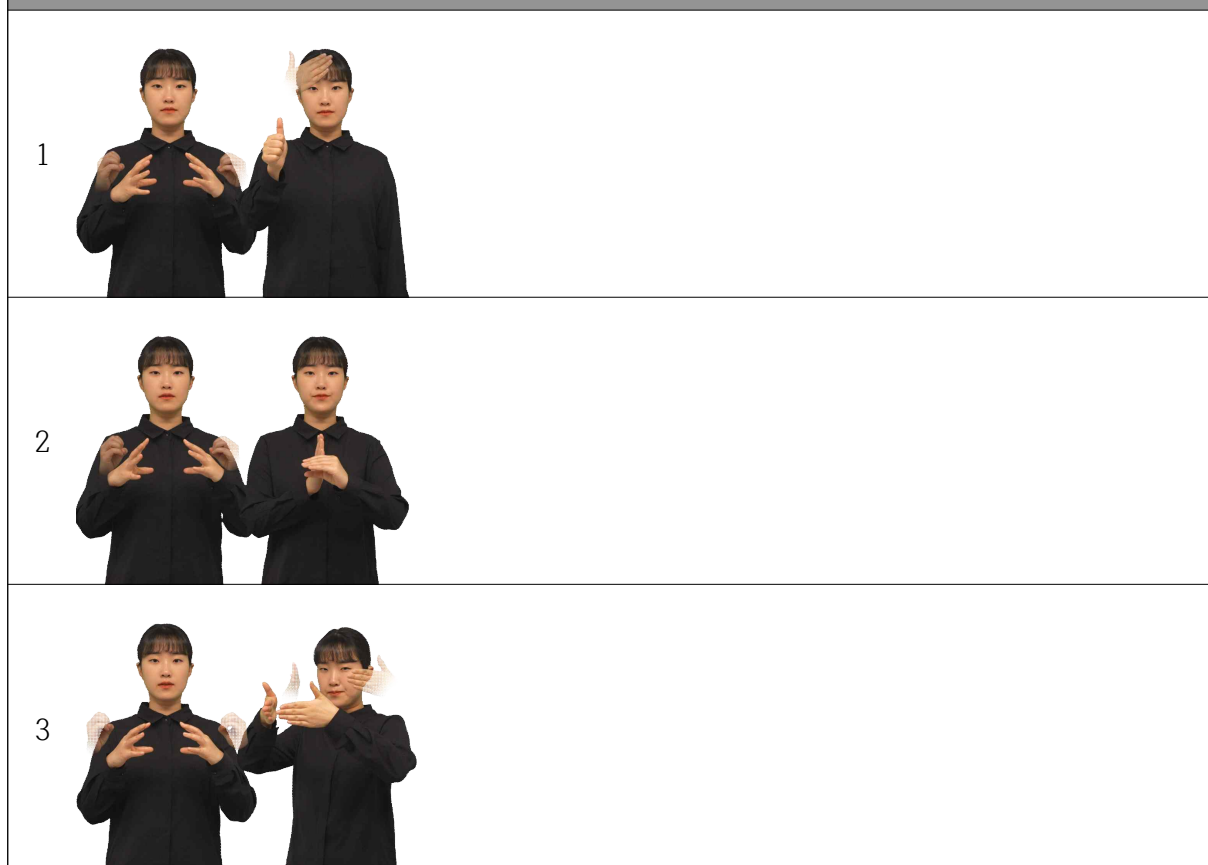
[#소수자]

역할전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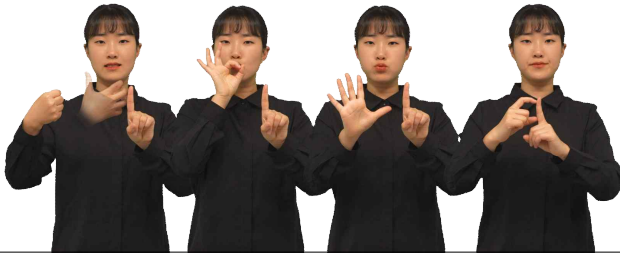


의사소통중심



의존형태소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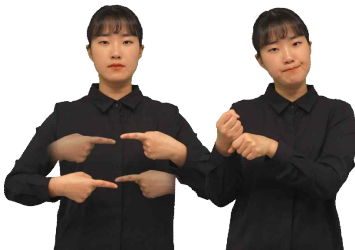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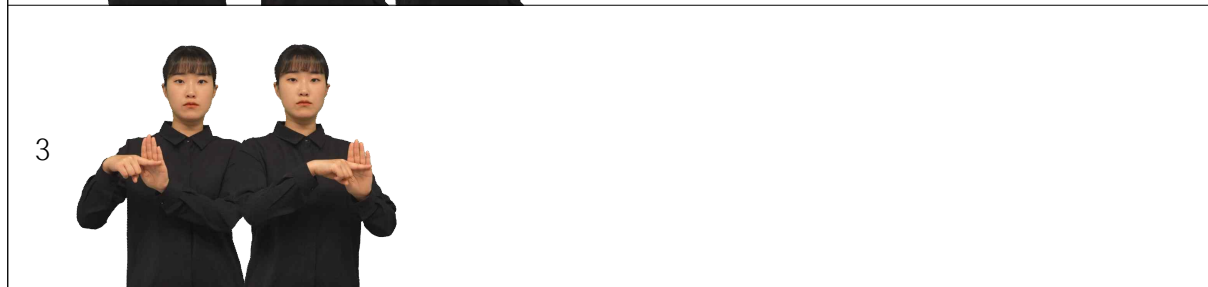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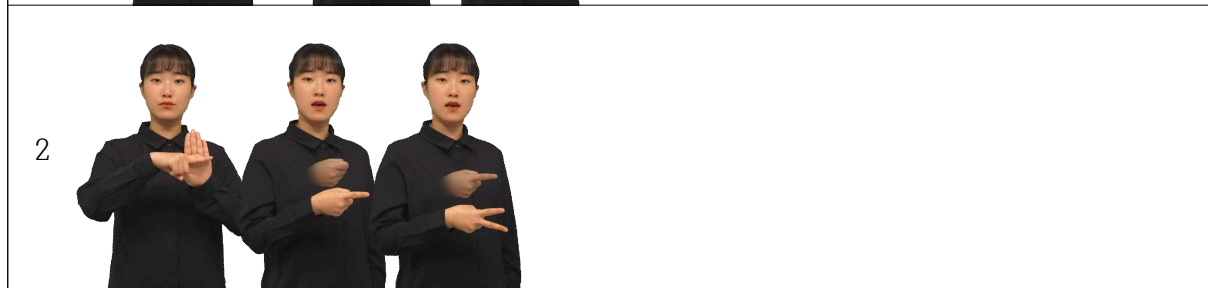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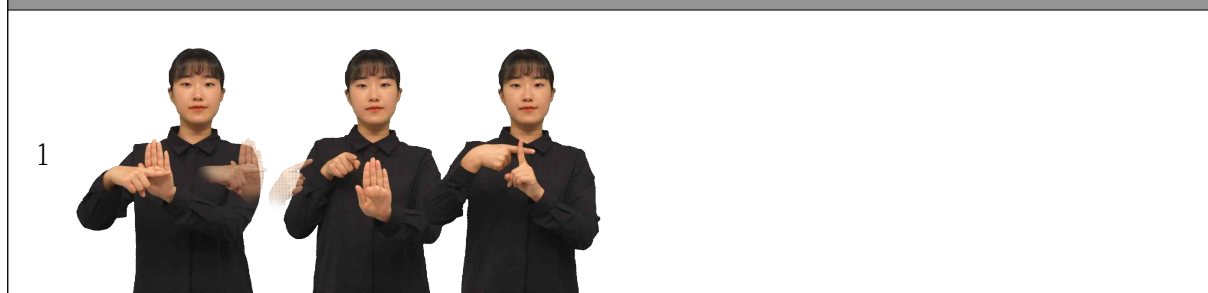


6





이중부정



이중언어·이중문화농교육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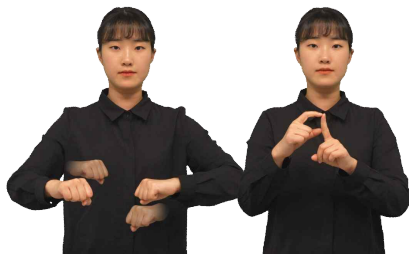


일반동사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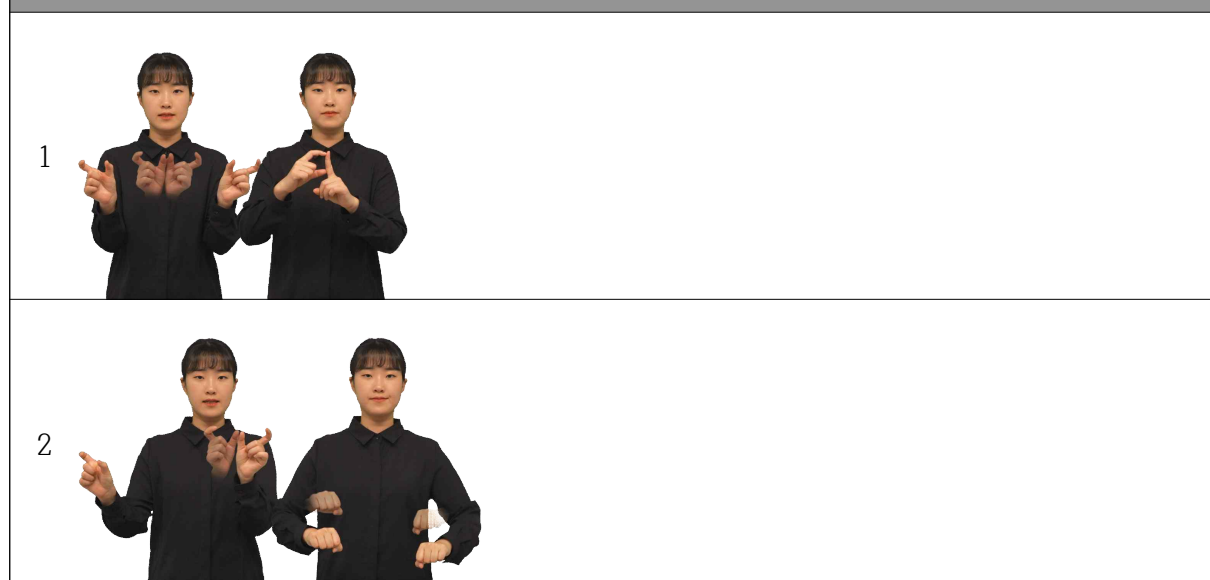
일치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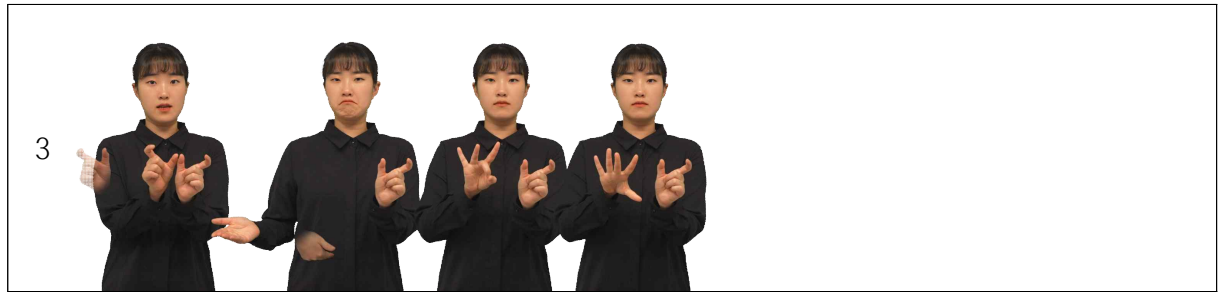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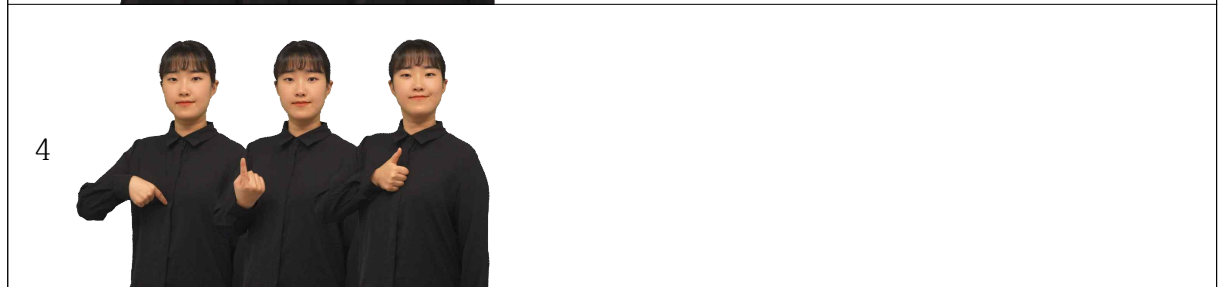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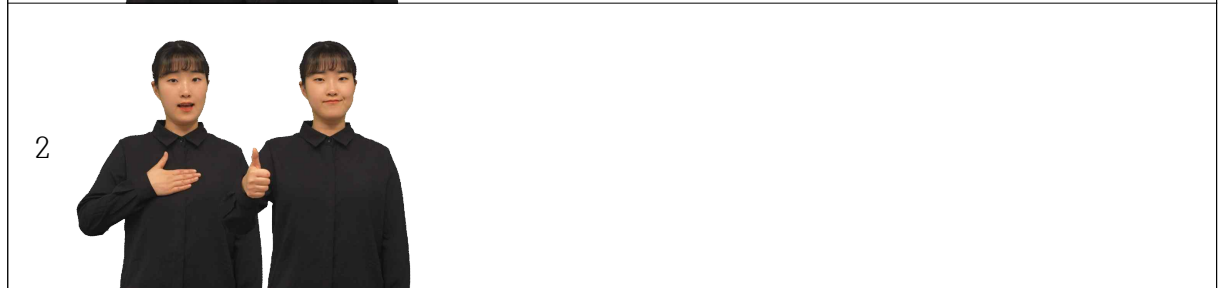


자립형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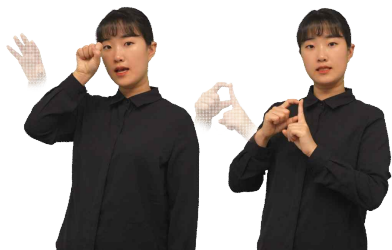


자아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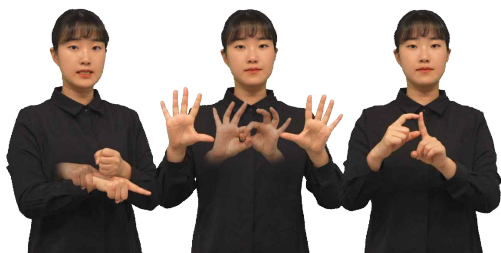


자의성

1



2



정체성

1



2



3



제3의문화

1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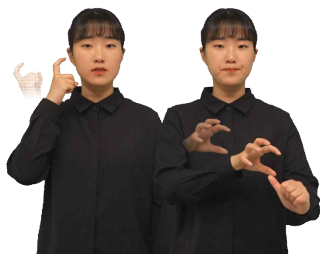
2

3

4

청능주의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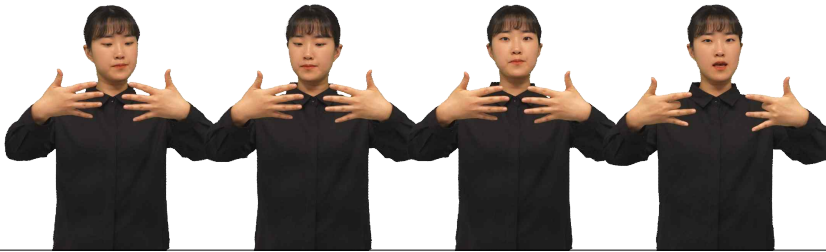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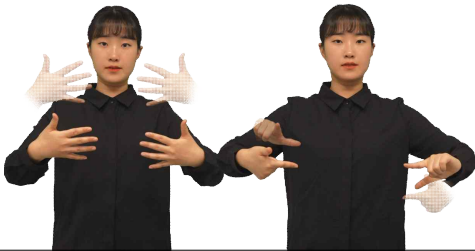


최소대립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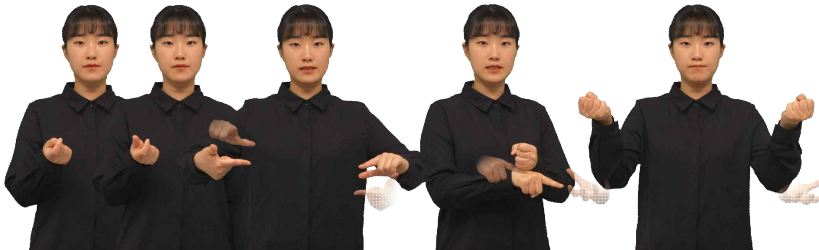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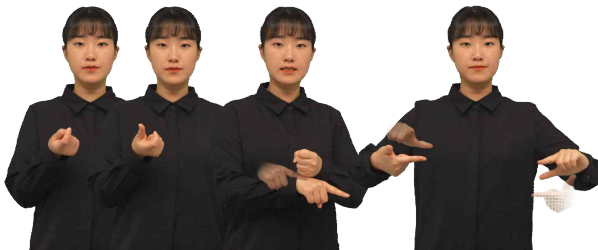
2



3



4



5



코다

1



타당도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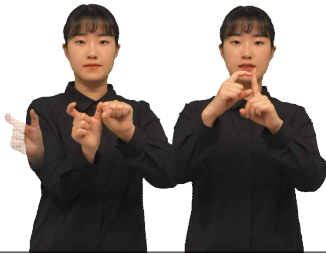


4



파생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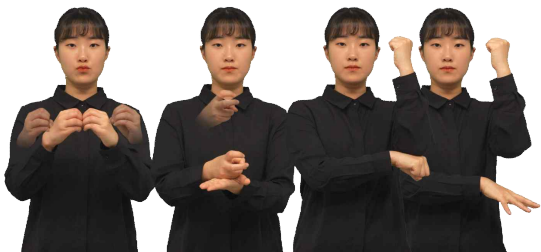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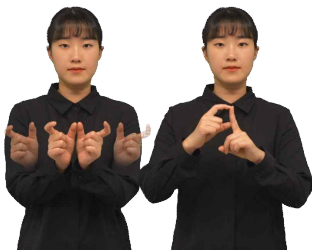
품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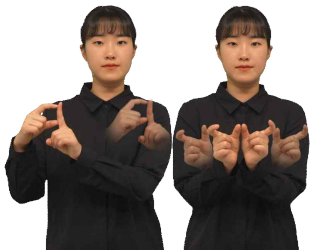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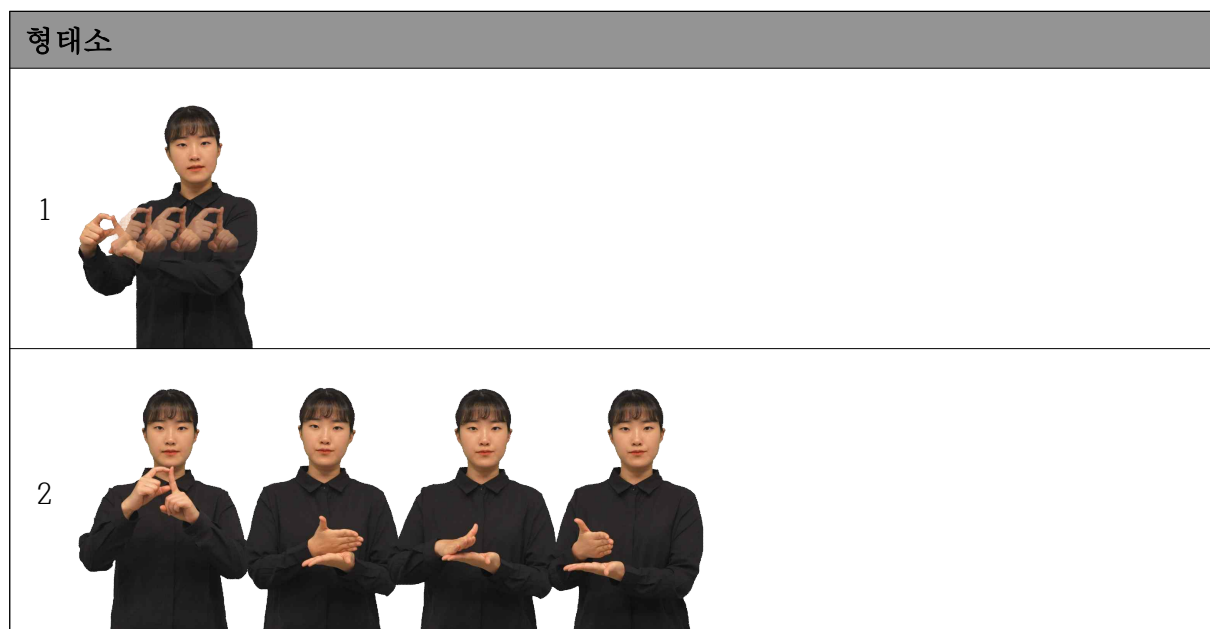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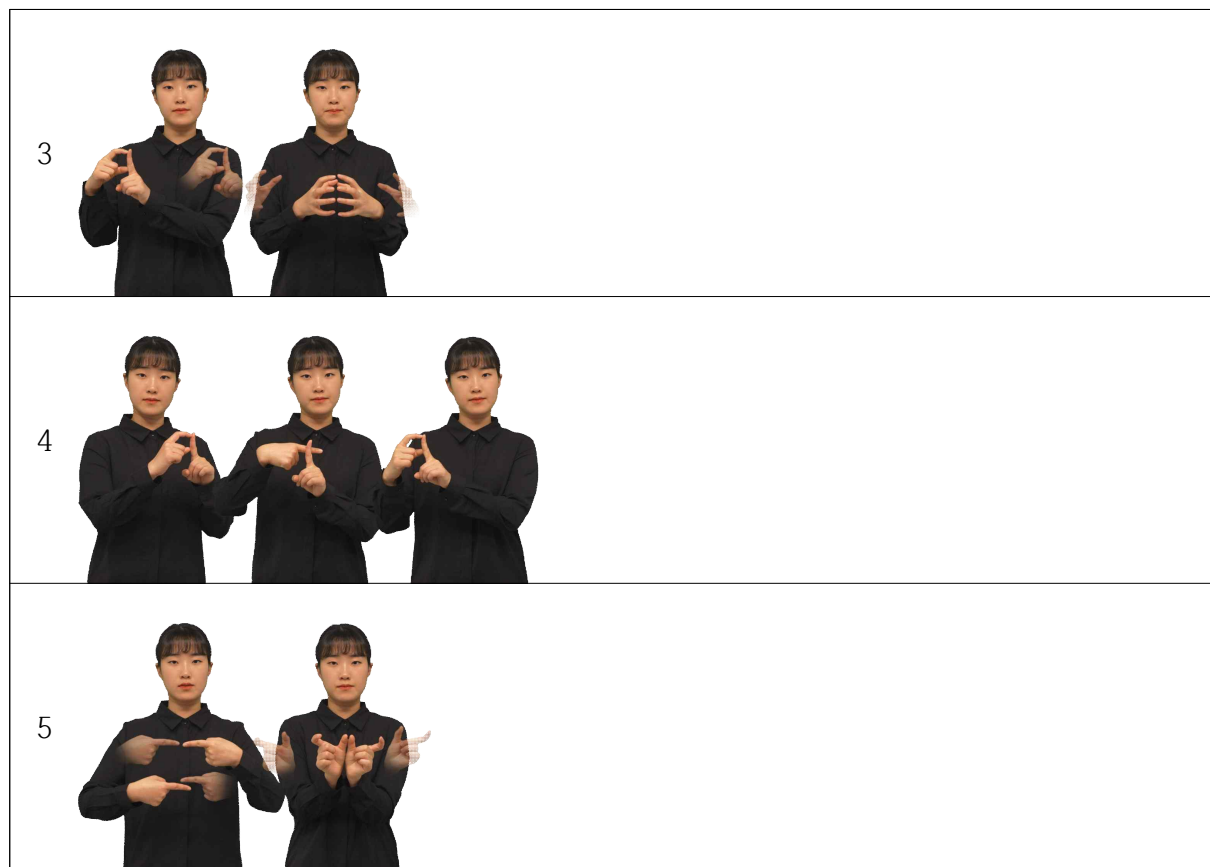
합성어

1



2





화제화

1



2



환유

1



2



3





〈부록3〉 일본 기관 방문

1) 방문 개요

방문 목적	학술 분야 통역에서 전문용어 통역 방법 교육 자료, 전문용어 연구 자료 등 자료 수집 및 현황 파악
방문 기간	2023년 12월 24일(일) ~ 12월 27일(수) 3박 4일
방문지	일본, 오사카 - 일본국립민족학박물관(National Museum of Ethnology) 〒565-8511 大阪府吹田市千里万博公園10-1 https://www.minpaku.ac.jp - 군마대학교 줌미팅 https://sign.hess.gunma-u.ac.jp 일본, 교토 - 일본수화연구소 & 전국수어연수센터 〒616-8372 京都府京都市右京区嵯峨天龍寺広道町3-4 https://jisls.com-sagano.com/
방문자	- 남기현 책임연구원 - 민은주 공동연구원 - 조희경 공동연구원

2) 방문 일정

날 짜	방문지	업무 내용	연락담당자
12월 24일(일)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	- 인천공항 출국수속 및 출발 - 간사이국제공항 도착 - 숙소 이동	
12월 25일(월)	오사카 국립민족학박물관	- 국립민족학박물관 수어 관련 전시물 견학 - 인간문화연구개발센터 연구원 인터뷰 - 군마대학교 교수 인터뷰 - 전문용어에 관한 질의응답 - 연구자료 수집	케이코 사가라 사토코 나카노
12월 26일(화)	교토 일본수어연구소	- 일본 수화연구소 견학 - 사무국 처장 인터뷰 - 수어 사업과 담당자 미국수어 통역 - ‘새로운 수어’ 수집 방법에 관한 질의응답 - 연구자료 수집	카와이 토모카 나미 아키야마
12월 27일(수)	인천국제공항	-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 출국 - 인천공항 도착 및 입국	

3) 방문 내용

(1)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

기관명	일본국립민족학박물관(National Museum of Ethnology)
방문 기간	2023년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방 문 지	오사카 스이타시 센리 엑스포 공원 10-1
참석자(직책)	케이코 사가라 (고등인문과학부 수화언어학 연구부문 조교수) 사토코 나카노 (군마대학교 공동교육학부 특수지원교육학과 조교수)

1. 기관 소개

1) 국립민족학박물관

국립민족학박물관(민파쿠)은 문화인류학 및 민족학에 관한 연구활동과 그 성과를 전시, 공개하는 박물관 활동이 일체화된 연구소이다. 본 박물관은 조사와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여러 민족의 사회와 문화에 관한 최신정보와 지식을 대중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1974년에 설립되어, 1977년 11월에 개관했다. 본 박물관은 여러 민족의 생활을 알 수 있는 생활도구를 비롯한 많은 수장품과 레코드, DVD, 테이프, 영화 등 영상과 음향, 도서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자료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2) 군마대학교 공동교육학부

국제교류기금 조성 사업 '농인 지원 인재 양성을 위한 원격 수어 교육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이 농아동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어통역사 및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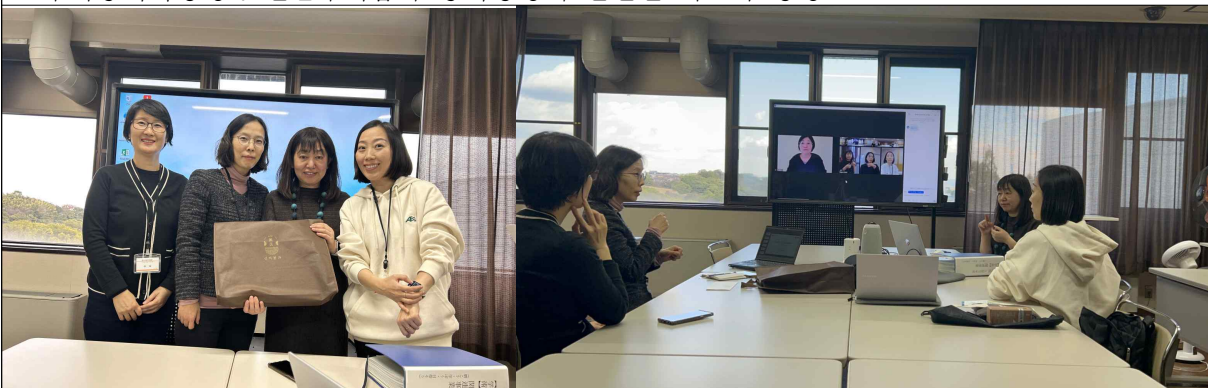
1) 국립민속학박물관

수어 전시장에는 47개 언어로 번역된 “배고픈 애벌레” 그림책이 전시되어있고, 세계 수어도 12개의 언어로 영상에 담고 있다. 영상시청실에서는 「수화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수어를 기록한 프로그램을 소형 시청부스를 이용해서 일본어와 일본수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12개의 나라 수어로 기초단어를 비교할 수 있다. ‘모모타로’ 이야기를 통해 일본 22개 지역의 수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전시되어있다.

2) 군마대학교 공동교육학부

CEFR/ 일본지역수어 / 프로젝트의 목표와 SDGs

수어통역사양성 / 일본수어습득 통역양성에 관련된 지도자 양성



(2) 일본 수화연구소

기관명	일본 수화연구소 & 전국수화연수센터
방문 기간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
방 문 지	교토시 우쿄구 사가텐류지 히로미치초 3-4
참석자(직책)	카와이 토모카 (사무국 처장) 나미 아키야마 (수어 사업과 및 인재양성 담당)

1. 기관 소개

2002년 전국 수어의 거점으로 설립되었다. 수어를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 환경 조성을 위한 연수시설로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농인연맹, 전국수어통역문제연구회, 일본수어통역사협회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2006년 일본농아인연맹에 소속되어 있던 일본 수어연구소를 국립수어연수센터로 이관했다.

표준수어연구부는 1969년에 일본농아인연맹이 설립한 수어법위원회 이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표준수어의 확정과 보급에 임하고 있다. 수어는 지역에 따라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수어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 이 외에도 매일 등장하는 신조어에 대응하여 새로운 수어를 제안하는 등 매년 300여 단어의 표준수어를 구축하고 있다. 확인된 수어의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일본농아인연맹, 장애인CS방송, 청각장애인정보제공시설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표준수어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사업은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수화 표현 방법에 대해 연구, 조어를 실시하는 동시에, 그 보급을 도모해 청각 장애인 복지의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준 수화연구부에서 확정 또는 재확인을 실시한 표준 수화 단어를 공개하고 외국의 수화, 재판원 제도와 관련된 수어, 선거와 관련된 수어 등 특집에서도 소개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수어통역사업

인재양성사업(각종 연수회)

수어검정시험 사업(전국수어능력시험 1급~5급)

수어연구·보존·조어 사업(수화언어연구소, 수어종합자료실)

수어 보급 등 관련 사업(교토 사가노 수어축제, 사가노 영상제, 전학 접수 등)

새수어 본위원 9반(홋카이도 반, 동북반, 관동반, 기타신에츠반, 동해반, 킨키반, 중국반, 시코쿠반, 규슈반)



연구 책임자 남기현

공동 연구원 민은주, 조희경

연구 보조원 권희주, 이현진

담당 연구원 이현화(학예연구사) 서원희(연구원)

발행인 :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695, 전송 02-2669-9737

인쇄일 : 2023년 12월 29일

발행일 : 2023년 12월 29일

인 쇄 : 그린오피스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2023년 수어 교육 전문용어 표현 연구’ 연구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